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

KOREA

대한 칫과 의 학 사 연구 회 지 No.1.

December 1, 1960. No. 1. Choi Jeong Bong, D.D.S., Editor

This Journal is published annually by the Korean Dental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All communications to be addressed to the Editor, San-4-4, Hoigi-dong, Dongdaemun-gu, Seoul or to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35, Nakwon-dong, Jongro-gu, Seoul Korea.

OFFICERS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Advisers

Ahn Byeong Sik,	D.D.S.
Ahn Jong Seo,	D.D.S.
Han Dong Chan,	D.D.S.
Kim Doo Jong,	M.D., Ph.D.
Lee Hee Chang,	D.D.S.
Lee Ho Gon,	D.D.S.
Shin In Cheol,	D.D.S.

(alphabetical order)

President Lee Han Soo, D.D.S.

Secretary & Editor
Choi Jeong Bong, D.D.S.

Dec. 1, 1960

TO THE READERS

It is my great pleasure that we have established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and start publishing this yearly as its organ publication.

As no research has been made in this field so far, we in this number, had tried to list all what are known, but naturally there must be inevitable errors and omissions, and revisions and additions should cover this fault yearly.

Any questions or references from public are always welcome to the editor of this magazine. Even after many decades and men changed, any interested persons, home and abroad, can contact this organization and satisfactory result may be obtained.

History is ours. We love history. And it is our ambition to responsible for not only the past, but the future history of ours.

From this view-point, the History of Korean Dentistry should trace the development of ours from the very beginning of it to the present, having deep interest in the possible future development of the same.

I expect and thank in advance for full support and joining to our efforts from those who feel responsibility for our further development in this field.

Hoping the unification of our country and world peace, in very near future.

HAN SOO LEE

창 간 사

— 수 많은 벗들에게 —

이 한 수

보잘것 없는 이 책입니다. 1960년 10월 7일, 이 땅에 처음으로 『대한첫과 의학사 연구회』라는 학술 연구 단체가 생기고, 이제 이런 잡지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이 방편의 연구가 거의 없었기에 이번 잡지에선 그동안 알려진 점을 모두 수록 합니다만 많은 부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호(號)를 거듭함에 따라 그 점은 수정 추가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지금 작정으로는 급후 얼마 동안은 연간(年刊)으로 발행했으면 합니다.

후일 혹시 이 방편에 뜻을 두신 분이 계시고 혹 이책에 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또는 이 방편 연구상 알고자 하시는 점이 계신다면 언제라도 이 잡지에 기재된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으실 때가 있으시다면 「대한민국 첫과의사협회」라고만 쓰시고 보내 주시더라도 아마 연락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세월은 흐르고 이 땅의 사람은 바뀔지라도 후일의 그 어느날 이 책을 보시는 이가 있어서 편지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반가히 그것을 받고서 답장을 쓸 수 있는 친구가 반드시 있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들의 역사까지 책임지려는 의욕을 품습니다

첫과 의사학은 의학의 시초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상을 우리 인류 미래의 의학 발전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두는 첫과의인의 입장에서 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가 합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의 첫과의학 발전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수많은 친구 여러분 그리고 보잘것 없는 이 잡지이긴하나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진정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온 지상의 벗들과 함께 창간의 기쁨을 나누며 또한 수 많은 우리 후진들의 끊임 없는 학술연구에 더욱 많은 영광이 되고 있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祝 辭

淑明女大 總長 金 斗 鍾

醫學이 近世文化의 知性의 主流의 하나로서 各分科에 걸쳐 때와 날을 다투어 發展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現在 浬소 경험하며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醫學의 한 分科로서 의 醫史學은 그 研究나 活動에 있어 반드시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찍 생각하면 醫史學이 臨床醫學에 直接으로 應用되지 않는 까닭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반드시 그런것 만은 아니다.

元來로 醫史學은 醫學의 起源으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發展形態를 史學的으로 研究하는 것이다. 그러나 單純히 醫學의 知識의 時代的變遷을 살피는데만 있는 것은 아니고 醫學이 무엇인가라는 그의 性格을 생각하며 그의 意義의 根據를 밝히고자 하는 말하자면 醫學의 本質을 認識코저 하는데에도 그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醫學의 歷史的發展의 자취를 追求하는데에는 그 知識의 時代化的變遷을 科學的理論으로 分析하며 科學的方法으로 考察하는 以外에 醫學本質에 關한 哲學的 問題를 論究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 뿐 아니라 醫學發展을 둘러싼 그 當時의 社會的環境과 그 民族의 思想의 背景에도 많은 影響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醫學全體의 時代的背景을 研究對象으로하는 醫史學은 單純한 技術史에 限한 것이 아니고 그範圍가 一般文化史상의 넓은 領域에까지 關聯을 갖고 있다. 研究의 「태마」로서 實驗醫學에 從事하는 學徒들에게는 어려운 일의 하나이라고 본다. 오늘날의 醫史學의 業績과 活動이 다른 分科에 比하여 活潑치 않는 것도 이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崔正奉君은 서울大學校齒科大學을卒業하고 다시 大學院에 들어가 基礎齒科學을 研究하면서 齒科醫史學의 研究에 心熱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齒科醫史學은 아직까지 荒蕪地 그대로 자빠져 있다. 勇氣와 意慾과 能力을 갖춘 年富力強한 崔君으로는 이難關을 紛碎하고 開拓의 길을 創造할수 있을 것이다. 本研究誌가 創刊됨으로 因하여 이分野에 關한 時代的史料가 整備될 것을 기대하며 研究의 意慾이 刺戟될 것으로 確信한다. 學問의 길에는 끝이 있을수 없다.

언제든지 그앞에는 險惡한 가시범불의 길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險路를突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忍耐와 努力이 需要된다. 나는 우리나라 醫史學의 將來를 위하여 衷心으로 君의 探究的氣風과 勇躍의 意慾이 계속 되어 가기를 비려 마지 않는다.

C O N T E N T S

To the Readers	Lee Han Soo	1
Adviser's Message	Kim Doo Jong	3

REVIEWS

Dentistry in Korea	Pack Myeong Jin	6
Chronological Review of Dentistry	Shin In Cheol	13
Growth of Dentistry since 1945	Kim Young Chang	31
General View of Dental Field in Korea	Choi Jeong Bong	37

CULTURES

Oral Hygiene	Ham Seok Tae	61
Memory in Our Dental Life	Ahn Jong Seo	65
Dental Practise in Yi Dynasty	Eun Jung Gee	70

FOREIGNER'S

Memory of Dentistry in Korea	Narasaki	72
Developmental Story of Dentistry in Korea	Ozawa	76
The Progress of Dentistry in Korea	Boots	93

MISCELLANEA

Korea Dentistry, 1960		99
Dental Chronology in Korea	Lee Han Soo	116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

目 次

創 刊 辭	李 漢 水	1
祝 辭	金 斗 鍾	3

論 說

韓國의 齒科醫學	朴 明 鎮	6
韓國近代 齒科醫學의 沿革	申 仁 澈	13
八·一五后의 齒科界 發展相	金 永 昌	31
韓國齒科界 概觀	崔 正 奉	37

教 養

口腔衛生 — 緊急한 要件	咸 錫 泰	61
우리 나라 齒科界 今昔談	安 鍾 書	65
齒科의 齒科業界에 對하여	殷 仲 基	70

參 考 文 獻

朝鮮齒科醫界의 追憶	植 崎 東 陽	72
朝鮮齒科變遷物語	大 澤 義 誠	76
The Progress of Dentistry in Korea	Boots	93

資 料

1960年度 韓國齒科界		99
--------------------	--	----

大韓齒科醫師協會, (朝鮮齒科醫師會), 仁義大學校 齒科大學,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 仁義特別市國民學校齒科診療室設置案,

韓國齒醫事年代表	李 漢 水 抄	116
編輯後記	編 輯 部	120



韓國의 齒科醫學

前 서울大學校齒科大學

學長 朴 明 鎭

韓國에 齒科醫學이 輸入된지 그다지 오래지 못한 것은 過去 오랜 동안 漢方醫學에만 依存하여 國民保健을 維持하여 왔던 것이 主要原因이니 우리 나라는 地理的으로 中國大陸과 接境되어 있는 同時에 政治的으로나 文化的으로 이 大陸의 直接影響이 至大하였음과 一時에 鎖國的인 政策으로 因하여 歐美諸國의 文化를 받아들일 機會를 容納하지 않은 것이 또한 齒科醫學 輸入까지 直接的인 支障을 招來한 것이다.

1874년에 「에리오트」博士에 依하여 美國의 齒科醫學이 日本에 紹介된지 十九年이나 뒤 떨어져서 1893년에 仁川에 居留하던 日本人 野田가 日本에 돌아가서 齒科醫術을 修得한 後 다시 仁川에 돌아와서 齒科醫院을 開設한 것이 우리 韓國에 美國式 齒科醫學의 輸入을 보게된 始初인것 같다.

그後 1904년에 1 日本人居留民田에서 漢城病院이라는 綜合病院을 開設하여 數個의 專門科를 設置하는 同時에 齒科도 開設하였던 것이며 그後 每年 日本人 居留民이 增加되어 서울에 約八千名과 仁川에 約一萬二千名이나 居住하는 同時에 日本軍 韓國駐屯司令部가 設置된後 齒科囑託醫를 配置하였었다.

1910년에 大韓醫院이 總督府醫院으로 改稱되는 同時 外科에 齒科醫師를 두고 齒科診療를 하다가 1916년에 齒科를 外科에서 다시 分離하여 獨立한 科로 設置하는 同時에 初代科長으로

柳樂가 就任하였다. 그러나 그 以前인 1910年을 前後하여 美國人 齒科醫師 Hantaw (韓大偉)와 日本人 齒科醫師 大關와 飯塚等이 서울에서 齒科醫院을 開設하였으나 1915年에 韓國人으로서 咸錫泰氏가 日本東京齒科醫學專門學校를卒業하고 서울 三角洞에서 齒科醫院을 開設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正規의 學校教育을 받은 齒科醫師의 嚆矢인 同時에 朝鮮總督府 免許第1號를 取得하였던 것이다.

그后 1917年에 韓東燦氏가 뒤를 이어 東京齒科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平壤에서 開業하였으며 現在에 서울에서 開業하고 있는 우리 元老齒科醫師이다.

1921年에 齒科醫師試驗制度가 制定되자 1922年에 裴珍極、李成模、辺世熙、李相喆、劉昌宣等 五氏가 醫師資格시험에 合格하여 齒科醫師가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柳樂과 坂上等이 齒科醫學 教育機關이 時代的 要求로서 切實히 必要하게 됨에 따라 鎮南浦에 있는 實業家 富田의 財政的 援助를 받아 京城齒科醫學校의 設立을 當局에 申請하였으니 이것이 1922年에 認可되어 柳樂가 校長으로 就任하고 二年制 夜間學校로 始作되는 同時에 京城醫學專門學校의 施設을 利用하고 그 教授들의 援助를 받아 每週約 20時間의 教育을 始作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해 1923年에는 學校機構가 整備되는 한편 學制를 改正하여 修學年限 3年의 晝間學校로하는 同時에 定員 150名으로 增員하였으며 學校內容도 改定하였다.

1909年에는 開業한 醫師의 數名이 京城齒科醫師會를 構成하고 1921年에는 朝鮮齒科醫師會를 組織하여 全朝鮮에 居住하는 醫師의 數를 會員으로하는 中央機關이 發足되었다. 한편

1920년에 朝鮮齒科医学会를 組織하여 會長에 柳樂가 되고 每年 1回式 學術講演會를 開催하게 되었다. 이것이 牙科의학 分野에 있어서 學術的集團의 始初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演士는 日本에 있는 有名한 教授들의 特別講演이 主題가 되고 全員中에 서는 臨床例報告에 不遜하였던 것이다. 그후 6년이 經過한 1927년에는 現齒科大学이 小公洞에 4層 公크리-트校舍의 建築이 起工되어 1928年 9월에 落成되매 京城醫學專門學校의 校舍一部를 借用하던 學校와 乙支路2가에 있던 日本生命險會社建物の 一部를 借用하여 運營하던 附屬病院等 全部가 新校舍로 移轉하여 牙科의학 教育機關으로서 名實共に 整備하기 始作하였으며 附屬病院에도 保存部、口腔外科部、補綴部、予診部等 專攻臨床部를 分設設置하여 臨床實習을 指導하는 同時에 基礎醫學도 醫學專門學校 教授들이 担当하여 指導하게 되었다. 그리고 卒業生이 每年 늘어감에 따라 學校를 中心으로한 學術研究發表機關인 京城齒科医学会가 1932年 10월에 發足하여 朝鮮齒科医学会와 對立하여 柳樂校長이 會長이 되는 同時에 學校教授들로 하여금 積極적으로 學術研究를 發表게 하는 한편 日本에 있는 各大學教授들을 招請하여 特別講演을 시키는等 活潑하게 運營됨에 따라 每年 會員이 增加하여가고 있었으나 한편 朝鮮齒科医学会는 會員이 每年 減少되는 同時에 經費關係로 日本에 있는 學者들을 招請하지 못하였음으로 自然히 退勢一路의 運命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齒科醫學界에는 齒科醫學校를 中心으로하여 柳樂의 勢力과 京城帝大齒科를 中心으로한 佐田의 勢力으로 兩分되어 對立이 계속 되었다.

齒科醫師會로는 이미 1909년에 日本人齒科醫師들이 한 親睦會로 組織한 京城齒科醫師會가 있다. 1921년에 朝鮮齒科醫師

우리는 名稱으로 各地方에 있는 齒科醫師會를 綜合하여 中央組織團體를 構成하였으며 1925년에 咸錫泰、安鍾書、金濟璿、金然樞、崔永植、朴俊基、趙東鉉等 韓國人 齒科醫師과 漢城齒科醫師會를 組織하여 咸錫泰氏가 會長에 就任하는 同時에 口腔衛生 啓蒙運動과 臨床座談會等を 開催하여 會員相互間에 學術研究를 發表하는 한편 親睦機關으로도 運營하여 왔으나 日本官憲의 監視、干渉等 壓力이 날로 甚하여 오다가 1940년에는 聯合齒科醫師會라는 名稱下에 強制的合併을 당하고 말았으며 美日戰爭中에는 齒科醫師會員이 收養隊로 強制訓練을 받았다.

1945年 8月 15日 우리 民族이 解放되자 文箕玉、李有慶、鄭保羅、朴明鎮等이 理事會를 構成하여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Matue 氏를 首班으로 한 美軍政官 監會下에 接受하여 理事會決議로써 11月부터 開校하며 朴明鎮氏、附屬病院長에 李有慶氏가 就任하여 運營하며 校名을 京城齒科大學이라 改稱하였다.

當時 美國齒科醫學教育을 받은 齒科醫師로는 「피즈버크」大學을 卒業한 李有慶氏가 保存齒科部를, 「노오스 웨스턴」大學을 卒業한 鄭保羅氏가 補綴部를 各々担当하고 口腔外科部는 李春根氏가 責任맡게 되었으며 教育機關에서 奉職하던 齒科醫師를 網羅하여 教授陣을 編成하여서 學生들 敎育을 始作하며 이것이 韓國人으로서의 齒科醫學敎育을 始作한 史的 出發이 되는 것이다.

그后 1946年 8月에 國立서울大學令이 公布되어 9個 單科大學으로 構成하자 齒科大學도 이 國立서울大學校의 1單科大學으로 編入할 것을 理事會에서 決定하여 過去에 私立大學으로 運營하던 것이 이로부터 國立大學으로 出發하였다.

그리고 서울大學校 醫科大學에는 趙異衍、세브란스醫科大學에는 朴鎔德、女子醫科大學에는 裴珍經諸氏가 附屬病院齒科를 担当하여.

運營하였다.

過去 日本人들이 運營할 時代부터는 齒科醫學教育만은 主로 美國制度를 實施한 것이 많으므로 敎育制度 政編에 있어서도 大槪的修正을 要하지 않았음으로 比較的 順調로써 敎育을 계속할 수가 있었으나 다만 難點은 機具의 老朽와 學生實習機具의 不足、齒科材料의 入手困難等이었으나 美軍의 駐韓當時에는 많은 援助를 받아 學生實習에 큰 助力이 되었으며 美軍齒科 軍醫官들의 個人的 厚意로 講義와 「디몬스트레이션」 등으로 過去 10年間이나 外國과 文獻交換이 杜絶되었으므로 全然 未知의 學界消息과 發展相을 들을 機會를 가졌으며 새 機械과 새로운 齒科材料를 많이 받게 된 것으로 큰 收穫이었다.

그러나 學校의 全職員들도 熱誠으로 보다 나은 敎育을 하기에 專心하고 있었으며 學生들은 向學熱에 가득 차서 各々 自己專門分野의 專攻을 履修하여 將來 國家의 새 일군이 되려고 希望에 가득 차고 있었다.

한편 1925년에 組織되었던 漢城齒科醫師會가 日本官憲의 干渉으로 1940년에 廢止되었다가 解放後인 1946년에 朝鮮齒科醫師會로 다시 發足하여 會長에 安鍾書、副會長에 文箕正兩氏가 被選되고 서울支會로는 漢城齒科醫師會를 復活시키어 會長에 金溶潛、副會長에 金烈叔兩氏가 被選되었고 朝鮮齒科學會를 朝鮮齒科醫師會의 한 機構로 復舊시키어 會長에는 朴明鎮氏가 被選되어 各々 運營하였다.

한편 行政機關인 軍政庁 保健部에는 齒醫務局을 設置하여 初代局長에 元濟莘氏가 就任하고 齒科顧問官으로 Shulth氏가 就任하였고 齒醫務局內에는 齒科醫師 資格審議委員會를 構成하였으니 安鍾書、文箕正、李有慶、鄭保羅、趙昊衍、朴明鎮、元濟莘等 7人이 委

員으로 委强되어 齒科醫師의 免許 試驗 資格 또는 登錄等 諸般事項을 審議決定키로 하였었다.

그리고 保健部에서는 日政時代에 發行된 齒科醫師免許를 重新 發給하였으니 齒科醫師總數가 889名이었으며 또 委員會決議로 日政時代에 通知事가 發給한 入齒師免許所有者들을 每年 1個月씩 講習을 받게 한다는 條件과 無醫村에 配置할것을 條件으로 하여 1個月間 講習을 시킨後에 限地齒科醫師의 免許를 發給하고 3倅年間 계속하여 每年 1個月씩 講習을 實施하였으나 그 後에는 受講을 拒否하였었다. 1946年 6월에 朝鮮齒科醫師會 總會에서 安鍾書會長이 辭任하자 會長에 朴明鎮、副會長에 安炳植氏가 被選되어 다음 政選期까지 就任키로 約束한後 運營하다가 그 翌年 1949年에 定期總會에서 朴明鎮會長이 辭任하니 安鍾書氏가 다시 會長에 被選되고 1948年에 朝鮮齒科醫師會를 大韓齒科醫師會로 改稱하고 漢城齒科醫師會는 서울齒科醫師會라 變更하였으며 會長에 安炳植氏가 被選되었었다.

大體로 우리 齒科醫師會의 事務限界를 보면 過去 日政時代 運營하던 方法을 그대로 踏襲한데 不遇하여서 주로 親睦機關으로 一般會員이 생각하고 있으며 統制經濟時代에 齒科資料를 配給하는 것이 重要な 使命으로 알려져 있음으로 지금도 그것을 希望하는 會員이 많으며 免許에 關한 事務나 試驗에 關한 事務 및 登錄에 關한 事務等은 保健社會部에서 이를 執行하며 敎育制度나 內容等 全般的인 事務는 文敎部에서 相當한 事務로 되어 있음으로 實際로 齒科醫師會로서는 獨自的인 事務보다는 政權機關의 事務를 輔佐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 任務같이 되어 있다 또 다른 理由로는 財政的基礎가 貧弱함으로 全會員들에게나 一般民衆을 爲한 積極的인 事業에 推進力이 自然 弱하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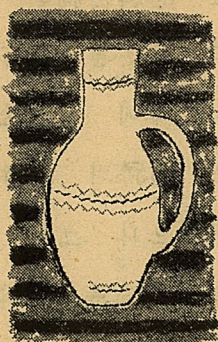
것이다.

그러나 大韓齒科醫師會의 年中行事의 重要한 것은 每年 1回의 學術講演會와 6月 9日을 齒科保健日로 定하여 全會員이 無料診療와 口腔檢査等으로 一般民衆에게 奉仕하는 것과 口腔衛生啓蒙運動을 계속 實施하여온 것이다. 비록 1950年 6月 25日에 北韓으로부터 共產軍이 南侵하였을 때 首都 서울을 拋棄하고 釜山으로 避難하였으나 大邱洞 山腹에 仮校舎를 建造하고 齒科教育을 계속하였으며 大韓齒科醫師會 總會와 大韓齒科醫學會, 學術講演會도 每年 繼續하였으며 6月 9日 齒科保健日行事로 釜山齒科醫師會와 合同하여 活潑히 實施하였다는 것도 特記할 事實이다.

釜山の 金相讓, 金昌圭, 金淳培, 申鍾胤, 秋玉輝, 諸氏, 大邱의 崔海岳, 秋章煒, 忠南의 任育赫, 全北의 任沢竜, 全南의 盧基變, 趙珣, 金性度, 忠北의 李世根, 朴昌熙, 江原道의 南官圭, 京畿道의 林榮培, 李昌鎔等諸氏は 우리나라 齒科醫師會를 育成하여온 功勞者들로서 서울에 있는 大韓齒科醫師會와 陰으로 陽으로 密接한 連絡과 協助로서 今日의 發展을 보게 된 것이다.

齒科大學도 UNKRA와 韓美財團等の 援助로 敎育機具와 附屬病院等 莫大한 施設復旧가 되었으며 敎職員들의 美國留學할 機會도 얻어 敎育內容을 向上改善하기 努力中이다. 韓美財團에서는 獎學會를 1954年에 組織하여 每年 2名씩 齒科大學 敎職員을 美國에 留學시키기로 되어 이미 1名이 留學을 마치고 돌아와서 學校에서 敎育을 担当하고 있고 現在 1名이 留學中에 있으며 또 1名이 1956年에 渡美하게 되어있다. 그 외에도 卒業生中에서 優秀한 사람을 選拔하여 留學시키기로 推進中이다.

* * * * *



韓國近代齒科醫學의沿革

大韓齒科醫師協會 申 仁 澈

- | | |
|---|----------------|
| { | 1. 外國人齒科醫師의 來韓 |
| | 2. 韓國人齒科醫師 |
| | 3. 齒科敎育機關 |
| | 4. 醫師會 및 學會 |

1. 外國人齒科醫師의 來韓

西洋醫術은 只今부터 76年前인 1884(4217)年에 美國宣敎師요 醫師인 「알벤」(Dr. Horace Allen) 이란 人이 來韓하여 濟衆院이란 名稱으로 서울에 韓國最初의 病院을 設立하였다 이것이 西洋醫術이 導入된 最初이었다.

齒科醫術은 이보다 9年이 經過한 1893(4226)年에 即 67年前에 日本人 野田 라는 人이 仁川에서 近代式 齒科醫院을 開設하였다 이것이 우리 韓國에 最初로 齒科醫術이 導來된 年代이다.

東洋에 最初로 齒科醫術이 導來된 것은 1874(4207)年 即 86年前에 「에라울」이라는 美國人 瘻과 의사가 日本에서 瘻과 의원을 開設하였고 우리 韓國에 最初로 開業한 「野田」氏는 이 「에라울」에게서 學習한 弟子이었다.

野田氏가 開院한지 約10年이 지난 1904(4237)年에 는 日本人居留民團의 綜合病院이 開設되게 되어 그名稱을 漢城病院이라고 그病院에 齒科를 設置하고 日本人 瘻과 醫師를 就

任케 하였다. 또 一方 日本軍 韓國駐屯司令部에도 齒科醫師를 配屬하였다. 그러므로 當時는 全國에 日本人 齒科醫師 3名뿐이었다. 然이나 每年 점차로 增加되어 1910(4243)年에 大韓醫院 (現서울大學校醫科大學附屬病院)이 總督府醫院으로 名稱이 改稱되며 外科에 齒科醫師를 配屬하여 齒科診療에 臨하였으나 以後 即時 齒科를 獨立科로 設置하게 되어 初代科長으로 柳榮達君(나기라)氏가 就任하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서울市內 南大門通에 美國人 齒科醫師 Dr. Hantaw (韓大偉)氏가 美國人으로서는 最初로 우리 韓國에 齒科醫院을 開設하였다.

同時에 日本人 齒科醫師 大関(오세키)氏 및 飯塚(이이쓰카)氏等도 市中에서 齒科醫院을 開設하였다. 以後 一般醫師인 「카나다」宣教師「에비슨」博士(Dr. Absion)가 1893(4226)年에 來韓하여 먼저 來韓한 「에프슨」氏의 濟衆院을 共營하다가 後日 「세부라스」라 고쳐 「세부라스」病院이라 名稱하였다. 그當時는 內科 外科等を 設置하였을뿐이었으나 1912(4245)年頃에 齒科를 設置하고 美國人 齒科醫師를 就任케 하였다가 其後 數年後에 「부스」Dr. Boots)라는 美國人 齒科醫師를 就任케 하여 同氏의 大活躍으로 「세부라스」病院齒科(現延世大學校 醫科大學齒科)를 大擴張하여 現在와 같은 大規模가 되었다.

以後 全國적으로 各道의 慈惠醫院(現道立醫院)에 齒科가 新設됨에 따라 每年 科長으로 日本人 齒科醫師가 就任하게 되어 점차 齒科醫師數가 늘어가고 있었다. 然이나 全國 齒科醫師數가 外國人으로서 總數不遇 十五名程度이었다.

2. 韓國人 齒科醫師

그 當時 勿論 韓國人 齒科醫師는 한사람도 없었고 外國人들 밖에 없었는데 그런 機關에서 우리 한국인이 弟子로 들어가서 技藝를 習得하여 入齒營業者라는 「이해박는 집」이라는 看極을 열고 商店看極 모양으로 義齒模型圖를 看極 또는 유리창에 그려 붙이고 入齒專門의 行爲를 하였다.

그 當時의 民衆의 口腔衛生思想은 全然 없었고 所謂 돈품이 나 있는 富者, 또는 모양내는 멋쟁이, 또는 妓生들이 保健的目的이 아니라 裝飾的目的 即 裝身道具로 알고 뽀뽀기 위하여 中切齒 側切齒等 健全한 齒牙에 金으로 全部金冠 또는 開齒金冠을 해싸우고 뽀뽀뽀뽀 거리며 다니는 것이 現在 「다이아」 반지나 끼고 다니는 程度로 有勢하였고 一大流行이 되었었다 이 流行은 相當한時日동안 近 20年間이나 그러한 惡風이 있었다.

그 當時 韓國 最初로 安重修(安炳植氏先親), 金敎執, 申正休氏 등이 서울 長安에서 큼직하게 看極을 열고 「이해박는 집」 齒術院을 開設하였고 점차로 地方都市에도 한국인 또는 일본인의 入齒營業者가 增加하게 되어 開設을 하였었다.

이 齒術院 即 入齒營業者는 文字 그대로 入齒專門이었다 그 러므로 後日까지도 칭과를 一般大衆이 認識하기를 入齒반하는 곳인줄 알게 되었으며 齒科醫師, 入齒營業者 分간을 못하고 齒科醫師도 入치나 拔치나하는 사람이라고 誤認조차 받게 되었던 것이다.

韓國人의 正規齒科醫師로는 1915(4248)年 即 45年前에 咸錫泰氏가 日本東京齒科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歸國하여 서울 三角洞 現濟昌局跡에 二層을 新築하고 最初로 齒科醫院看極을 열고 開設하였었다.

그後 1917(4250)年에 韓東燦氏가 亦是 日本東京齒科醫

學專門學校를卒業하고平壤에서齒科醫院을開設하였다.(現在을忠武路1가東信齒科醫院長이다)

以後數年後에1921(4254)年에李熙昌氏가亦是東京齒科醫專을卒業하고開城에서齒科醫院을開設하였다.(現在서울에서開院中임)

同年即1921(4254)年에 齒科醫師檢定制度가 制定되자 前記日本人齒科醫師의 弟子들이 이에 應試하게 되었다.翌年1922(4255)年에 비로써 처음으로 檢定試驗에 合格한 우리 韓國人으로서는 襄珍極、李成模、辺世희、李相誥、劉昌宣氏等 諸氏였고 그翌年에 當時總督府醫院 齒科技工室에 있던 金然准氏가 合格되었다(現在 鍾路3가에서 開院中)

上述한 바와 같이 1923(4256)年即 37年前에는 不過十名內외의 우리 한국인 齒科醫師이었다. 이것이 우리 한국 齒科의 最初인 初創期라 할 것이다.

1922(4255)年 4月에 京城齒科醫學校가 設立되자 1925(4258)年即 35年前에 同校 第1回卒業生 安鍾書、金溶瑁、韓宗鎬、金기우、盧龍圭、崔永植、朴子榮氏等 23名の 韓國人齒科醫師을 輩出하였고 一便으로 日本大阪齒科醫專을 卒業한 趙康欽氏、東京齒科醫專 및 東京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한 金昌圭氏도 서울에서 齒科醫院을 開設하였다.

1926(4259)年에 文箕玉、李鎬坤、咸泰榮、永原의 李昌鎔、仁川の 林榮均、蔚山の 宋은玉、三陟의 李子植氏等 20名の 第2回卒業生이 輩出되어 서울、地方에 各々開院하였고 그翌年 1927(4260)年에 仁川の 金卍衡、釜山の 李榮泰、서울에 現在開院中인 宋斗燦、朴基夏、崔永秀(興) 諸氏 및 劉福辰、盧善教氏等 16名の 第3回卒業生이 輩出되었고 一便 九州齒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歸

國한 安炳植氏는 自己父親과 같이 서울에서 開院하였고 同年에 齒科醫學校「矢尾」(야오)教授 밑에서 學習한 金尙文氏가 檢定에 合格되어 晉州에서 齒科醫院을 開設하게 되었다.

1928(4261)년에는 京城齒科醫學校 第4回卒業生으로 解放後 齒科大學을 맡아 多年間 苦勞하시던 朴明鎮氏를 위시하여 李有慶、李應鎰、崔一漢、申仁澈等 17名을 輩出하였고 1929(4262)년에는 金錦鎬外 4名이 輩出되었고 一便 崔錦鳳、李順祚氏等이 日本東洋女子齒科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歸國하였고 1930(4263)년에는 光州醫科大學 齒科長인 殷仲基、李東煥、金殷鍾、朴演杓、辺錦沢氏等과 第4學年에 編入하여 다시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第1回로 卒業한 朴明鎮、李有慶、申仁澈、李應鎰等 7名을 合하여 27名을 輩出하였고 一便 日本大學 齒科를 卒業한 李翰運氏가 제되었다.

1931(4264)년에는 吳의東、洪思根、李鍾斗、蔡禧鎔、李昌榮氏等 11名이 卒業하였고 檢定에는 吳廷龍氏外 數名이 合格되었고 崔正喜、洪善媛氏는 東洋女子齒科醫專을 卒業하고 歸國하였다.

1932(4265)년에는 美國齒科大學의 教授인 鄭保羅氏를 위시하여 韓國初代 齒醫務局長이던 元溶진、李秉真、高漢吾、金世卿、安義成、黃高燮氏等 15名이 輩出되는 同時에 檢定으로는 鄭道成氏外 數名이 輩出되었다.

1933(4266)년에는 趙立衍、朴鎔德、李昌男、金淳培、金圭喜、任주학、金鍾煥、鄭乙庚氏等 15名이 輩出되었고 檢定으로 鄭鎔九氏外 數名이 合格되었다.

1934(4267)년에는 朴道信、朴扶榮、張炳乾、安正浩、尹壽鎰、朴기용、金時集、金鎮吾、林興吾、林榮吾氏等 19名이 卒業하였고

檢定으로는 韓相謙、曹基坑氏外數名이 輩出되고 日本東洋女子齒科醫
專出身인 金小勇氏等이 輩出되었다.

그後 每年 京城齒科醫專出身、外國齒科醫專出身、檢定出身이 1年
間에 約 20名乃至 30名式 輩出되었다.

京城齒專이 設置되기前 1923年까지는 全員이 10名未達이 있는
데 學校가 設置된後 卒業生을 10回나 낸 1934年 即 26年前에
는 全國內의 齒科醫師數가 (韓國人) 學校出身、檢定出身 合하여 近
200名이나 있었다.

3. 齒科教育機關

지금부터 40年前인 1920(4253)年頃에는 全國內의 齒科醫師數가
日本人約30余名、美國人 4名、韓國人으로는 前述한바와 如히 咸錫
泰、韓東燦兩氏뿐으로 全部 合하여로 40名未達이었다.

當時 朝鮮總督府醫院齒科々長兼 京城醫學專門學校教授 柳榮達見氏
가 齒科醫師의 缺乏을 痛嘆하여 一方檢定試驗制度를 實施로써 推
進하고 그制度뿐만으로서는 到底에 全國에서 要求하는 數量의 數
를 確保할수 없을것이라 質的으로 向上된 齒科醫師가 배출되지
않음으로 齒科醫師養成機關을 設치코자 計劃을 하였으나 資金問題
로 煩悶하고 있던中 同志考 阪上潔(사가카미)青年이 柳榮氏의
計劃에 共鳴하여 많은協助를하게 되었다. 柳榮氏는 阪上青年의 父
親이 勤務하던 富田商會主人인 實業家 富田儀作氏를 訪問하여 齒
科教育機關의 必要性和 時代가 要求하는 趣旨를說明하고 財政問題
의 援助를 請한바 富田氏는 即席에서 共鳴하고 此에應하여 快諾
贊同을 받고 校舍問題를 當時 總督府醫院々長兼 京城醫學專門學校
校長 志賀潔(사가)博士에게 協議한結果 志賀博士의 同情과 好意
로 總督府醫院 建物一部(B講堂)과 後面에 있는 旧家屋(事務室)

與 京城醫學專門學校校舍一部를 借用하여 校舍로 쓰도록 하였으나 이로써 1921(4254)年 11月 22日에 柳榮達見、富田儀作兩人의 名義로 京城齒科醫學講習所 設置認可申請書를 提出하게 되었다.

1922(4255)年 4月 1日 新敎育令에 依한 京城齒科醫學學校로 認可되었다. 最初로 夜間修業制度로 百數十名의 應試者中 60名을 入學시켜 4月 15日에 總督府醫院診療所 階上에於 盛大히 開校式을 舉行하게 되었다 이것이 現今을大學校齒科大學의 開校記念日이 된것이다.

柳榮氏는 總督府醫院齒科々長兼 京城齒科醫學學校々長에 就任하고 敎授陣은 京城醫學專門學校 敎授들을 兼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前述한바와 같이 校舍與 敎授陣의 關係로 不得已 夜間修業制로하고 2年의 修業年限을 하였던 것이다.

然이나 夜間敎育으로는 不充分함으로 翌年 1923(4256)年에 修業年限 3年으로 延長하고 專任敎授를 招請하여 晝間敎育制度로 變更하게 되었다.

1924(4257)年 4月 第3學年生의 臨床實習場을 總督府醫院施療外來診療所로 定하고 實習를하였으나 充分한實習를 行할수 없었으므로 1924(4257)年 10月에 日本生命빌딩(現保健社會部庁舍)一部를 借入하여 附屬醫院을 設置하고 臨床實習를하게 되었다.

1925(4258)年에 第1回、1926年에 第2回卒業生을 輩하였는데 同年頃부터 專門學校昇格問題가 招頭되었으며 京城帝國大學設置로 因하여 城大로 總督府醫院이 移管되게 되었음으로 借用中의 建物을 返還하게 됨으로 新築問題가 發生케 되어 柳榮校長은 計畫을 不關하고 僑胞努力의結果 1927(4260)年

3월에 官有地無償貸下로 硯齒大學校舍敷地の 使用許可가 나와 同年 六月六日, 地鎮祭를 치내고 建築에 着手하여 同年 11月 17日에 上棟式을 舉行하고 翌 1928(4261)年 9月 2日에 竣工되어 27日에 落成式을 舉行하게 되었다.

硯小公洞의 4層校舍가 其當時 總工事費 20余万圓으로 竣工된 것이다. 이 建築費도 當時 殖産銀行에서 提供하여 建築하게 된 것이다. 新校舍가 落成됨에 따라 總督府醫院建物與 醫學專門學校建物을 返還하고 乙支路入口에 있는 日本生命빌딩도 返還하고 新校舍로 移轉하여 1層은 校長室、特診室、教務室、庶務室、會議室、技工実習室與 材料商室等으로, 2層은 附屬醫院、即保存室、補綴室、外科室、豫診室、各医局與 藥局等으로, 3層은 講堂、教室、各研究室、圖書室、教授室等으로, 4層은 教室로 使用하였다.

1928(4261)年 10月에 財団法人으로 되고 1929(4262)年 1月 25日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로 昇格이 認可되었고 修業年限을 4年으로 延長하여 名實共に 長足的發展을하게 되어 解放年度인 1945年까지 醫學校 8回、專門學校 17回의 千余名의 卒業生을 배출하였다. 同卒業生中 約3分之2는 日本人이었고 3分之1인 約400余名이 우리 계례였다.

8.15 解放이 되자 同校는 文箕王、朴明鎮、李有慶、鄭保羅氏等으로 理事會를 構成하여 美軍政官 *Matue* 少領立會下에 柳榮校長으로부터 施設、建物其他、一切事務를 接受받아 理事長에 文箕王校長에 朴明鎮氏等이 就任하였고 校名을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로 稱하였다.

그리고 教授陣容은 校頭에 金鎭亨、保存部長에 李有慶、補綴部長에 鄭保羅、口腔外科部長에 李春根、英語、倫理에 許鉉、物理化學調製에 金鵬奎、元堪、朴小信、技工 金正圭씨들이 各各 担任하고 助手에

梁益範、金동順、沈泰錫、崔德美、嚴與斐、金万寿、金貴善、張完植、金朝奬、崔浩誠諸氏가 附屬病院에 있어 同年 11 月 1 日부터 教育을 시작하였다.

1946(4279)年 8 月에 國立서울大學校令이 公布됨에 따라 理事會의 決意에 依하여 서울大學校의 一獨 單科大學으로 編入함에 이로부터 國立서울大學校齒科大學으로 新出發하게 되었고, 따라서 理事會는 自然解散되었다.

이밖에 各医科大学附屬病院의 齒科는 医科大学附屬病院 齒科々長에 趙호형、齒科大學附屬病院長에 李有慶、세부란스医科大学附屬病院齒科々長에 朴容德、女子医科大学齒科々長에 張珍振氏等이 各各担当하였다.

4. 醫師會 및 學會

韓國의 齒科醫師會는 最初 即 初創期에는 日本人 齒科醫師 10 餘名이 1917(4250)年頃부터 親睦機關으로 會合을 가지고 1918(4251)年에 全國적으로 散在하여 있는 約 50 餘名の 日本人齒科醫師들이 朝鮮齒科醫師會란 名稱으로 齒科醫師會를 組織하였고 서울市內 日本人齒科醫師 約 20 餘이 京城齒科醫師會란 名稱으로 日本人齒科醫師會를 組織하였다. 勿論 그當時 우리 韓國人齒科醫師로는 全國의 2 名뿐、即 서울에 咸錫泰氏、平壤에 韓東燦氏밖에 없었다.

當時 朝鮮齒科醫師會가 主動되어 1920(4253)年에 齒科醫學會를 結成하여 第1 회로 朝鮮齒科醫學會를 開催하게 되었다. 學會長에는 柳樂達見氏가 被選되었고 每年 1 回式 定期學會를 開催하기로 되었는데 그當時의 學會는 會員의 研究發表보다는 오 히려 日本에 있는 有名한 日本人教授들을 招請하여 特別講演을

들게 하여 會員의 質的向上을 主觀적으로 하였었다. 然이나 每年會員은 增加되어 가며 靑年層齒科醫師가 日本으로부터 많이 進出하게 되자 京城醫學專門學校齒科學教授室을 中心으로 하여 점차로 學術研究케 하였다. 勿論 當時는 韓國에 있는 齒科醫師로는 博士學位을 받은 分은 1名도 없었고 日本全國에 3, 4名程度이었었다.

그後 每年 學會를 거듭하게 되자 점차로 進歩되며 發展하여 나아갔다.

1925年부터 京城齒科醫學校 卒業生이 輩出하기 시작하자 柳樂校長은 學校를 中心하여 學術研究機關을 設置하고 卒業生 또는 教授들의 研究를 尊重하여 促進하여 오다가 1932年(4265)年十月에 京城齒科醫學校를 中心으로 하는 京城齒科醫學會를 開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韓國內에 從內있던 京城醫學專門學校 齒科學教授室을 中心으로 되는 朝鮮齒科醫學會々長은 金田信保氏에게 양보하고 京城齒科醫學會々長을 柳樂達見校長이 就任하여 學校教授陣을 비롯하여 校內生들을 臂勵하여 學術研究發表를 積極推進하였으며, 一方 日本各大學의 有名한 教授들을 招請하여 特別講演을 實施하는等 研究發表의 機會를 指導를 받게하여 活潑히 發展되어 나아갔다.

그러므로 會員은 每年增加되어 大 번榮을 이루었으나 金田會長이 運營하는 朝鮮齒科醫學會는 점점 衰邁하게 되었다. 京城齒科醫學會 側으로부터 解放前까지에 矢尾太郎教授를 위시하여 西山幸男、柳樂達見、野口、外數名の 諸教授가 博士學位을 받게 되었고 卒業生으로 摘、增田二郎、科明鎮氏外 7, 8名이 博士學位을 받게 되었다.

△ 韓國人 齒科醫師會

韓國人 齒科醫師會는 1925(4258)年 即 35年前에 京城齒科

医学校 第1回卒業生이 배출되자 咸錫泰、安鍾書、金容璫、崔永植、朴正榮、趙東欽、金然權氏等 在京齒科醫師들로 漢城齒科醫師會를 組織하고 咸錫泰氏가 會長、安鍾書氏가 總務에 就任하여 當時는 純全司 親睦機關으로 每週마다 서로 相逢하여 臨床的討論 및 失敗談 또는 成功談等を 行하여 相互間에 知識을 交換하는 程度 이었다.

然이나 毎年 卒業生이 배출되자 翌年에는 文箕玉、朴準大、李壽万等이 加入하고 점차로 서울에 開業 する 醫師가 增加됨에 따라 1927年에 申猷植、申應鉉、1928(4261)年에 朴明鎮、張志遠、金鍾贊、南壽吉、申仁澈、李有慶、金容奉、李天興氏等이 加入하여 約 20余名이 되었었다. 그리하여 各部署를 決定하고 會의 體系를 確立시키는 同時에 口腔衛生啓蒙 學術研究、會員福利를 目的으로 發展하게 되어 毎年 會員은 增加되었으며 會運營도 잘되었었다.

然이나 이會는 우리 韓國人 齒科醫師들만으로 組織된 會함이 없으므로 當時 日人警察들의 色眼鏡을 끼고 이를 注視하게 되자 점차로 官憲의 壓力에 눌리게 되어 卒하여 1940(4273)年에 強壓적으로 日本人齒科醫師會인 京城齒科醫師會와 合併하게 되었으며 全國적으로 聯合齒科醫師會라는 名稱으로 政稱되게 되었다 이로써 漢城齒科醫師會는 自然解體하게 된바이다.

그 當時 日本이 戰時中임으로 會의 事業으로 地金配給、藥品材料等の 資材配給等이 主事業이 되고 一方 齒科醫學會를 毎年 開催하였고 口腔保健啓蒙事業으로는 1926(4259)年頃부터 5月4日(護齒日)「고시데이」로 定하고 1週間 口腔保健思想啓蒙講演 및 口腔檢査等を 行하였었다. 이 護齒日 5月4日이 1933(4266)年에 (齒齒日)「부시바데이」로 變更되어 5月4日부터

1週日間으로 하기로 되었다. 此行事는 日本全國的인 行事이었음
으로 日本人 齒科醫師가 駐在하여 있는 地方에서 內外國을 其
論하고 各處에서 施行하게 되었던 바이다.

이와 같이 여러行事 事業等を 日本人 韓國人 共同으로 運營
하여 나아왔다.

解放後 1945 (4278) 年 11月에 在京韓國人齒科醫師들이 過去
去 解体하였던 漢城齒科醫師會를 다시 復活하여 會長에 金용진
副會長 金然權、安炳植氏가 被任되었으며 任員陣은 李聖民、金鍾
玉、李通柱、金然浩、李秉奐、金漢度、洪恩根、徐丙瑞、林榮吉、安炳
植、崔義鍾、柳邦燮諸氏가 就任하였으며 會事務室은 金溶璿齒科醫
院에 두고 解放即後 混亂한 社會事態에 있었던 時節에 日本人
齒科醫院 및 同醫院施設을 細密히 數箇月을 걸러 全서울市內를
徹底히 調査하고 齒科醫師以外로 橫流됨을 防止하고 있었다.

그리고 翌年 1946 (4279) 年 4月에 全國적으로 統率하는
齒科醫師會로 朝鮮齒科醫師會가 創立되자 會事務室을 安炳植齒科
에 두었다. 會長에 朴明鎭氏、副會長에 安炳植氏、總務部長 申仁
澈等이 就任하여 當時 明洞에 開業하였던 申仁澈齒科醫院에 會
事務室을 두고 全國的인 統率會를 運營하여 나아갔다.

그 當時 齒科界는 齒醫務局의 元濟華과 學校의 朴明鎭、李有度
鄭保雅氏等 4氏가 獨斷적으로 모든 齒科界의 事項其他를 左右하
여 나아왔음으로 漢城齒科醫師會側과 간격이 나기 始作하였었다
當時 齒醫務科의 齒科醫師資格審議委員이었던 文基武氏도 漢城齒
科醫師會任員들과 同一한 步調로 行動을 取하였었다.

一方 同年 7月에 國立大學案이 胎動되어 國立서울大學校令이
公布되자 學校側 理事陣은 國立大學으로 編入되기를 願하여 推
進中에 있었으나 漢城齒科醫師會側에서는 私立大學으로 運營하여

나아가기를 바라 이 國大案에 反對를 表示하고 反旗를 들게 되었으며 4279年 8月 11日 同窓회를 召集하고 不過 30餘名이 集合하여 國大案反對를 決議하고 同窓會名義로 聲明書를 印刷하여 各方面에 配布하였다. 이 聲明書는 純金환 前記 4氏의 個人聲討文이며 個人攻訐文이었다. 이로 인하여 齒科界는 大혼란을 惹起하게 되었다.

一方 齒匠務局에서는 日人署계를 調査하여 接受者로부터 有價으로 署代代價를 納付하도록 推進中에 있었으므로 4279年 9月 4日 50餘名の 日人署계接受者들이 齒科大学에서 集合하여 齒友會를 創設하고 筆者 主動되어 軍政當局에 不當性を 指摘하고 政府樹立時까지 代價保留하도록 建議를 하였고 一方 齒科界混亂을 收拾하기 위하여 臨時總會開催要請하였으나 從來는 應答으로 漢城齒科醫師會 任員側의 處事가 不當하다 指摘하고 當時 出席하였던 鄭保羅氏外 50餘名이 集團脫退를 하고 國大 編入을 支持하게 되었다.

그後 即時로 脫退한 會員 50餘名 및 此에 贊成하는 人士 朴明鎮、安鍾書、李有慶、元濟華、李庭煥、趙明鎬、劉時亨、朴扶榮、金殷鍾、李春根、金東順、金正奎、尹光秀、朴昇信、鄭南熙、尹壽鉉氏等外 20餘名을 叫合하여 約 70餘名이 9月 22日 齒科大学講堂에서 武裝警察官立會下에 歴史的인 京城齒科醫師會를 創設하게 되었다. 會長에 安鍾書、副會長에 朴榮復、趙明鎬、總務에 申仁澈이 就任하고 理事陣으로는 趙鎬起、鄭保羅、朴鍾文、劉時亨、裴珍極、李鳳珪、劉龍甲、趙興秀、李雲卿、文洪祚、房河晏、李有慶、金正奎氏等이 就任하였고 明洞 劉時學齒科醫院에 事務室을 設置하고 國大案찬成 및 其他會務를 視移하게 되었다.

서울市內에 漢城齒科醫師會가 二個團體로 分裂되어 3.4個月

間 鬭爭하여 나갔다. 그 동안 齒科大學은 國立서울大學校齒科大學으로 編入되어 現在에 至하였다

그後 會가 二個로 分離되나 自然 同一部門에 있어 支障이 莫大함으로 同十一月에 在서울市齒醫會統一促成委員會를 構成하여 京齒側委員으로 安鍾書、申仁澈、朴榮復、劉時亨、趙鎬起 趙明鎬氏等 6名과 漢齒側으로는 安炳植、李煥柱、徐丙瑞、朴榮尊、崔義鍾、柳邦安等諸氏가 安鍾書齒科醫院에서 會合하여 兩會任員 連席會議를 開催키로 하고 12月 4日에 兩會任員連席會議에서 過去之事는 白紙로 돌러보내기를 原則으로 세우고 兩會統合하기를 決議하였다. 同年 12月 22日 齒科大學講堂에서 統合總會를 開催하게 되었는데 開會에 앞서 兩會長이 各々 會를 發展적으로 解散한다는 宣言을한 後 統合總會를 開催한結果 會名稱은 서울市齒科醫師會라 改稱하고 任員陣數도 兩會同數로 選定키로 하고 會長에 金溶瑋氏 副會長에 申仁澈氏 安炳植氏가 被選되었다.

그러나 約 2週日後에 過去漢齒側任員끼리 合議하여 齒醫務局長 非行의 告訴 및 學校의 科學長、李有慶、鄭保羅氏等を 警察에 告發하여 新성한教育者의 戒信을 墮落케 하고 統合條件을 履行키 않음으로 申仁澈副會長 率先하여 同會를 脫退한즉 前京齒會員全員이 全部脫退하여 翌年 4296 (1947)年 1月 26日에 齒科大學에서 京城齒科醫師會 復活總會를 開催하고 會長에 韓東燦、副會長에 趙明鎬、朴榮復氏 등이 各々被選되고 評議員에 朴明鎬、申仁澈、鄭保羅、李有慶、安鍾書、朴德、鄭用國、劉復辰氏等 8氏가 當選되어 再分裂하게 되었다.

서울市內에 兩會存立은 到底히 모든面으로 보아 不利함으로 同年 4月에 다시 兩會가 統合하기를 決議하고 統合會를 4月 15日에 齒科大學에서 開催하였는데 會長에 尹在旭氏、副會長에 安

炳植氏等이 被選되였다 그後 田滿會는 잘 運營되 하여 나
아갔다.

1948(4291)年 5月總會에서 會長에 安炳植氏가 被選되어
運營하여 오던中 6.25 事變이 突發되자 會員이 모두 避難하게
되어 會運營도 一時 中斷狀態 이었다.

1952(4285)年 5월에 서울에 先着되는 會員끼리 會를復
活하여 會長에 安炳植氏가 就任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事務員을
採用하고 渡江證其他複雜多端한 事務를 處理하여 나왔다. 事務所는
安炳植齒科醫院에 부속되었다. 其後 1954(4287)年에 이르러
副會長에 朴扶榮氏、李鎬坤氏、總務部長에 韓五峰氏、財務部長에
李翰運氏、學術部長에 朴昇信氏、調査部長에 金用畔氏、資料部長에
李聖民氏、厚生部長에 辺光周氏、其他各部任員으로는 朴流金、李東
慶、吳在仁、吳應瑞、李世德、金子榮氏等이 就任하였다.

會長 安炳植氏는 特別 事變後 모든 事務를 全部 親히 하고
1956(4289)年 4월까지 多年間 會를 위하여 多大한 勞力
을하였다. 1954(4289)年에 會館을 德元빌딩 三층에 設
置하였다. 過去는 언제나 任員의 醫院에 會事務所를 設置하여
큰 不便을 받았던바 1954(4289)年에는 會長에 李有慶、副
會長에 李鎬坤氏、李聖民氏가 被選되었고、1958(4291)年에는
會長에 金鍾玉氏、副會長에 吳應瑞氏가 各々被選되어 서울特別市
齒科醫師會는 現在까지 運營되어 가는 것이다.

一、全國的인 朝鮮齒科醫師會는 1946(4279)年에 結成되
었던 것이 翌年 1947(4280)年 4月20日 第2回 定期總
會에서 任員改選結果 會長 金용진、副會長 申仁澈、朴沢用、學會
長 朴明鎮、特別研究會長 趙昊衍、常務委員 趙明鎬、徐丙瑞、金然
權、劉時學、金文祚、趙鎬起、崔義鍾、李康燦、李容經、金鍾玉、韓東

諸、(大邱)徐永圭、(光州)殷仲基、(釜山)金守培氏等 諸氏가 當選되
었다. 同總會席上에서 医齒一元問題가 上程되어 医齒一元促進회가
構成되어 事務費 60萬圓據出키로 되고 医齒一元促進회가 結成되
어 會長 申仁澈、副會長 趙昊衍、委員은 各道會長 및 中央에 安
炳植、李迥桂、金然浩、朴扶榮、金文祥、李聖民、崔泰鍾、孫洪兌、金
漢慶、文기호、趙鐘起、劉時亨、徐丙瑞、洪恩根、林榮奎、尹福辰、李
聖經諸氏가 當選되었다.

其後 一般醫師側의 贊成을 얻고 各方面의 贊成을 얻었으나
推進中 申仁澈氏가 入院케 되고 趙昊衍副會長以下 努力하였으나
成功되지 못한채 6.25事變이 突起하여 中斷되다

大韓齒科醫師會 第4回總會에서 1949(4282)年에 會長 安
鍾書、副會長 文기호、林榮均氏가 就任하였고 會名稱을 大韓齒科
醫師會로 改稱하게 되었다.

1950(4283)年 六.二五事變이 突發하자 釜山으로 피탈
하게 되어 總會 및 學會도 釜山에서 開催하게 되었다. 總務 金
鍾玉齒科醫院에 設置하고 會務를 運營하였다. 1951(4284)年
九月에 大韓民國々民醫療法이 制定됨에 따라 本會도 法에依한
法定團體로 充實하게 되었다 그이

그後 收復하여 1954(4287)年에 會長에 金용진、副會長에
李有慶、林洪龍氏가 當選되고 會館을 金용진宅과 3층 (德元빌딩)
으로 定하였다. 1956(4289)年에 社團法人으로 되었다.

多年 宿望이던 唇材消費組合이 金용진、李有慶、李迥桂、李聖民、
金鍾玉、李東煥諸氏의 努力과 慶北支部、慶南支部의 積極的인協助
를 얻어 設置하게 되었는데 消費消合長에 金용진氏가 兼任하게
되었다. 1958(4291)年에 會長에 安鍾書氏、副會長에 李有慶
金용진、金창규、崔해운氏等이 被選되었고 會名稱을 大韓齒科醫師

協會로 改稱하고 只今까지 運營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其間 同會內에 屬되어 有은 會長은 朴明鎮氏가 계속하여 連任되었다가 同氏 逝去로 1958(4291)年에 會長에 李春根氏가 被選되어 現在에 至하다. 1959(4292)年에 會內에 各分科學會를 結成하기로 되어 矯正分科學會、基礎齒科學會、保存學會、補綴학회、口腔外科學會、小兒齒科學會 및 放射線科學會 등의 7個分科學會가 結成되었다. 初代 分科學會長으로는 保存學會에 李有경、補綴학회에 李永玉、口腔外科學會에 李春根、小兒齒科學會에 車文豪、放射線科學會에 安형규、基礎學會에 金康順、矯正學會에 金기선氏等 諸氏가 被選되어 今後 各分科的으로 많은 發展이 期待되는 바이다. 1956(4289)年에 朴明鎮氏가 南山에 所在한 前柳樂校長舊宅을 本會로 寄贈하여 會館으로 使用해 달라함으로 朴學長은 後輩양성을 위해서 까지 個人을 희생하여가며 私有巨財를 喪失하여가며 教育에 專心하느라고 極貧에 處하였음으로 不拘하고 會를 위하여 寄贈함으로 屢次 사양하였으나 自己는 情家사리를하며시 끝끝내 固執함으로 本會로서도 그의 好意를 無視할수 없어 寄贈받아 修理에 着手하여 完全修理하였으나 地域的 關係로 位置가 會館으로 不適當하겠으므로 1959(4292)年에 이를 賣渡하고 安鍾書會長의 노력으로 樂園洞地帶에 買入하였다

不遠間 修理됨에 따라 移轉할 方針이다 口腔保健啓蒙事業으로 는 解放後 每年 六月九日(六世臼齒)을 口腔保健日로 定하고 六月九日부리 1週日間 口腔보건주간으로 制定하고 全國的인 行事를 實施하여 第14回나 되었다 研究發表 및 學術研마로하는 學會는 6.25 動亂中만 中止하고 五十餘題의 題目으로 年次的으로 屢次 開催하여 나아가는데 今年이 第11回째 開催하였는

데 今年에는 美国齒科学術団 十七、八名을 招待하였으며 鄭保羅博士의 來韓特別講演等으로 大感銘을 이루었다

其他 會員間의 消息 其他 傳達事項 또는 學會発表等を 위하여 金溶璣會長의 努力으로 1954(4288)年 月에 大韓齒科醫師會報을 창간호를 發刊하였고 每月 1冊式 定期的으로 發刊코자하였으나 經費관계로 1957(4290)年 三月에 不得已 休刊하였다가 1958(4291)年 九月에 安鍾書會長以下 理事 障의 援助로, 李漢水氏의 努力으로 「大韓齒報」 第1卷을 發刊하여 會員間의 好評을 받고 있으며 現在 11卷을 내었다

學會誌는 每年 發刊키로 하였으나 創刊號를 發行한後 아직 계속을 못하고 있다

國際적으로는 國際齒科協會에 4292년에 加入하였으며 4290年 伊太利 로마에서 國際齒科協會總會 開催時 禹씨버格으로 우리代表 鄭보라박사가 參席하였으며 W. H. O 世界保健協會齒科總會에 第1次回인 4288年度에는 車文豪氏가 페르본에 參席하였으며 第2次回인 4292년에 沈泰錫氏와 保健社會部醫政 局醫移課 尹課長兩氏가 濠洲에 參席하였었다

4291년에 마나라에서 開催된 汎太平洋 齒科醫學總會에 (第2回) 李有경, 金昌圭, 李恩姬, 金鍾五四氏가 參席하였고 第4回開催地는 우리韓國에 開催하고자 費用을 會員間에 積立中에 있다

今年九月에 開催하는 美国齒科百年祭에는 金貴壽氏가 參席하기로 되었다. -(「醫事時報」 第222~4号 (1959.9.28~10.12)에서 轉載)-

筆者 申 仁 澈 1906年 忠北 鎮川 胎生

1930年 京城齒科醫專卒業

1935年 承德朝鮮人民會會長

1945年 北京韓國人僑民會 衛生部長

1947年 朝鮮齒科醫師會 副會長 歷任

現在 西山門洞에서 開業



八·一五後의

齒科界 發展相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學長 金 永 昌

旧韓國 말업에 수입한 西政文明의 선봉은 宣教師가 傳導하는 기독교의 복음과 더불어 들어온 洋醫學이었으며 다른 西政的 精神科學文明에 응응하며 개척된 것이었으나 齒醫學의 초창기는 이에 훨씬 뒤떨어져서 1922年頃 當時總督府病院의 齒科々長으로 있던 柳樂民가 現齒科大學의 전신인 京城醫學專門學校를 창설함으로써 비로써 시작 되었다

이에 前後하여 倭人으로 齒科醫院을 開業 吳人吳 日人들의 齒科醫師가 있었으나 그들의 活動은 다만 극히 국한된 개인적인 것이어서 云謂할바가 못되는 것이다.

그後 우리 齒科界의 元老이신 咸源錫先生께서 東京齒專을卒業하고 齒科醫師가 개업하여 한국인 齒科醫師의 嚆矢가 되었다

京城齒專은 原來가 日本人의 재반으로 日本人 教授에 依하여 창립되었던만큼 어디까지나 당시 한국에 居留하는 日人子弟를 위한 것교육을 주목적으로하여 한국인 학생은 全학생의 一割과 一割之一에 지나지 않았었다. 지배적 위치에 君臨하는 日人학생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온갖 受侮와 屈辱을 감수하면서 공부해야만 하였던 한국인 학생들이 걸어온 길은 文字 그대로 형극

의 길이었던 것이다.

지금 주권을 회복한 독립국가의 학생으로서 학원의 자유가 보장된 분위기 속에서 편학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선배가 겪어온 고통을 상상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부리하다고 생각되리만큼 위대한 국가와 불가피하게 봉착하는 애로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學究生活 가운데 학문의 탐구에 專力하는 동시에 적들에 대한 유형무형의 항쟁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역경과 싸우면서 수업한 연후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만 습득한 臨床기술을 응용하는 齒科開業醫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업을 택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學究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에 한하였던 것이다. 학문을 향하여 돌아나는 여진 좌조와 무관히도 짓밟아 버리는 데 주저치 않았던 일제의 강압과 전쟁 말기의 발악은 학구에 불타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 의기를 沮喪케 하고 무기력한 저항을 로기하게 하는데 충분하였던 것이다.

齒醫學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기관으로서 京城齒科醫學會 및 朝鮮齒科醫學會가 兩立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일본으로 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日人들이 주도하였던 만큼 한국인으로서는 오히려 제3자적 전지에서 양파의 대결을 관망하는 형편에서 어부지리에 類하는 약간의 수확을 꾀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太平洋戰爭의 말기에는 정세의 극심한 변동으로 그나마 여의치 못하여 이러한 학술활동은 정돈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전 우리 한인이 발전한 것으로서는 朴明鎭, 裴珍極 兩博士等의 학위論文을 제외하는 팔목할만한 업적을 찾

아... 보기 힘든 것이다.

한편 한국인 치과 의사들이 조직한 漢城齒科醫師會가 권복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구강위생계몽운동, 임상좌담회 개최, 회원 상호간의 학술연구 발표등 독자적인 활동을 지속했으나 일본관헌들의 감시 압력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의사회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침내 1940년경 聯合齒科醫師會라는 명칭하에 강제적으로 日人齒科醫師會에 併合되고 말았으며 二次大戦이 절정에 이르자 치과 의사 회원 또한 敍護隊로 강제 훈련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물론이요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완전한 자주독립을 기약한 8.15의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제야말로 누구를 꺼리거나 하등의 박해나 속박이 없이 다만 청정코 우리 자신을 위한 발전만이 기대 되는 것이다.

1950년에 유발한 적구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한국 역사상 未曾有의 民族亂을 당하여 戡亂로 인한 파괴와 혼란이 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을 阻害하였을 지라도 한국 齒科教育界 및 齒醫學界 全般의 樣相은 8.15 이래 현저한 발전의 발자취를 보여 왔다

齒科教育界에 있어서는 첫째로 教育制度의 변경 즉 齒科醫學 教育年限 延長의 一大變革이 行해 되었다.

現 齒科大學이 8.15 해방과 동시에 일원으로부터 인수되어 大學으로 조직개편 되었고 그 다음해부터인 1946년에는 서울大學校設置令에 의거하여 다시 이어 편입됨에 그 편목을 일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大學으로서의 기구와 시설이 미비한 당시 혼란한 過渡期에 있었던 만큼 學制의 변경은 시기상조라는 견지에서서 齒醫學科 설치 또는 教育年限 延長등의 안은 하등

고려 되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학제는 의연히 일제시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었으나 그 教科內容의 대신을 기하기는 경주되어 있으며 특히 太平洋戦争 末期에 다년간 두절되었던 歐美諸國과의 교류가 용이하게 되어 美國齒科醫學教育의 發展樣相과 그 변모를 파악하게 됨에 따라 점차로 美國式 齒科醫學教育을 지향하는 기운이 농후하여지고 이는 재빠르게 教科編成에서 感知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教科予定表에는 一般 教養科目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특히 6·25 동란 이후 피란시대로부터는 一般基礎醫學課程의 시간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동시에 入學初의 一年은 전적으로 일반교양과정에 충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한 기구 시설을 갖춘 선진국가에서도 6年乃至 8年을 소요하는 齒科醫學教育을 3分之2에 不過하는 4年間에 압축하여 보려는 試圖 자체가 무리한 것이므로 4年으로 제한된 年間에 6年の 과업을 수행시키고자 할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自明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행 4年制 齒科醫學教育에 대한 再檢討 및 시장이 數年來 가장 긴질하고 시급한 문제로서 대두하게 되고 드디어 금년초에 공포된 大統領令 가운데 齒科醫學教育年限 改正令이 插入됨으로써 대방의 6年制교육이 실시되어 지난 四月에는 齒醫予科生의 신입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教育制度의 전고한 저반위에 確立된 齒科教育의 역사는 마침내 新紀元을 맞이하고 보다 高次的 발전의 第二段階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齒科教育에 관계하는 教育者들의 海外留學이 빈번해져가고 있는 반가운 현상이 教育의 發展을 嚮左하고 있음을 들켰다. 6·25 동란 이후 유·엔이 한국에 증여하는 각종 원조계획을 통하여 치과대학이 입은 물질적 원조도 多大하거나와 技

術援助計劃에 의거한 훈련의 해적은 이에 못지 않게 意義있는 것이다. 數多한 教授가 韓美財團 I·C·A資金등으로 世界最高의 수준을 堅持하는 美國의 最新臨床技術을 습득하고 先進하는 學術理論을 探究하여 歸國한 後 學生지도에 十分 활용하고 있으며 한편 財政的 困難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自費로써 歐美各國에 유학한 敎수들도 있는바 이렇듯 學問과 敎育에 바치는 정열이 敎育發展의 원동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齒科醫學界에 있어서는 해방과 더불어 한국 첫과 의사를 총망라한 大韓齒科醫師會가 조직되고 그 주下에 大韓齒科醫學會도 동시에 발족하였다. 과거 日帝時의 醫師會는 본연의 활동기능보다는 오히려 齒科醫師 상호간의 친목을 위주로 하는 모임에 불과 하였으나 이제 그 旧態에서 벗어나 점차로 능동적이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美國齒科醫師會와 같이 保健事業, 齒科醫師登錄事務一切등 齒科事業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장악하고 行政代行機關으로서의 기능을 구비할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試圖하여 왔다.

매년 六月九日에 시작하는 口腔保健週間을 통하여, 각종 학생의 口腔檢診 및 無料檢診, 健齒老人表彰等 口腔위생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강조하는 계몽사업에 全會員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年中行事로 되어있는 無醫村 순회로 해마다 어김 없이 실천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봉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적향상으로 부단한 노력을 注入하여 大韓齒科醫學會에서는 매년 初夏에 學術大會를 개최하고 지난 一年間의 學術研究發表, 臨床報告, 레-클클리닉 데몬스트레이션 등과 아울러 국내 외에서 생산사용되고 있는 齒科材料 및 器材의 전시등 다채로운 부로의 대회가 年々 盛況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美国齒科醫師會도 多數 贊助出演하여 前例없는 일에 盛況을 이루었던 것이다.

끝으로 우리 齒科醫師會의 국제무대 진출을 명기할 발전의 하나를 들겠다. 國際保健機構의 아시아地區에서 개최한 二次의 齒保健會議에 우리代表가 빠지지 않고 參席의 기회를 가져 작년 三月 마닐라에서 개최된 第二次아시아地區 齒科會議에는 大槪 五名の 代表 出席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國際的進出은 8.15 해방이후 비로소 試圖된 것으로 이 또한 齒醫學發展을 誇示하는 活躍相의 하나라 하겠다.

世界史의 조류와 더불어 흐르는 한국의 現世史로 구미쳐야 할 허다한 西歐의 여물을 가져왔으며 따라서 불필듯 거센 西歐文明思潮의 流入과 함께 이 나라에 도입된 齒科醫學이 가져온 變遷의 발자취 또한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變遷의 역정이 8.15 이후로는 퇴각과 停滯의 역사가 아니라 항상일로를 지향하는 발전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는 기쁨을 간직하면서 8.15의 열네들을 맞이하는 마이다. -(保健文化 第一卷, 第五号 (1959, 8) 에게 載載)-

筆者 金永昌 1917年 서울 胎生

京城第一高等(京畿市高)를 거쳐 1942년에

京齒專을 卒業 1958년에

醫學博士學位를 받고 同年 7월에

齒科大學 學長에 就任

大韓齒科放射線學會 (1959. 7. 11 창립)

會長 安炯珪

總務 郭元培



韓國齒科界概觀

서울대학교齒科大學 豫防齒科學敎室

崔 正 奉

第一章

解放前의 韓國齒科界

序 說

우리나라가 過去 36年間 日本帝國主義의 殖民地政策 밑에서
팔팔수 없는 압박과 시름을 받았다.

그러나 解放 15周年을 맞이한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敵愾心
만을 鼓吹당해온 젊은 世代는 暗黒時代에 대한 올바른 識見을
가질수 없었다.

이제 第二共和國이 탄생된 이 파당에서 멀지 않아 박아을
환국의 "르베장스"를 바라보며 우리의 前世代가 逆境 속에서
남겨 놓은 支敎를 中心으로 이 글을 만들어 보았다.

筆者는 機會 있을 때 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自身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齒科의학이 발달되어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不幸히도 우리의 先輩들은 沿革史조차 만들어 놓지
못했으며 믿을만한 史料 한조각 가지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6.25動亂만이 그들의 昇明을 合理시켜주는 가장 조흔 防牌
였을뿐 그들은 이미 너무나 힘이 없다

齒科醫術의 傳來

여기서 論하려는 齒科의술은 科學文明의 세례를 받은 西洋齒科醫術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齒科의술이 傳來된 것은 두가지 經路를 밟았다고 본다.

하나는 日本을 거쳐 들어 왔고 또 하나는 美國을 通해 直接 우리에게 紹介된 이다.

石碯 大院君이 鎖國政策을 쓰치 았다면 齒科의학 역시 日本을 거쳐 았고 直輸入 되었을 것이고 지금 日本 齒科界를 능가했 을 것이나 不幸히도 우리는 日本보다 33年 늦게 日本人 齒科醫師의 入國으로부터 한국 齒科界의 幕이 오르게 되었다.

即 日本은 1860年 美國人 齒科의자인 W. C. Eastlake 氏로 부터 齒科醫術 받아 들였고 우리는 1893年 日本人 野田應治 氏가 仁川에서 開業을 始作함으로서 幕이 올랐다 當時 우리나라엔 在泰의 醫生(漢醫師)들과 極少數의 外國人 의사들이 았을 뿐 齒科의사라고 한 사람도 았었다. 그는 日本 南山齒科醫學院 (現東京齒大)에서 工夫를 했으며 數年後 內務省施行 齒科醫術 開業試驗에 合格하자 곧 仁川으로 와서 開業을 했으며 이듬해 1894年에 서울로 移轉해서 30年동안 머물러 았었다.

뒤이어 重城養二(1904)、檜崎東陽(1905)、飯塚徹(1905) 氏等 이 來韓했으며 1914년에는 總督府醫院에 柳樂達見氏가 았고 生田信保氏는 1918年에 來韓했는데 한국 齒科界의 開拓者들이 다

이보다 늦게 美國宣敎部를 通하여 來韓한 齒科醫師들이 았다 이들은 勿論 美國人들이며 1915年에 來韓한 W. J. Scheifley 를 비롯하여 1921年에 J. L. Boots 氏와 J. A. McAnlis 氏等이 Severance 病院을 中心으로 많은 일을 했다. 다仗에 依하면 韓大偉라는 譯名을 가진 美國人 齒科醫師 David Edward Hahn

氏가 1910年頃 서울에서 開業을 했다 한다.

最初의 韓國人 齒科醫師

韓日合併以後 數 많은 日本留學生들이 생겨났다 그中에서 咸錫源氏는 日本齒科醫專을 1912年에 卒業하고 귀국하였으니 우리나라 사람으로선 처음으로 齒科醫師가 된 분이다. 林沃育(1922)氏도 同校出身이다.

韓東燦氏는 1917年에 東京齒醫專을 卒業하였고 金昌圭(1919) 李熙昌(1921), 高明天(1925)氏等이 같은 學校를 卒業하였다

李順伊(1929), 崔錦鳳(1930), 洪善孃(1930), 崔正燾(1931)等은 東京女子齒科醫專을 거쳐 齒科醫師가 된 女性들로서 異彩를 띠었다

우리 나라에서 最初의 齒科醫師(檢定)試驗이 1921年에 施行되었으려 總應試者 38名中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高相穆氏만이 合格되었다.

그後 이러한 制度下에서 齒科醫師免許를 받은 이는 蔡珍極(1922), 李成模, 金然叔氏等이다.

1925年부터는 해마다 數十名の 韓國인 齒科醫師들이 輩出되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設立된 京城齒科醫學校 卒業生들이다

安鍾書, 金응진氏等이 一回卒業生이고 다음해 1926年에는 李鎭坤, 文箕玉氏等이 卒業하였다

이로 보아 現在 우리나라에 있는 齒科醫師들의 構成狀態는 海外出身, 檢定出身, 京齒出身으로 大別해 볼수 있을 것이다.

齒科教育機關의 設立

우리 나라에 온 수많은 日本人 킷과의사 가운데 柳樂達晃氏는 특히 한국에도 齒科教育기관이 있어야겠다는 절실히 느끼고 有志를 物色하다가 齋田儀作氏의 도움으로 京城齒科医學校를 設호하였다.

이 學校는 1922년에 設立認可를 얻었고 그해 4月 15日에 朝鮮總督府醫院에서 66名の 新入生과 더불어 開校式을 올렸다.

1925年 2月에는 總督의 指針을 받아 卒業生은 누구나 無試驗開業을 할 수 있는 特典이 부여되었고 1929년에 專門學校로 昇格하였다.

朴明진、李有경、殷仲基氏 등은 東京齒科医学專門學校을 나온 第1回卒業生이며 解放되기까지 第17回卒業生 500余名을 배출시켰다. 1946年度부터는 國立서울大學校 齒科大學으로 再昇格하였다.

齒科醫師들의 團體活動

우리 나라에 最初로 창립된 齒科醫師會는 1912년에 서울에 있는 日本人 킷과의사들이 만든 京城齒科醫師會이다.

그러나 1925년에 京城齒科医學校 卒業生이 나오자 日本에서 귀국한 咸錫泰氏를 中心으로 韓國사람만으로 된 漢城齒科醫師會가 생겨 은연중에 京城府齒科醫師會와 對立하였으며 1942년에 強制로 兩齒科醫師會가 合同되었다.

朝鮮齒科醫師會는 梅嶺氏의 發起로 1921년에 창립되었으며 처음엔 個人別로 加入되었으나 나중에 各地方別로 團體的인 加入制로 바뀌었고 1932년에 朝鮮聯合齒科醫師會로 改稱되었으며 그 산하에 各道齒科醫師會가 全國적으로 設置된 것은 1940年以後였다.

朝鮮齒科醫學會는 柳樂氏의 發起로 1918年 겨울에 창립되었
으며 1932년까지 韓國을 代表할수 있는 唯一한 學會였다. 지
음까지 알려진 바로는 1925年에 大阪齒專을 나온 趙康欽氏가
韓國사람으로서는 最初로 發表會壇上에 올랐다 「三叉神經痛을 全
治시킨 一例」를 第7回 朝鮮齒科醫學會(1927)에서 發表했던
것이다. 이 當時 韓國人은 58名이 加入되어 있었다.

그러나 1932年 京城齒科醫學會가 탄생하면서부터 이 兩會는
善意의 競爭을 하기 시작했다.

柳樂氏가 京城齒專의 校長을 歷任하게 되자 이學校를 中心으
로 京城齒科醫學會가 構成되었으며 朝鮮齒科醫學會는 京城帝大醫
學部 齒科敎을 中心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會長은 生田信保氏
가 맡아 일하였다.

兩學會 모두 學會誌를 發刊하여 會員들의 學究欲을 滿足시켜
주기에 努力했으며 朝鮮齒科醫學會誌는 1925年에 創刊되었다.
위와 같은 환경 밑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무엇을 연구 발표하
였는지를 잘 살펴 보자.

韓國人齒科醫師의 研究業績

大部分의 韓國人 齒科醫師들은 開業醫로 進出했으며 敎育기관
에 종사하는 極少數의 사람들이 醫學博士學位를 얻기 위해 연
구에 몰두하는 정도였다.

그중에 養珍極氏 畿大醫學部에 있는 德光敎授의 지도로 口腔
粘膜炎에 미치는 光力學的작용을 研究하여 1940年 12月에 그의
論文이 東北帝大 敎授會를 通過하게 되었다.

이것은 韓國人齒科醫師로서는 最初의 慶幸였으며 더구나 獨學
으로 努力한 點에서 높이 評價되었다.

朴用진氏는 京城齒專에서 講師職을 가지고 있었으며 城大 形態學教授의 指導로 1943년에 學位를 받았다.

아래에 있는 “리스트”中 (68)과 (74)가 그의 學位 主論文이다.

城大 齒科學教室에 있는 趙昊衍氏도 1944年頃 學位를 획득하였다. 그는 주로 弗化 나트륨에 관한 研究를 같이 하였으며 그의 副論文 역시 이에 관한 것으로 “리스트”中의 (53)과 (61)等이다. (主論文未確認)

潘養攸氏 역시 城大 齒科學教室에 있었으며 朴用氏의 지도로 1945年 8월에 學位를 받았다. 그의 主論文은 (77)과 (78)이다.

以上은 學位를 획득한 者들의 研究業績에 不過하며 그밖의 者들로 연구에 힘을 다하였을줄 믿는 바이나 80余篇의 글中에서 네사람의 글을 除하고 나면 과연 Originality를 가진 글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래에 있는 文獻目錄은 當時의 醫藥系雜誌에 실려 있는 글들을 年代順으로 나열한 것에 不過하며 個別的인 內容分標은 다음으로 다루었다.

1930年度

(1) 北方朝鮮人の 食物 (裴珍極)

日本口腔衛生 12卷 129号 1930年 9月

(2) 齒槽膿漏 (安鍾耆)

朝鮮醫報 1卷 1号 1930年 11月

1931年度

(3) 韓國時代の 齒科業界에 對하여 (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2号 1931年 2月

- (4) 脣齒周圍炎으로因한 下顎骨枝 骨膜炎의 一例 (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4号 1931年 4月

- (5) 福岡県下에 있어 地方病的 齒牙形成異常의 一例 (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5号 1931年 5月

- (6) 暗窩蜂窩 의 一例에 對하여 (殷仲基)

朝鮮之齒 2卷 7号 1931年 7月

- (7) 唾液腺内分泌의 藥理的研究 (朴熙俊)

日本藥物學雜誌 12卷 3号 1931年 7月

- (8) 齒齦에 發生한 血管腫一例 (安鍾書)

朝鮮醫報 1卷 3号 1931年 8月

- (9) 齒牙病竈中心感染의 一例에 對하여 (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9号 1931年 9月

- (10) 朝鮮 江原道의 地方性齒牙疾患에 對하여 (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9号 1931年 9月

- (11) “완산”氏 “한기나”의 一例에 對하여 (殷仲基)

朝鮮之齒界 2卷 10号 1931年 10月

1932年度

- (12) 腸지부스에 繼發한 上顎骨々疽의 一例 (李成模)

朝鮮之齒界 3卷 1号 1932年 1月

- (13) 口腔外科領域에 있어 自家血液療法에 對하여 (李昌禧)

朝鮮齒科醫學會雜誌 8卷 2号 1932年

- (14) 壞血病의 治驗例 (李成模)

朝鮮之齒界 3卷 5号 1932年 5月

- (15) 齒科學 講座 (殷仲基)

医生医学 4, 5, 6号 1932年 10~12月

- (16) 下顎骨骨髓炎에 併發하는 咬筋壞死의 一例 (李成模)

朝鮮齒科医学会雜誌 8卷 4号 1932年

1933年度

- (17) 慢性肥大性齒齦炎 臨床的及組織學的 所見 (裴珍極)

朝鮮医学会雜誌 23卷 5号 1933年 5月

- (18) 上顎全齒齦에 發生하는 小円形細胞肉腫의 一例에 關하여

大日本齒科医学会雜誌 31卷 1号 1933年 7月

- (19) 短時間 鑲造法에 對하여 (朴明鎮)

京城齒科医学会雜誌 2卷 2号 1933年 8月

- (20) 稀有한 口腔지프테리의 一例 (裴珍極)

齒科學報 38卷 11号 1933年 11月

- (21) Rivanol의 根管內 應用 (裴珍極)

朝鮮之齒界 2卷 11号 1933年 11月

- (22) 朝鮮人の 智齒發生 困難症의 統計的觀察 (趙吳衍)

朝鮮之齒界 2卷 12号 1933年 12月

1934年度

- (23) 顆粒白血球減少症에서 본 壞疽性 口內炎의 一例 (裴珍極)

朝鮮齒科医学会雜誌 10卷 2号 1934年 7月

- (24) 血液型、齒弓形及 口蓋容積과의 相關關係에 對하여 (朴明鎮)

京城齒科医学会雜誌 3卷 2号 1934年 8月

- (25) 補綴裝置의 數字的 觀察 (朴明鎮)

京城齒科医学会雜誌 3卷 3, 4号 1934年 12月

- (26) 成人의 齒齦에 생길 水腫의 一例 (裴珍極)

日本之齒界 179号 1934年

- (27) 朝鮮人에 對한 Bolk氏의 Paramolar 及 Distmolar
五例 (鄭保羅)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卷 3,4号 1934年

- (28) 下顎第三大臼齒의 埋伏狀態分類과 그 簡易한 拔去法 (鄭保羅)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卷 3,4号 1934年

- (29) 二三融媒添加의 石膏強度에 미치는 影響 (安正浩)

京城齒科醫學會雜誌 3卷 3,4号 1934年

- (30) 全身麻醉劑 Incisin의 應用例 (金仁煥)

清鮮之齒界 3卷 10号 1934年 10月

1935年度

- (31) 鼻中隔에 接近하여 埋伏한 上顎犬齒의 一例 (裴珍極)

清鮮之齒界 4卷 2号 1935年 2月

- (32) 硬口蓋 正中線部에 나란한 骨膜下膿瘍의 一例 (鄭用珥)

清鮮之齒界 4卷 5号 1935年 5月

- (33) 亞砒酸의 知覺神經 에는 運動神經에 미치는 作用에
對하여 (朴明鎮)

京城齒科醫學會雜誌 4卷 3号 1935年

- (34) 先天齒의 二例에 關한 組織學的 研究 (裴珍極)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1卷 3号 1935年 9月

- (35) 上顎洞內에 發育한 齒齦腫의 手術 (趙吳衍)

清鮮之齒界 4卷 12号 1935年 12月

- (36) 興味頭는 根管內 異物의 一例 (趙吳衍)

清鮮之齒界 4卷 12号 1935年 12月

1936年度

- (37) 齒牙로부터 吸收된 亞硫酸의 新陳代謝에 미치는 影響
(金仁煥)

滿鮮之齒界 5卷 5号 1936年 5月

- (38) 下顎에 發現하는 骨纖維腫의 一例에 關하여 (裴珍極)

大日本齒科医学会雜誌 34卷 2号 1936年 11月

1937年度

- (39) 最近 処置하는 外科的 臨床 (朴鎔德)

滿鮮之齒界 6卷 2号 1937年 2月

- (40) 上顎癌의 一例 (裴珍極)

滿鮮之齒界 6卷 6号 1937年 6月

- (41) 興味있는 破折注射針 取出 (金仁煥)

滿鮮之齒界 6卷 7号 1937年 7月

- (42) 臨床에 稀有한 頭接二例 (金喆庸)

朝鮮醫報 7卷 3号 1937年 9月

- (43) 兄弟以外 本 過刺齒의 例症 (安正浩)

滿鮮之醫界 6卷 10号 1937年 10月

- (44) 二三의 持続的 解熱作用을 가진 藥物의 鎮痛作用에
對하여 (朴明鎮)

京城齒科医学会雜誌 5卷 4号 1937年

- (45) 興味있는 膿胞性 齒牙肉의 一治驗例 (朴鎔德)

滿鮮之齒界 5卷 12号 1937年 12月

- (46) 所謂齒槽膿漏症의 統計的 觀察 (金喆庸)

朝鮮醫報 7卷 4号 1937年 12月

1938年度

- (47) 光力學的作用의 齒牙發育에 미치는 影響 特別 이와

脾臟及網狀組織內細胞系統과의 關係 (裴珍媛)

朝鮮医学会雜誌 28卷 1号 1938年

(48) 口腔內感染과 健康 (李有慶)

医生医学 72号 1938年 6月

(49) Benzol 及 그誘導體가 運動神經纖維에 미치는 影響 (朴明鎮)

① Benzol 及 Benzol 核水素原子一個과 簡單한 Alkyl 基 C_nH_{2n+1} , Halogen, Nitro 基 NO_2 , Amino 基 NH_2 또는 Cyan CN 을 가지고 置換하는 것

京城齒科医学会雜誌 7卷 1号 1938年

(50) 化膿性 齒牙炎 (金仁煥)

京城齒科医学会雜誌 7卷 1号 1938年

(51) 네가 考察한 廻轉局部 咬合器에 對하여 (朴明鎮)

京城齒科医学会雜誌 7卷 7号 1938年

(52) 柴胡의 家兔体温에 미치는 作用 (朴明鎮外 2名)

京城齒科医学会雜誌 7卷 2号 1938年

1939年度

(53) 弗化 Natrium 過剩 投與의 齒牙及 其支持組織에 미치는 影響 (趙昊衍)

①母體에 있어 弗化 나트륨中毒이 乳兒齒牙에 미치는 영향

②家兔及 Rat, 海獺의 齒牙와 그支持組織에 미치는 영향

朝鮮齒科医学会雜誌 14卷 3, 4号 1939年

(54) 重症의 下顎骨體部 骨折의 一治驗例 (朴鎔德)

滿鮮之齒界 8卷 2号 1939年

(55) 4例의 癒合齒를 가진 一兒童의 臨床術 (金敬運)

口腔科学 7卷 3号 1939年 3月

- (56) 京畿道管内 朝鮮人 青年團員과 朝鮮人 特別志願兵 第一期生の 齲蝕罹患率 (尹麟九 外)

京城齒科医学会雜誌 7卷 4号 1939年

- (57) 小兒齒咬合面 中央異常咬頭結節의 臨床例 (李有度, 李良淑)

滿鮮之齒界 8卷 10号 1939年 10月

- (58) 口腔粘膜에 미치는 光力學的 作用의 研究 (裴珍極)

- ① 口腔粘膜에 미치는 光力學的 作用과 網内系와의 關係

朝鮮医学会雜誌 29卷 11号 1939年 11月

- ② 口腔粘膜에 미치는 光力學的 作用과 大網膜과의 關係

同上 29卷 12号

- ③ 肝臟機能障礙時에 보는 体内性 光力學的 物質과 網内系와의 關係

- ④ 口腔粘膜의 紫外線感受性과 網内系와의 關係 (同上)

1940年度

- (59) 顎下腺 唾石症의 一例 (趙具衍)

滿鮮之齒界 9卷 1号 1940年 1月

- (60) 膽汁中毒과 網狀織内皮細胞系統機能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 (裴珍極)

朝鮮医学会雜誌 30卷 1号 1940年

- (61) 弗化 나트륨 過劑投與의 齒牙及 其支持組織에 미치는 影響 (趙具衍)

- ③ 母體의 弗化 나트륨 過劑投與가 그胎兒齒芽에 미치는 影響

朝鮮齒科医学会雜誌 15卷 1,2号 1940年

- (62) 小臼齒 咬合面 異常咬頭結節로 因한 慢性 根端性齒槽膿瘍을 惹起한 一例 (朴鎔德, 崔宗善)

滿鮮之齒界 9卷 3号 1940年 3月

- (63) Therapoi의 齒科的 應用 (李迪柱)

滿鮮之齒界 9卷 6号 1940年 6月

- (64) Benzol 誘導體가 運動神經纖維에 미치는 영향 (朴明鎮)

② Phenol 類

③ 安息香酸類

京城齒科醫學會雜誌 8卷 3号 1940年

- (65) 齒牙의 蒼鉛吸收에 關한 分光鏡的 研究 (朴明鎮)

日本藥學雜誌 29卷 1, 2号 1940年 7月

- (66) 天先的 琺瑯質缺損의 一患者에 있어 18個의 Porcelain Jacket Crown 과 8個의 Cast Crown 을 装着한 一症例 (李有慶)

大日本齒科醫學會雜誌 38卷 1号 1940年 7月

- (67) 齒牙萌出障礙症의 流涎症의 一例 (潘泰攸)

大日本齒科醫學會雜誌 38卷 2号 1940年 10月

1941年度

- (68) 蒼鉛劑와 鉛劑 投與家兎의 口腔內 器官에 依한 蒼鉛과 鉛沈着에 關한 分光鏡的 檢索에 對한 研究 (朴明鎮)

日本醫學報 藥學 14卷 1号 1941年

- (69) 鉛劑投與家兎의 口腔組織에 있어 鉛沈着에 關한 分光鏡的 檢索 (朴明鎮)

日本藥學雜誌 31卷 2号 1941年 2月

- (70) 朝鮮 咸鏡北道 吉州 溫泉附近에 發生한 地方病性齒牙發育障礙症의 一例 (潘泰攸)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6卷 1, 2号 1941年 4月

- (71) 齒槽膿瘍의 豫防 (盧光 珍極)

厚生医界 22卷 1941年 4月

- (72) 結核斗 齒牙口腔保健 (康光 珍極)

厚生医界 23号 1941年 5月

- (73) 京畿道管内 朝鮮人青年團員의 口腔衛生狀況 (尹麒炳 外)

京城齒科醫學會雜誌 9卷 2号 1941年 6月

- (74) 아드레나린, 피로칼핀及 아트로핀 投與家兎의 鋸削投與
後의 口腔內器官에 依한 鋸沈着에 關한 分光學的 檢
査에 對하여 (朴明鎮)

日本醫學報 藥物藥 15卷 2, 3号 1942年

- (75) 舌繫帶 過短症 (高楠韶)

臨床齒科 14卷 4号 1942年 4月

- (76) 齒根管門의 動脈 (新井鎔德)

解剖學雜誌 20卷 3号 1942年 9月

- (77) 乳酸 스트론슘 弗化 Na₂ 粉投與, 白鼠齒牙及 其支
持組織의 形態學的 變化比較 (潘泰攸)

- (78) 乳酸 스트론슘 弗化 Na₂ 上皮小體剔出 家兎齒牙 及
其支持組織의 形態學的 變化 (潘泰攸)

- (79) 所謂 斑狀齒三例에 對한 臨床的 組織學的 觀察 (潘泰
攸)

- (80) 自然消癒換轉을 取한 水瘻二例 (潘泰攸)

- (81) 先天的 梅毒性 牙關緊急의 一例 (潘泰攸)

註・(77)以下는 潘泰攸氏의 學位 主論文과 副論文의 題目
들인데 언제 어디에 發表였는지는 모르겠고 忠武市에
있는 本人에게 問議했으나 아직 回答을 받지 못했음

위의 文獻目錄은 決코 完全한것이 아니나 90% 以上이 여기

에 收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이 目錄에 있어서는 韓國 人齒科醫科 史 글이 最初로 雜誌에 發表되기는 1930年9月이 되는셈이다. 그後 15年 동안 많은 글이 發表되었을 것이나 解放直前인 出版事情의 惡化로 發表할 길이 막혔을 것이고 또 1940年以後는 所謂 大東亞戰爭으로 因하여 研究欲은 외족一 路를 걸었을 것이다.

때문에 筆者는 韓人齒科醫師들의 研究發表意欲이 가장 왕성했을 기간을 1930年으로부터 1940年까지의 約10年으로 보는 바이다.

이동안 韓人齒科醫師들은 비록 指導權을 日本人들에게 빼앗겼을 망정 비교적 自由로운 분위기 속에서 極少數가 消極的인 研究活動을 해왔으며 大部分의 齒科醫들은 安易한 生活態度에 滿足하고 있는것 같다.

그들은 韓國의 齒科界를 위해 일할 기회를 갖지 않았고 各 個人의 階級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韓國齒科醫科 史가 길이 기억해야 될만한 위대한 人物이 나오지 못하였다고 본다.

우리 齒科界가 오늘날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勿論 歷史가 짧은 탓도 없지 않았으나 보더라도 先輩들의 생각 없는 安逸主義에 起因한바 크나하겠다.

우리의 進路

우리는 過去 70年間의 韓國齒科界를 돌이켜 볼때 크게 失望할수 밖에 없는것은 아직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 學問으로서의 韓國齒科醫學의 發達을 찾아 볼수 없고 다만 齒科醫術을 배운 一種의 技術者들 손아귀 속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似而非 學問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齒科界의 發展과 後進性의 克服은 오직 젊은 齒科醫學徒들에게 달려 있다.

病을 고치는 技術만을 배우는 것이 齒科醫의 全目的이 될수 없음을 깨달은 우리는 나아가 齒科醫學을 學問으로서 研究할수 있는 科學者를 育成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施設과 人材가 具備된 齒科醫學研究所를 만들어 젊은 後進들이 安心하고 研究에 沒頭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最新醫學 Vol. 3, NO. 8, Aug. 1960 에서 轉載)

第 二 章

解放後의 韓國齒科界

우리나라가 日本으로부터 解放된지도 어언간 十五年의 세월이 흘러 갔다. 국제적으로는 美蘇兩大陣營의 冷戰이 끊임 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南北으로 兩斷되어야 했고 드디어 六·二五는 民族의 悲劇을 演出케 했다

反共과 反日의 스톱간 밑에 우리의 自由를 여지없이 빼앗아가기만 하던 李承晚政權도 물러가고 이제는 第二共和國이 樹立되긴 했으나 데모는 오늘도 쉬지 않고 全國各處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國內外 政勢 밑에서 우리의 齒科界는 어떠한 말자락을 남겼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齒務行政

日本總督 阿部信行으로부터 政權을 물려 받은 美軍은 軍政法

속으로 衛生局을 設置하였으나 곧 保健厚生局으로 改稱하면서 齒務課를 두었다

다음해 (1946年) 3월에 다시 保健厚生部로 되고 그 산하에 16局 53課를 두게 되었는데 齒務課는 局으로 昇格됨과 同時에 口腔衛生課를 비롯하여 免許登錄課 및 齒科機材課가 있어 元 洛莘氏가 局長이 되고 崔義鍾、金應鎮氏 등이 課長에 就任하였다.

1947年 6월에 南朝鮮 過渡政府가 樹立되자 齒務局은 다시 課로 縮小되면서부터 齒務行政은 後退반을 거듭하게 되었으나 곧 大韓民國 政府樹立은 齒務係를 社會部 保健局內에 두게 하였고 徐丙瑞氏가 혼자 醫務課長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保健行政의 獨立運動이 마침내 뜻을 이루어 一室 三局 十二課의 保健部 職制가 1949년에 公布됨에 따라 齒務係는 겨우 課로만 復活되어 金詰庸氏가 課長에 就任하였으나 뒤이은 政府機構簡素化로 다시 係로 墮落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當時 保健部에서는 齒務課와 看護事業課中 어느 한課를 없앨려고 했는데 看護員들이 當時의 프란체스카女史에게 진정을하게 되자 그반 齒務課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敍話가 있다

係로 墮落된 齒務行政機構일망정 有能한 齒科醫師가 이를 잘 보살피 나갔더라면 또 모르겠으나 1952年末에 가진 徐丙瑞氏까지 자리를 떠나고 한동안 保健部內에는 齒務行政空白期가 찾아오게 되었다

1955年엔 保健部와 社會部가 합쳐 現 保社部로 되고 中央方엔 「係」의 職制가 없어짐에 따라 齒務係조차 말살되고 所謂 齒務担当官 一名이 겨우 齒務行政의 命脈을 이어왔다. 金岐亨氏

는 1955년부터 3년동안 이 바톤을 쥐고 있다가 1958년에 姜国馨氏에게 넘겨 주었다

四月革命後 過渡政府의 金戩鎭 保社部長官은 그의 唯一한 業績으로 齒務課를 復活시켜 놓았으나 課長發令도 없이 張勉內閣은 또 다시 齒務課의 廢止를 시둘게 되고 大韓齒科醫師協會는 이를 저지시키는데 全力を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口腔衛生事業費는 保健事業費의 萬分之四에 불과하였고 작년엔 비로소 保社部 總예산의 萬分之一을 얻게 되었으니 保社部가 얼마나 齒務行政을 소홀히 해왔는가를 알수 있다

齒科醫師會

1946年 5월에 朝鮮齒科醫師會가 創立되어 朴明鎭氏가 會長이 되고 安炳植、李斗榮氏等이 副會長에 選出되었다.

이 會는 每2年마다 任員을 改選해 나갔고 政府樹立으로 大韓齒科醫師會로 되었다. 國民醫療法의 公布가 있자 이에 準한 法定團體로 1952年 釜山에서 再發足하였고 1959年엔 大韓齒科醫師協會로 改稱하였다.

그러나 實際로는 金洛璠氏와 安鍾書氏가 中心이 되어 十餘年間 大韓齒科醫師協會를 運營해 왔으며 四月革命以後 革新勢力의 抬頭로 韓東燦氏가 會長으로 選出되었다.

十餘年間 大韓齒科醫師協會의 活動은 主로 對政府鬭爭에서 찾아 볼수 있으니 醫齒一元化 運動이 그 첫째 鬭爭이라 할수 있다 이것은 日帝末期 日本齒科醫師들로 熱心히 推進시킨 일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선 申仁澈氏가 主動이 되어 齒科醫師의 差別待遇에 對한 強烈한 反抗을 보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둘째는 口腔科運動이라고 불리우는 齒科診療科名 改稱運動이었

다. 金文祥氏가 精力이 消耗한 것으로 알려진 이 운동은 비록 國會에서 會期不連續으로 廢棄는 되었을 망정 齒科의 領域이 齒牙에만 局限되어 있지 않다는 認識을 갖게 했다.

셋째는 齒務行政強化運動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政府의 빈번한 機構改革때 마다 齒科醫師들은 最少限 齒務課반이라도 確保하려했고 十年동안이나 꾸준히 노력해서 겨우 예산도 없는 齒務課일망정 탄생시켰으나 3個月도 못되어 다시 存廢問題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것은 勿論 口腔保健의 重要性을 알지 못하는 政治家들 에게도 責任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들 自身의 力量이 不足한 탓이리라라고도 생각된다. 모든 國民이 口腔保健事業이 全体健康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인식시켰다면 결코 오늘날과 같이 社會의 병태를 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해마다 口腔의생강조주관을 지켜오긴 했으나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었는지는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그밖에 入齒師의 撲滅、齒大教育年限의 延長等 몇 가지 艱難을 올린 일도 없지 않지만 齒科保健員、齒科技工士等의 養成問題、齒科專門医制度의 設置、齒科沿革史編纂、消費組合運營의 合理化等 많은 일이 남아 있다.

齒科醫學會

朝鮮齒科醫師會와 同時에 創立된 朝鮮齒科醫學會는 趙吳衍氏가 初代學會長이 되고 1947년에 비로소 第一回 學會를 開催以來, 지금까지 12 회째를 맞이하였다.

6.25로 잠시 中斷되긴 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열려 왔고 朴明鎭氏의 別世로 지금은 李春根氏가 이어 받고있다.

1959年엔 分科学會를 두게 되어 矯正學會를 비롯한 일곱 개 分科學會가 다투어 생겼으며 今年엔 Perio學會까지 생겨 8個 分科學會를 두었다.

지금까지 이 學會를 통해 發表된 演題는 모두 400餘個에 달하고 있으나 그 內容을 이제 와서 살펴 알길이 없게 되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學會에 반드시 따라야하는 學會誌의 發刊이 순조롭지 못했고 學會幹部를 비롯한 會員들의 理解不足에 起因한 것이다.

齒科教育機關

柳榮達見氏로부터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接受한 뒤 朴明鎭氏는 校長이 되고 文기조氏는 理事長에 就任하였다.

1946年 가을 學期부터 大學으로 昇格된 이學校는 國立서울大學校의 一單科大學으로 編入되게 되자 同窓會는 贊反兩論으로 심각한 分裂까지 하였으나 結局 綜合大學에 들어갔다.

第1回 卒業生을 1947년에 반후 금년까지 近千名의 卒業生을 배출하였다.

大學院은 1956년에 두 사람의 첫졸업생을 배출하고 지금까지 16名의 齒學碩士가 卒業하였다.

1957년에 別世할때까지 朴明鎭氏는 12年間 學長職에 있었는데 한국 唯一의 齒科大學임에 비하여 그 發展度가 느리기 짝이 없고 지금은 金永昌氏가 14名의 正敎職員을 거느리고 있다.

1959년에야 미로소 齒大 6年制가 實施되어 齒大予科生을 두었으나 한국 첫과제의 앞날에 서광이 비쬠듯하다.

慶北大、全南大等에서도 齒予科生을 모집하였다고 전해되긴 했으나 一部에서는 齒大新設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앞으로 과연 齒科大学이 생기지 못할 것인지 문제이다
나 個人의 意見으로는 반드시 齒科大学은 新設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싶다.

그 밖에 全國 各医科大学에 齒科敎室이 있어 一般 医大生들
을 위한 齒科敎育이 실시되고 있다.

研究業績

우리나라 齒科界의 研究業績은 극히 보잘것 없으며 十五年동
안에 겨우 두 사람의 醫學博士가 생겼으며 日本、西獨等에서
學位를 받은 이도 죄다 두사람 뿐이다

即 李春根氏의 「銅의 生物學的的研究」를 비롯하여 金永昌氏의
「알버츨의 生體에 미치는 영향」、金用瑄氏의 「口腔粘膜에 있어
서 核反應에 對한 研究」、鄭保羅氏의 「骨增式에 對한 研究」等
이 곧 醫博士論文들이다.

그 밖에 朴通信氏의 「亜鉛이 生體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
여 吳在仁、李永玉、林俊鎬、金東順諸氏의 論文이 誌上에 가끔
發表될뿐 大部分의 齒科醫師들은 研究生活과는 隔을 쌓고 있다.

그러나 六·二五 事變前 口腔衛生研究所를 두고 濟濟한 人材
집을 보여준 金文祚氏의 業績을 잊을수가 없다. 비록 研究途中
戰爭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한국 민족의 구국위생 실패
과약에 앞장 서서 일한 것은 높이 평가 되어질 날이 올것이
다

저 너 리 즘

첫과제에서 發行된 모든 新聞 雜誌를 통 털어보아도 모두
열가지를 넘지 못한다. 그나마도 수평이 결지 못하며 대개는

자금난으로 中途에서 休刊狀態에 빠진다 그리고 아직도 「프린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朝鮮齒界」는 1946년에 崔曉峰氏의 編輯으로 나온 總版百六面の 雜誌다. 第二号부터는 4페이지 라블로이드版으로 나왔으며 1948年度부터는 朝鮮齒科醫師會의 機關紙로 되어 「口腔科會報」로 改題되고 六·二五때까지 不定期的으로 發刊되었다.

해방후 最初로 등장한 칫과게의 言論紙라는 점과 當時의 칫과 事情을 자세히 알수 있는 史料라는 점에서도 큰 意義를 갖고 있다.

韓國齒科界의 唯一한 綜合學術誌를 指向하면서 1947년에 發刊된 「朝鮮齒科醫報」는 保健厚生部에서 發行하고 朴鍾文氏가 편집한 잡지였으나 겨우 二호로 끝을 맺었다.

서울市內에 두개의 齒科醫師會가 서로 다퉴때 前者는 서울齒科醫師會를、後者는 京城齒科醫師會를 代稱하고 있었다

1954년에 大邱에서 「齒學」이 發刊되었다. 처음 몇호까지는 시험지 몇장에 不過하였으나 곧 잡지모습을 갖추어 지금은 韓國唯一의 月刊誌로 君臨하였다 大韓齒科醫學會 慶北支部에서 發行하는 機關紙이며 처음엔 卞鍾秀氏의 꾸준한 努力이 힘이 되었고 지금은 金容준氏가 編輯을 맡고 있다.

같은 해에 서울에서는 「大韓齒科醫學會誌」가 창간되었으며 今年十月에 겨우 第二호가 나왔다 우리나라 칫과의학계 實力을 솔직하게 나타내 보이는 이 雜誌일망정 定期的으로 그박 그박 나올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리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닌것 같다 勿論 大韓齒科醫師會의 機關誌이며 金秉順氏가 이번호의 편집을 담당하였다

「大韓齒科醫師會報」는 1955년에 創刊되었다. 라블로이드版의

로 第七号까지 계속된 후 中断된 月刊紙였다.

故 韓晚相氏의 수고가 많았으며 1958年 9月에 이것의 後身이라 볼수 있는 「大韓齒醫報」가 창간호를 내었다 이것 역시 每月 一回씩 發刊키로 했으나 今年 6月로 休刊되고 있으며 送年芳를 계속 발간키로 되어 있는 大韓齒科醫師協會의 매번지이다.

釜山에서는 「齒醫界」를 1957年에 發刊하였다. 大韓齒科醫學會 慶南支部에서 季刊을 指向하고 發行中이나 아직 通卷十卷未滿이다. 「齒學」과 더불어 地方會員들의 學究熱을 북돋우고 있는 좋은 雜誌들이다.

1959年 正月부터 「齒大學術誌」 月刊으로 나왔다. 서울大 齒大 敎職員들이 中心이 되어 組織된 學術研究會에서 發行하는 이 雜誌는 今年에 들어가지 역시 資金難으로 年三回 發行키로 하고 있다.

같은 해에 서울特別市齒科醫師會에서는 月刊으로 「齒科會報」를 刊行해 왔으나 지금은 休刊狀態이고, 「全南齒醫」 역시 第二號를 못내고 있는 모양이다.

이밖에 學生들의 雜誌인 「備度趾」와 「研友」가 있다.

國際交流

정부수립후 特히 六·二五를 계기로 한국의 國際的進出이 원저래지자 齒科醫師들의 海外留學은 勿論 많은 外國人齒科醫師들이 來韓하여 友好的인 紐帶를 굳게 하였다.

「뉴 지랜드」의 「웰링톤」에서 WHO主催 第1回 康南亞細亞地區齒科保健會議가 開催되자 車文豪氏가 參席하였고 1959年 第2回 會議에는 沈泰錫氏가 參席하였다.

「로마」에서 第12回 世界齒科医学会가 1957년에 열렸을 때 鄭保羅氏는 한국 대표로 參席하였으며 1958년에 「파리」에서 열린 第2回 亞細亞齒科医学会及 亞細亞齒科會議에는 李有慶氏를 비롯한 五名の 우리나라 代表가 參席하였다.

美國齒科醫師協會創立百周年紀念式엔 鄭保羅氏를 비롯한 三名의 代表가 갔고, 때를 같이 해서 열린 F. D. I 47回總會에서는 한국의 正式加入 承認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國際進出은 아직 유치할 정도에 불과하다 四年後 한국에서 第四回 太平洋地區齒科学會를 열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망가즈망

医療人出身으로 政界에 投身하는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齒科人의 政治參與는 극히 미약하다.

建國以來 수많은 政客들이 國會로 中央府으로 물려들었지만 齒科醫師出身으로는 겨우 尹在旭氏만이 初代國會議員을 지냈을 뿐이다. 이제 國會로 進出할러던 立候補狀況을 살펴보면 尹在旭氏(다섯번出馬), 崔錦鳳氏(한번), 朴應達氏(세번), 曹基沆氏(두번)等이고 四月革命后 金溶喆, 金鍾五, 南宮奎, 朴麟範氏等이 처음으로 出馬했으나 모두 苦杯를 마셨다.

地方自治制의 實施로 各地方에서 빈번한 선거가 있었으나 과분의 랐는지 모르지만 1956年 서울에서 文箕五, 曹基沆氏만이 市議員으로 當選되었다.

이밖에 三·一五選舉를 앞두고 自由黨 中央委員會委員으로 齒科醫師會에서는 安鍾書, 尹在旭, 鄭基九諸氏가 가담하였다. 그리고 齒科界가 낳은 또 두사람의 政治人이 (64面에 계속)



口腔衛生一

緊急한 要件

保健問題는 兒童衛生으로부터

兒童衛生은 口腔衛生으로부터

齒科醫師 咸 錫 泰

去一月二十六日 貴社說「時急한 保健問題 教育家와 醫師에게」
에 感奮하여 自己의 立場地로 平素所感하던바의 一端을 記하여
敢히 我社會의 口腔衛生上에 幾分의 注意를 喚起코자 하나이다.

一

目下 우리 社會의 諸般狀態를 말하면 無非 缺乏、不足、不進
不備로 도보지 完全의 境이나 庶幾의 望이란 그것을 覓見키
難합니다 況 本人같이 囹圄한 生活를 하는 사람은 特然하나 然
이나 그는 各其 專門識者의 批評에 一任하고 오직 保健問題의
一部에 屬한 口腔衛生 即 齒科醫學界의 過去及現狀으로 보면
果然 如何할가하면 實로 不進者、最多最甚이라 합니다

二

即 去今 十年前 大正三年에 本人이 開業할 當時에 京城에
日本人 齒科醫師가 四人이요 朝鮮人側으로 本人이 一人이던바
今十年後 大正十三年에 至하여 日本人은 二十一인이 되고 朝
鮮人은 亦一人에 不遇하오나 참으로 可惜可愧한 일이 아니오
가 無論 朝鮮側으로도 其間에 一二人의 開業者가 有하였으나
如何間 存続지 못하는 것을 보면 此로써 우리 社會의 口腔衛
生思想의 程度를 可知할 것이 을사나.

京城에 居住하는 日本人의 數를 朝鮮人에 比하면 大略四分之
一이나 三分之一이라고 假定하면 此小數의 人口로 能히 二十人
以上の 齒科를 容納하는데 朝鮮人의 其四分之三이나 三分之二以上
의 多數로서 오히려 二三人의 齒科醫가 門戶를 維持치 못하는
그것이 卽 무엇을 意味할닛가.

또 우리의 發展上으로 우리의 十年間이라하면 先進者의 그네
들의 百年間이나 相當하다고 할만하 이 多事多端한 十年 안에
우리가 二十人이나 늘었다하면 거의 順調의 向上發展이라 할는
지 모르나 도리어 十年前 一人은 亦是 十年后 一人에 不過하
오니 言念及此에 果然 悲嘆을 禁치 못하겠습니다 日本人 同業
者는 恒常 本人을 向하여 君은 獨舞台이닛가 조호리라고 하고
稱美합니다 만은 이 獨舞台가 말로 무슨 意味의 獨舞台임닛가
暫間 對答하기 거북합니다 假令 覆巢之下의 一卵이 完全하얏다
면 그림 意味의 獨舞台가 안인가 하고 自愧自嘆합니다.

三

此可憐한 獨舞台의 過程을 經過하는 十年의 長日月에 自己營
業以外の 무슨 齒科醫로시의 社會奉仕的 何等努力이든지 辭치
아니하겠다는 생각은 與히 綿々不絶이엇습니다 그러나 此方面으
로 우리 社會의 衛生觀念이 一向不進하니 至今形便으로는 不禁
의 自禁으로 朝鮮社會와는 相互交渉이 적어지고 反히 日本側으
로 보면 最近에도 彼日本人 同業者 數十人에 對한 이 一個人
의 處地로서 오히려 市内 某某 尋常小學校의 囑託으로 每週間
幾時間式 幾百幾千의 兒童의 口腔檢査를 實行하는 中인데 於此
可惜한 것이 所謂 獨舞台이라는 우리 社會는 果然 一個人의
活動範圍로는 너무 豊富합니다 幾十萬 長安에 幾十處 普通學校
나 中學程度의 學校가 모두다 此를 등치고 彼小數의 尋常小學

校에 가서 그야말로 齒科醫의 社會奉仕를 하는 이 사람의 心理도 可憐하러니와 南北部 同一한 京城內에서 참으로 一奇現象이 아님닛가

勿論 本人을 選拔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彼幾個所의 尋常小學校에 二十餘人이 되는 齒科醫師가 다配置되고도 尚不足하여 이러한 사람까지도 다러가는 것이니 願컨대 우리 一般社會나 教育界에서도 좀 더 一般衛生乃至 口腔衛生을 理解하여 주변 비록 一偶人의 微力으로라도 幸히 附屬의 望을 達할까하나다

四

그런데 參考의 資料 最近檢査한 日本 兒童의 口腔檢査 成績을 例로 말하면 自己 맛은 櫻井小學校가 一學年으로 四學年까지의 生徒數가 九百六十三名인데 此 九六三에 對하여 齒齒없고 齒牙의 發育이 完全한 兒童이 七名乃至 八名에 不過하니 百에 對하여 一人의 比가 못됩니다 그런즉 朝鮮兒童의 口腔의 健康狀態는 如何할는지 實地調査한 일이 없거니와 明言치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도 以上의 比例를 推測하여 보시고 各者 家庭에서 兒童의 口腔위생에 一層 注意하기를 바랍니다.

五

齒刷牙의 使用率即 每日 規則的으로 養齒를 하는 兒童의 數는 調査한 比例로 말함하여 보면 小學校生徒 一學年으로 四學年까지의 兒童年令이 七八才로乃至 十、十一才間인데 此程度 兒童의 齒刷牙 使用하는 數가 大略 百에 對하여 二十乃至 三十이 나 됩니다 그런데 朝鮮兒童의 同程度의 年令으로 每日 正規로 이를 닦는 數가 如何할까 하면 더욱 小數로 생각 합니다 其理由는 日本 兒童의 使用하는 齒磨粉은 甘味가 있고 容器가 美麗하고 잇솔이 입부닛가 兒童이 一種 好奇心으로 玩具品가치 使用하는

故로 不知不識間에 習慣이 되어 毎日 계속 使用하지 단은 朝鮮兒童은 家庭의 自來習慣에 依하여 多部分은 齒磨用으로 食塩을 使用하나니 食塩은 鹹刺할뿐 아니라 此를 手指에다 못쳐서 舐고라고 命令的으로 가르치는데야 到底로 兒童心理에 嗜好할배 萬無합니다. 그럴뿐 아니라 食塩養齒일 망정 어른들이 規則的으로 刷牙시키는 家庭도 僅少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京城다른 都會地兒童들은 朝鮮兒童들과 日本兒童과 가차 菓子나 糖粉을 만히 먹습니다. 그러면 齒牙를 破壞하는 것은 가차하고 此를 予防하는 것은 그와 가차 忒러지면 그結果가 如何하겠습니까. 其로 彼此의 重大問題입니다.

日本兒童의 健康齒牙가 百對一이 弱한 比例로답도 또 數倍 忒러질 것이 을시다. 그러면 齒牙健康은 全部 零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比例를 熟知하시는 有志와 兒童을 親愛하시는 諸君은 此 口腔衛生의 問題를 더욱 注意 研究할 必要가 切實합니다. (東亞日報「大正十三年(1924) 2月11日」에서 轉載)

筆者 咸錫泰 1889年 平北 寧辺 胎生.

1912年에 日本齒專을 卒業.

1914年에 서울에서 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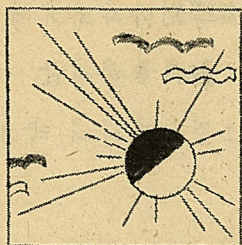
한국사람으로서 最初의 齒科醫師.

1925年에 漢城齒科醫師會를 組織하고 그 會長으로 就任

解放이 되자 故郷으로 왔으나 지금은 生死不明

(60面에서 계속)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은 韓康燦氏가 解放 直後 北韓에서 商業局長(商工長官級)으로 왔었고 崔丙智氏는 六·二五 當時 U.N. 軍에 依하여 黃海道知事로 任命되었다 (끝)



우리나라 齒科界의 今昔談

安 鐘 書

이제 편집부에서 이런 제목의 원고 청탁을 받고 보니
나로선 잇과 의사의 면허증을 받은게 어제와 같은데 벌써
이런 제목 청탁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놀라움과 “인생은
짧다”는 감을 새롭게 한다.

文才없는 나로서 그 무슨 신통한 글을 쓸 수 있고 또
그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내가 글 같은 글이나마 쓸 수
있을까 판은 그래도 지내고 보니 이제 또 옛날이라는 말
도 있고 내 연배의 동창들도 고인이 된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몇마디 적어 보고자 했다.

내가 현재의 잇과대학 전신인 京城齒科醫學校에 입학한 것은
三一운동 직후였다

그 때 나는 徽文義塾을 졸업하고 北支에 있었는데三一운동
이 국내에서 시작하여 국외로 과급되는데 日人의 탄압으로 한
국인의 생계가 형용할수 없는 곤경에 빠지는 것을 보고 우선
경제적인 기반을 얻고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
각에서 귀국하여 뜻을 齒科에 두었던 것이다.

當時 1910年~1920年 前京城齒醫專校長 柳樂達見博士는
朝鮮總督府病院 齒科長으로 있었다 나는 柳樂博士 밑에서 技工을
배웠다. 그때만해도 한국사람 중에는 正規齒專 卒業者가 없었고
모두가 市中에서 開業하는 사람들은 所謂 入齒師였던 것이다.

그러던 차 柳樂博士가 齒專을 創立한다하며 夜學制이라 하기에
응시한 것이 그만 일생을 이렇게 오늘날까지 齒科를 하게끔 만
들줄야..... 第一回 入學자 수는 약 80 명 그중 한인이 약 30
명이었나.

“잇방”이라하여 젊은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所謂 入齒
들이 하던 “치과의원”을 말하는 그 시절의 말이다 지금도 늙은
年輩의 분이 齒科에 관해서 상식이하의 그릇된 齒科에의 인식
을 가지고 또 많은 분의 치아가 좋지 못하다는 하나의 큰
원인은 바로 “잇방”이라는 데에서 오는 인식과 그 젊은이를 시
절에 이러한 곳에서 파구 좋은 치아를 버려놓은데 있다고 본
다. 日本人 치과의사는 한국이 殖民地라해서 양심이나 醫藥人의
道義를 망각하고 한국사람에게는 虫齒가 있으면 勿論이거니와
무엇이든간에 파구 金冠을 해서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지금까지 큰 齒科醫藥에의 오인을 가져온 것이라 보면 내 심경
은 이제 무엇이든 하면 좋을지 義憤을撫할 길이 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곧 現延世大學校 齒科學校에 入局했
었다. 그러나 1920年때 일이다. 同齒科에는 “卑-스”氏와 “메캐
니스”氏(美國人)와 내가 診療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시절이
세부관스齒科의 전성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한국인 上流層은 그 이전만 해도 日本人 齒科醫師 飯塚齒科에
다녔으나 모두가 한국인 기관의 齒科라 해서 해도하여 一日 80
名の 患者를 取扱했으니 현재는 상상조차할 수 없는 數字으
번성이었다. 당시의 통교질은 治療椅子가 5개였고 按齒料가 50
錢程度、總義齒가 80圓程度、智齒拔去料가 10圓이었는데 참고
삼아 그 시절의 物價를 적어보면 大學出身者의 月俸初給이 10圓
15圓이었고 湯飯이 15錢, 우리집에서는 3~5圓이면 하루 치

녁을 아주 잘 먹었으니 엄청난 치료비였지만 얼마나 큰 인기를 동齒科가 받고 있었는가를 잘 짐작할수 있다 내 월급은 150圓 道知事의 그것과 같았다 이제 생각하면 꿈만 같던 齒科醫師들의 黃金時節이었다.

그런데 이때 기억으로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요새 새삼스러운듯이 화제가 되곤하는 남녀 청춘시대의 “키스” 이야기이다. 어느날이었다. 젊은 여자와 어머니가 함께 커피를 찾아 왔는데 하는 말이 「自己 딸이 출가하여 며월이 되지 않았는데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소박을 받았으니……」 좋은 口臭除去의 치료법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몇번인가 잘 “스케-링”을 해주었더니 그후 얼마 되어서 오늘로 말하면 인자라고 해서 한턱을 했는데 그게 요즘 같은 한턱이 아니고 큰 등저리와 그릇에 떡과 음식을 잔뜩해서 그걸 하인이 머리에 얹고서 러벌러벌 病院안으로 외풍 당당히 들어 왔으니 오죽이나 우스웠겠는가? 생각하자니 아파 그때만 해도 젊은 남녀들의 “키스”가 있었던 모양이다.

現延世大齒科 건물은 美人 “부-스” 氏가 본국에 가서 기금을 모아 그때로 말하자면 齒科中央醫療院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건물이 되기 전에는 齒科가 현재는 동교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六・二五 이전에는 외래로 사용하던 곳에 있었다.

“세부란쓰” 커피에 있던 나는 개인 개업을 하려고 그 후에는 지금 塔洞公園 後門 옆에 있는 “다히루” 二層建物을 그 때 돈으로 壹萬圓을 들여서 직접 지었다 1個月을 개업하고 보니 첫번 總收入이 300圓이었다. 300圓이라면 조선총독의 월급이 분제 되지 않는 거액이었으나 실은 赤字운명이었다.

내 포부뿐 아니라 그때 젊은 이들의 抱懷는 최근 청년들의

그것과는 비할 수 없을만큼 크고 높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좀더 크게 좀더 광대한 支那大陸에나 가서 힘껏 일해보고 싶은 생각을 했다. 그러자 天津에 있는 명성 높은 중국인 상류층 가정 출신들이 공부하는 남개대학(南開大學)에 齒科校醫로 오지 않겠느냐는 말이 왔다. 이 대학은 모두가 고관의 자식들 판이고 전통 깊은 대학으로 중국문화의 중심지라고도 볼수 있는 곳이라 나는 자연히 天津에서 일류급 인사들만을 患者로 취급했거니와 일반인은 보려고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꼭 시간약속 하지 않고선 되지 않았다. 華日事變을 나는 여기서 맞았다.

2年前의 일이 되는데 그 사변이 왔게 되자 나는 곧 귀국한 것이다.

回顧하면

나의 齒科醫師로서의 재미있던 시절은 그게 비록 짧았다고는 쳐더라도 이 귀국까지였다.

지금 젊은 齒科醫師들의 若生이라던가 지금 우리 齒科醫師들의 形便을 돌보면 한숨만이 나온다 齒科醫業이 이렇게 천대받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취급되다니 嗚呼! 이렇게 사회가 되고서야 어찌 이 민족이 사회가 문화적으로 앞날에 기대될 그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이제는 늙은 사람이요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무엇하지만 청년첫과의사 후배제위를 생각할 때 선배로서의 나의 비통 이루 표현할 바가 없다 나는 결코 감상적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게 아니다 의사를 상업자로 보는 일반의 태도는 행정당국을 위시하여 시민 일반의 자신을 위해서, 크게 말하면 이 나라의 국민보전을 위해서 적신평과고 나는 감히 여기 적

고자 하는 것이다.

방금 齒科醫師會의 여러가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옛날의 齒科醫師會로서는 최초이던 漢城齒科醫師會는 1920年경에 창설 되었던 것이다 그때의 初代會長은 咸錫養氏 이었고 회원은 전부가 7명 원생존자로서 金溶璫氏 (現大齒副會長)、金然權氏 (現大齒監事)、그리고 本人 이었고 故人으로는 趙東欽氏、金昌圭氏 朴俊榮氏 등이었다.

재미 있는 것은 會員 7名 이기에 모두가 간부로 모두가 회원이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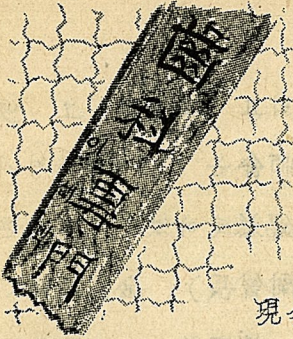
그래서 이회는 차차 커져서 한국인 만으로서의 齒科의사회로 태평양전쟁 초기까지 운영되다가 일시 중단되고. 8. 15 후에 다시 결성되더니 이제 다시 발전되어서 이른바 오늘날의 大韓齒科醫師會라는 法定團體가 된 것이다.

나는 비록 무능한 일개의 무명 개업의에 지나지 못할지언정 이라고 보니 그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앞날에 우리 大齒에 둔다. 청년 齒科醫人들의 전도는 이 단체의 성패로 직접 좌우된다는 自明之理를 어찌 자각하지 못하는지 또 왜 그 옛날같은 열의가 이 단체에 대해서 부족한지 나는 심히 섭섭하다기 보다는 막해서 말조차 차근차근 할수 없을 형편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해방 10有餘年이 된 오늘날에 와서 30有餘年前의 入齒而들 지금와서 保社部 당국이 “入齒營業者의 既得權”을 위하게 되었다는事實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또 르겠다. -(最新醫學 VOL. 2, No. 2 (1959年 2月) 에 刊載)-

筆者 安鍾書 1895年 서울 胎生

1925年 京城齒科醫學校 卒業. 大韓赤十字社서울支社長
 藝文女子中等學校後援會長. 서울大學校齒科大學同窓會長
 大韓齒科醫師協會 會長等 歷任.



韓末의 齒科業界에 對하여

殷 仲 基

現今 朝鮮에 있어 우리 齒科醫界는 古時에 比較하여 進歩 發展을 이루어 莫로 完備한바 있으나 우리 가운데는 이 現在의 齒科醫界만을 아는 者가 많고 過去에 있어 朝鮮의 齒科界가 如何한 狀態에 있었는지를 아는 이가 적어 나는 이 漠然하고 오랜 過去에 있어져 朝鮮의 齒科的 醫業의 發端을 調査하는 것도 興味 있고 重要한 일이라 생각한다.

朝鮮의 齒科醫界는 지금부터 27年前 大韓帝國政府時代 即 大韓 光武十一年에 齒科的 醫業이 始作되어 半島中央의 漢陽城中에 나타났었다. 이것이 朝鮮齒科醫界의 始祖인 故 崔承龍氏에 依하여 된 일이었다. 氏는 京城의 鍾路通에 「齒科專門」이라고 쓰인 看板을 달고 木製의 간단한 椅子와 極히 少數의 機械(技工器具 및 二三本の 拔齒器)를 갖고 開業했었다. 藥品으로는 「페놀 캄파」와 沃度丁幾、硼酸 따위였다 崔承龍氏는 이 技術을 어떤 日本人으로부터 배웠다고 했지만 이 點은 유감스럽게 明瞭하지 않다. 그가 開業한 后 一年 사이에 故 金漢杓氏가 開業했다. 다음으로 金漢杓氏로부터 배운 申正休氏(現今 鍾路에거 開業)가 開業했다 이때부터 約一年間 經過한 후부터는 이와 같은 齒科醫業者가 兩後竹筍처럼 나타남과 同時에 日本人도 多數로 건너왔기에 大韓政府는 그 對策으로써 처음으로 齒科醫業者에게 營業屑을 下賜하였다 이때에는 아직 外國人에게 營

業을 許可치 않았기 때문에 日本人은 韓國人을 고용하여 그의 名義로 秘密로 營業했다 이와 같은 時代에는 韓國社會가 齒科 醫業者에 對하여 優遇하고 非常히 尊敬했다 더구나 그 當時에 營業狀態는 現今과 別로 好하지 않았기 때문에 相當한 收入도 있었고 치료는 金冠, 고早床義齒 정도이고 拔牙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때는 拔牙하기 위한 麻醉等은 전혀 使用하지 않고 膿漏齒가 動搖하고 있는 것 정도를 뽑기 끝다.

補綴로서는 드물게 Bridge도 있었으나 現今의 架橋齒調製와는 완전히 틀려 Bridge의 支臺는 全部 金冠支臺를 採用하고 그 面方의 支臺金冠을 連結하기 위해 金鉸 또는 金線을 嵌入 鑲着하여 그 金鉸 乃至 金線上에 陶齒를 排列하여 蒸和고무로 蒸和하여 固着한 것이므로 그 當時는 非常히 신기로운 新發明이라 해서 歡迎 받았다.

要컨대 韓國時代의 齒科醫業은 日本人으로부터 習得하여 비로소 輸入된 것은 確實하다 이것은 所謂 새로운 齒科醫學의 一部에 屬하는 것으로 이와 비슷한 行爲는 李朝時代부터 있었다 依해진다. 그것은 주로 拔牙專門이었다.

本內容의 大部分은 申正休氏로부터 聽取한 것이다. (1931)

—(「朝鮮之醫界」第2卷 第2號에서 번역하여 轉載)—

筆者 殷 仲 基

1930年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卒業
全南大學校 醫科大學 齒科々長 歷任

筆者 朴 明 鎮 (1903~1957) 서울 胎生

1930年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卒業
1943, 醫學博士學位를 받음
解放以後 12年間 齒科大學々長 歷任

參 考 文 獻



朝鮮齒科醫界의 追憶

東京 檜崎 東陽

이번에 「朝鮮之齒界」라는 雜誌의 創刊이 있다고 들었다. 半島에 있어서의 空前의 快舉로서 誠心껏 祝福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夢을 거듭함에 더욱 發展이 있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는 것이다.

나에게 朝鮮齒科沿革史의 因것을 寄稿하라는 旧友 飯塚、大澤兩氏로부터의 勸誘이다. 朝鮮은 나의 因緣 알지 않은 土地인즉 沿革史라고 크게 말할만한 것은 못되나 史料參考의 하나로써 내 渡鮮한 動機를 적고 해를 더듬어서 내 기억에 있는 在鮮中の 斯界의 進展을 記해 보기로 한다.

明治37, 8年 日露戰爭 當時 陸軍省은 出征各軍에게 一名씩의 齒科醫를 招請하게 되고 나도 그때 陸軍省에 選拔을 얻어 韓國駐劄軍司令部附로 命을 받았던 것이다.

三十八年九月一日 東京 新橋驛을 出發하여 玄島에서 待船하기 三日째에 비로소 軍用船에 타고 宇品港을 七日에 떠나 九月十日 午後 仁川港에 到着했다. 上陸하자 偶然히도 飯塚徹吾도 同時刻에 上陸해서 意外로 맞았다. 同君은 不幸히도 途中에 難船에 遭遇하여 歿했다고 듣고 참으로 同情하지 않을 수

있었다. 同君은 君의 目的인 漢城病院 齒科部担任으로서 곧 京城으로 向來하였으나 나는 그날 仁川에 一泊하고 翌十一日 京城 大和町 (記者註= 現筆洞二街) 所在 軍司令部에 着任했다.

宿舎는 司令部의 뒤 南山公園의 東方에 位置하고 風光明媚、四圍白砂青松、毎朝의 洗面은 一流의 溪水에 했다. 大空을 우러러 보면 참으로 「코바르트」로 秋天은 더욱 높고 旅情의 寂寥함을 느끼고 또 心身의 淸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가을이 오고 早天의 冷風 몸에 스며들음을 느낄 때엔 늘 渡鮮當初를 想起하게 됨은 相當히 깊은 印象을 받은 탓이다. 그리고 이 稿를 쓰는게 또한 곧 그時季임은 참으로 偶然이 아니다.

着任後 兩三日로서 診療를 開始했다. 午前엔 兵士 二十名内外 午後는 司令官、參謀長、各部長、以下 將校의 診療를 하고 어떤 날은 그때의 統監인 伊藤博文公의 祭上齒等도 만들었다.

國際적으로 各國의 駐在公使 또는 韓國의 大官들을 診療함等 매우 奔走했다. 日曜日 祭日은 日本人町 朝鮮人 을 見學했는데 여러가지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當時의 京城은 仁川보다 人口가 적고 다만 七、八千이라 들었다. 本町通 (忠武路)도 半數以上 朝鮮人 家屋으로 오늘 생각해 보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同業한 君은 野田應治君. 단 한名이고 場所는 本町一丁目 本通이고 (忠武路一街路邊) 入口에는 고부床義南、金齒陶齒를 排列한 標本箱을 걸어두고 있었음은 明治의 初年 東京 橫濱에서 入齒師가 그렇게 하든 것을 想起시키는 것이다. 多少 卑俗한 威도 있었으나 朝鮮人들에게 보이는데는 或은 쉽게 알 수 있게 方法이겠는지도 모른다.

當時 統監政治의 朝鮮에 對한 威力은 絶大한 것으로 統監旗

는 旭 日에 映影되어 南山의 方頭에 輝날리고 移民은 앞을 다
투어 渡來、하루의 日本人 家屋増築은 實로 三百軒이라는 形勢
이었다. 1906

翌年 三十九年二月 平壤所在師團으로 나는 派遣命令을 받고
同地에 六十日 滞在했다. 當時의 平壤은 참으로 荒涼한 것으로
同業의 開業은 勿論 한사람도 없었다. 四月中旬 京城으로 歸任
하여 곧 陸軍로 辭任하고서 軍司令官의 凱旋一行에 따라 東京
으로 도라왔다.

그리고 家族을 다시 이끌고서 同年六月 自宅開業을 目的으로
京城南山町三丁目에 와서 開業했다 陸軍의 내 後任으로는 注連
内堅石君이 來任하였다. 當時 京城에서 自宅開業한 사람은 野田
亮君과 나, 다만 두명이었다. 一兩年으로 나는 다시 南山町二
丁目으로 移轉하고 飯塚君은 뒤를 이어서 南山町三丁目에서 自
宅開業했다. 다음 大韓醫院(後에 總督醫院)에는 渡辺亮君이 오
고 다음에 中村安子女史가 本町三丁目에서 開業. 한편 이때부터
京城에는 齒師의 開業이 各處에 繁殖했다.

京城에서 同業이 漸次 官民을 合쳐서 五名이 되기에 나는
京城齒科醫會라는 것을 組織하기로 하고 어느날 南山町의 楠翠樓
에 參集해 주기를 提議하고 諸氏의 推薦으로 내가 會長이 되
고 그後 每年 春秋二回 會合하고 同業의 統一을 計策했다. 이
것이 오늘 多數會員을 가진 京城齒科醫師會의 發端이다.

그後 開業한 사람은 注連内堅石、伊東喬、橋本清二郎、滿田操、
大沢義誠、岡本亮利、利根川清治郎、近津義堯(故人)、玄瀨文賢、岡
田正、上野孝、外圭三、齊藤鶴雄、咸錫泰、三呂教吉、今井伊重의 諸
君이고 마저 群雄割居해서 내가 用業한 當時를 생각하면 今昔
의 感을 禁할수 없었다. 따라서 每年 總會에는 議論百出 會場

은 늘 꽃을 피웠고痛快하였다

京城이 이렇게 發展함에 따라 釜山、平壤에서도 同業이 늘기
에 朝鮮齒科醫師會組織을 計劃하고 내가 그 創立委員長이 되어
서 그때의 京城齒科醫師會 幹部 羽根川清治郎、大沢義誠、滿田樺
諸氏를 委員으로 大正十年十月二日에 朝鮮齒科醫師會第一回 創立
總會를 長谷川町 銀行集會所(朝鮮호텔前)에서 開會했다. 나는
朝鮮在住 前後十七年에 걸쳐 人生의 半을 朝鮮에서 보냈다. 大
正十年十一月에 京城을 떠나 京都에 왔다.

「註」 樺崎氏は 明治五年 長洲 萩城下の 名門에서 誕生했다.
内務省 齒科医籍 登録 第百五十七号. 京城吳 朝鮮齒科醫師會의
創立者로서 兩者의 初代会長이 왔다(大沢生)

<朝鮮之齒界 創刊号(一九三〇年)에서>

(譯者 = 李漢水) — 1960, 11, 17 —

筆者 樺崎 康陽 1872年 日本 胎生

1891 醫術齒科 試驗에 合格.

1905 來韓하여 1921年에 離韓

朝鮮齒科醫師會를 創設하고 初代会長에 就任



韓國에 온 最初의 美國人 齒科醫師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韓大偉 라는 韓名
을 가진 Dr. David Edward Hahn 이 맨 처음
으로 우리나라에 온 첫 의사인데 正確한 入國年代는 調査中이
나 아까 1910年 前後일 것임에는 틀림 없다

低社部의 齒科医籍에는 단지 1874年 2月 27日에 出生하여 靑島
비니아개의 靑島醫大 齒科를 卒業하고 한국에 온 것으로 적혀 있다
총독부 편지 번호는 제3호인데 貞洞에서 開業했다 한다 朴明鎮氏의 글
에는 Dr. Hantaw 라고 적혀 있고 申仁澈氏 역시 이명으로 利用했으나 Dr.
David Edward Hahn 이 正確한 이름이다.



朝鮮齒科界 變遷物語

大澤 義 誠

朝鮮 齒科界도 最近 눈부실 만큼 意차의 進展相을 보이게 되었는데 今日の 隆盛을 이루기까지 어떤 經過를 取해 왔는가 함을 檢討해 보는 일도 虛事는 아니라 여기며 憑筆임에도 不拘하고 本誌 (譯者 註 = 朝鮮之齒界) 가 創刊되는 機會에 써 보기로 했다.

먼저 밝히 둘 점은 筆者는 大正三年에 朝鮮에 가서 그 以前의 일에 對해서 알고자 材料 수집에 힘 썼으나 容易하게 되질 않았기에 할수 없이 概要만을 摘記하기로 하며 後日 機會를 봐서 補遺코자 한다. 다음에는 于先 京城을 中心으로 해서 記述하고 漸次 地方에까지 言及코자 한다.

搖籃時代

朝鮮에 있어서의 現在の 齒科醫學은 云謂할바 없이 日本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若干 母國에 있어서의 齒科發達 初期의 일을 쓰고자 한다.

멀리 江戸時代의 禁中에는 御齒醫師라는게 있고 幕府에는 口中科醫師라는게 있었다. 그런데 이에 關한 仔細한 것은 그만두고 所謂 西洋齒科醫術이라는 것은 明治七年에 米國人 齒科醫 에리웃트氏로부터 小幡英之助氏가 修得하고 처음으로 東京에서 洋式齒科醫術로 開業한데 始作된다. 이어 明治十一年 高山紀高氏가 米國留學에서 歸國해서 開業했다 이런 事実は 齒科醫術의

監賜이다.

그리면 朝鮮에서도 어느 때쯤부터 있었을까云謂할 바도 없
이 齒科疾患에 罹患되는 사람은 매우 옛부터 있었을터이며 또
그것을 治療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 되는데 何等 확실한
史實도 없는 듯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점은 後日로 미루고
今日の 齒科医術의 朝鮮에 있어서의 端緒는 大体 어느 時代부
터인가 하는 點으로부터 쓰기로 한다.

이것은 少年時代부터 仁川에 와서 醫師 高城氏 밑에서 醫師
를 修業하고 있었던 野田施治氏가 뜻을 가지고서 日本으로 齒
科醫學을 배우러 가서 明治二十六年 六月三十日 歸來하여 仁川
에서 開業한 것에 始作된다. 當時 京城은 仁川보다도 日本人의
人口가 적었었다. 野田氏는 日本에 가서 齒科를 勉學한 堂々한
齒科醫이며 또한 當時에는 아마도 朝鮮으로서는 唯一한 齒科醫
이었을 것이 그의 治療와 施術을 받는 患者는 少數이었기에
氏는 仁川를 本據로하면서 京城으로 出張하기도 하고 또 南鮮
方面에도 때때 出張했던 것이다. 當時 朝鮮 第一의 日本人 多
數居住地이었던 仁川에서도 唯一한 齒科醫의 生計를 괴롭혔다는
것이다.

그後 數年 되지 않아 野田氏는 京城으로 移住해서 本據地로
삼으면서 仁川에는 出張했다는 것이다. 이때쯤 日本에서 田添、
瓜生兩齒科醫師가 京城、仁川等에 왔었으나 兩氏는 모두 開業可
望은 없다고 해서 다시 歸國했었다 한다 그래서 野田氏의 齒科
醫 独占時代는 約十年間 持續되었었다. (野田氏는 昨春 歸國해
서 最近에 作故한 사람이나 朝鮮齒科醫의 開拓者라고 할 뿐이나
同氏의 業績에 關해서는 後日에 다시 쓰려고 한다.) 이時代에
는 野田氏가 義齒을 만들어서 機能을 回復시킨다는 點을 患者

에게 說明하는데 아주 苦心했다는 말도 있다 이것을 가지고서도 當時의 齒科衛生思想은 極히 幼稚하여 지금으로서는 想像조차도 할 수 없는 程度이었던 것이다.

이 時代는 全히 齒科衛生에 理解가 없는 大衆을 相對로 하고 野田氏는 孤軍奮鬪한것 같다. 다음 明治三十七年에 京城日本入 居留民団 田立漢城病院 (現今의 明治町 公設市場 場所)에 齒科医로서 董城養二氏가 來任했다 이것이 病院에 齒科部가 設置된 嚆矢이다 董城氏는 一年餘에 歸國하고 그 後任으로 飯塚徹氏가 來任했다. 同氏도 一年餘에 同病院을 辭任하고 東京帝大 医科石原教授 밑에서 齒科를 研究하고서 다시 來鮮하여 南山町三丁目에서 開業했는데 이것은 明治四十年 二月이다.

이보다 앞서 陸軍에 當時는 韓國駐劄司令部附로 明治三十八年 九月에 東京으로부터 楠崎東陽氏가 來任했다. 이것이 我國의 陸軍에 齒科医를 둔 最初이다. 楠崎氏는 明治三十九年 六月 南山町三丁目에서 開業했다. 이것으로 野田氏 楠崎氏 飯塚氏 三氏의 開業齒科医가 있게 되고 이를 三氏의 鼎立時代는 數年間 繼續했다.

다음 明治四十三年 앞서 伊藤公의 統監政治로서 創設된 大韓醫院은 日韓合併과 함께 總督府醫院 (지금의 京城帝大附屬病院의 前身)이라 改稱되고 外科의 一部로서 齒科診療가 開通되고 渡辺定亮氏의 來任을 보았다. 이것과 前後해서 龍山에 同仁會의 同仁醫院에도 齒科部의 創設을 보고 前記 楠崎氏의 後任으로 온 窪連内堅石氏의 出張下에 佐野史郎氏가 勤務했다 이 同仁醫院은 곧 竜山鐵道病院이 되고 大正三年 二月에 大沢義藏氏가 主任으로 왔다. (大沢氏는 後에 總督府病院으로 転任) 總督府病院 齒科部의 初任 渡辺氏가 転任하고서 東京齒科 出身의 安永鹿三郎氏, 木下芳夫氏를 거쳐 大正三年 三月에 柳樂達見氏가 來任해서 外科로부터

齒科를 獨立시킨 것은 大正五年이다.

한편 開業齒科医家は 明治四十二年頃 注連内堅石氏が 陸軍을 辭任하고서 開業하였을 때 日本에서 中村安子라는 婦人齒科医가 永樂町에서 開業해서 當時에는 女子齒科医로서 大端히 珍奇視 되었던 것이다.

京城齒科醫師會가 처음으로 組織된 것도 이때 쯤이다 이 齒科醫師會에 關해서는 後日 다시 執筆하겠으니 이쯤하고, 다음 잇으신 안될 것이 明治四十年을 前後해서 主要都市에는 入齒營業者의 發生을 본 것으로 그 數도 齒科醫師의 數倍이었다. (이 入齒營業者에 關해서도 後日 다시 쓰고자 한다.) 其他 總督政治로 되고서 各道에 慈惠醫院(지금의 道立醫院 前身)이 設立되고 그 過半數에 齒科部가 있고 그主任者는 거의 모두가 無資格으로 外科의 一部로서 診療하고 있었으나 明治四十四年 大邱 慈惠醫院 齒科에 東京齒科出身 金子英志氏가 來任했는데 當時 官立醫院인 慈惠醫院의 齒科部에는 唯一한 有資格者이었다.

以上과 같이 朝鮮에 있어서의 齒科界는 그 搖籃未期에 있어서도 雖然混沌한 形便으로서 官立醫院에 있어서까지도 無資格者가公然하게 齒科診療를 하고 入齒營業者는 一片의 願書로써 許可되어 그繁殖도 放任되는 狀態이었다.

그리고 医事衛生에 關한 法規도 불완한 것이 없고 비로써, 大正二年 가을에 現行 朝鮮齒科醫師規則(日本의 齒科醫師法과 같음)及 入齒營業者規則의 發布를 보고 다음해 三年一月부터 同法令이 實施되었다. 다음 日本과 朝鮮의 齒科界 發達經路를 比較해서 顯著한 差違가 있는 것은 朝鮮에서는 이 搖籃時代에 이미 다음과 같은 制度가 있었던 것이다. 即

1. 公的 醫療機關(即 官公立病院)에 比較的 빨리 齒科部 設置

를 본 것이다. 日本에서는 帝大附屬病院 其他의 官公立病院에 齒科가 設置된 것이 明治末期부터 大正에 걸쳐서이다.

2. 倭係일 入齒營業者 許可가 無制限으로 그 取締規則 컷도 寬大하여 그들로 하여금 自由롭게 齒科診療를 시킨 것이다. (日本에서는 明治十七年 內務省에 齒科医籍을 医籍으로부터 分堆시킴과 同時に 医術開業試驗을 施行하고 그後 入齒營業者에게 新許可를 하지 않았다.)

以上 두가지는 正系일 私的医療機關(即 開業齒科医家)의 發展을 顯著하게 阻害한것 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事實이 雄弁으로 證據하고 있다. 朝鮮에서 齒科医 養成機關이 設置된 것은 大正十年以後인데 明治末期로부터 大正에 걸쳐서 日本으로부터 朝鮮에서 開業코자 왔던가 或은 朝鮮에서 官立病院에 奉職한 者로서 京城 其他의 都市에서 開業한 者가 적지 않았으나 그들의 大部分은 官民의 齒科醫學에 對한 無理解에 不滿을 느끼고 日本으로 歸國하는 者가 많았으며 그로 因하여 大正三年頃에는 全鮮의 齒科醫師數가 官公立奉職者를 包含해도 三十名이 되지 못하고 七,八年을 經過해도 그 倍數에 達하지 못한 것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暫間 日本과 朝鮮을 比較 記述하였으나 이것은 반드시 이 글의 主意도 아님으로 이쯤하고서 다음회는 齒科醫師規則의 發布부터 그 以後에 생긴 일들에 關係 쓰기로 하고 于先 搖籃時代의 記를 끝맺는다.

1. 野田氏의 個人成分

氏는 明治四年十一月二十四日 北九州의 一角인 大分縣 康國康郡 伊美村의 荒卷十郎氏 二男으로 出生하여 그 幼時에 同村의

野田春泉氏 養子가 되었다. 野田家は 旧日出藩의 士族이며 代代로 医業을 했다. 氏도 亦是 医师가 되려고 明治二十年 十六才時에 朝鮮에 와서 仁川公立病院長 古城管堂氏 밑에서 修學을 始作했는데 當時에는 齒科医가 없고 齒病患者의 疼痛이 甚한 것을 目睹하게 됨에 齒科醫師를 志望하고 明治二十四年 東京에 遊學하여 當時 唯一한 齒科医學校이던 高山齒科医学院에 入学했다. 卒業하자 同二十六年 五月 内務省 齒科医術 開業試驗에 應試하여 合格하고 同六月三十日 内務大臣부리 免許狀을 받았다.

2. 齒科医院 開業

日本에 遊學하고서 훌륭한 齒科医가 되고 더우기나 當時 朝鮮에 있어서 最初의 齒科医이기도 한 意氣揚揚한 青年齒科医의 氏가 歸來 直後에 仁川 本町에 開業한 그 때의 仁川 在日日本人數는 約千名이었다. 그리고 口腔衛生 思想이란 따위의 것을 전혀 없는 幼稚한 大衆은 그가 修得한 齒科医術을 받는者가 적고 新進齒科医도 兩散되었으니 亦是 漢城은 首都이니 希望을 갖고 翌年 二十七年 四月에 漢城에 移轉 開業했다. 그러나 當時는 日本居留民이 仁川보다 적고 約500名에 不過했다. 허나 首都이니만큼 朝鮮人이나 外國人의 受療者도 仁川보다 많았다. 氏가 京城에 온 最初에는 南大門通 바로 지금 大邑朝日新聞 京城支局 (譯者註 = 미우만百貨店 바로 南側 隣接빌딩)이 있는 곳에서 開業했는데 그 後에 南大門通은 거의 朝鮮人 家屋뿐이고 氏의 医院이 唯一한 二層建物이었음으로 周圍의 朝鮮人들이 싸려다 보이는 것이 싫어해서 그렸는지 周圍에서 稔石 當하는等의 일도 있었기에 거기 있을 수 없이 數何月로 해서 泥岬 (진고개) = 現今의 本町一丁目 레스트란 銀水 = 로 移轉했다.

開業 數年間은 汽車도 없는 길을 徒步로 隨行을 거느리고 南
鮮 方面으로 때 때 出張했던 것이다. 仁川에도 漢江의 船便에
依 하든가 또는 말(馬)을 타고서 거의 하루 걸려서 往診했던
것이다. 그리고 當時의 患者는 日本人、朝鮮人、外國人이 있던
것은 말 할바도 없으나 特別 拔牙患者가 많았던 것이다. 다음에
特筆할 것은 그時代의 朝鮮人 患者 (아마도 當時의 朝鮮 上流
社會에 있었을 것이다.)는 口腔內에 金을 使用하는 것을 매우 싫
어 하고 義齒의 鉤까지라 해도 金을 希望하지 않아 할수 없을
때 에는 白金을 鉤로 使用했다는 것이다. 또 義齒을 装着한 사람
들도 필수 있는대로 他人에게 感知하지 않게 되길 希望하였기에
自齒과 義齒인 것을 알고 他人에게 말하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齒科
醫術의 普及 宣傳에는 매우 不利했었다 한다.

3. 當時의 口腔衛生狀態

野田氏가 開業한 明治二十六年頃の 患者 口腔衛生 狀態라고 하
면 오늘날씨는 전혀 想像도 되지 않는 狀態이었다. 即 日本人에
게 있어서도 아침 一回의 口腔清掃라 해도 齒刮子를 使用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或間 使用하는 사람이 있어도 「花王散」或은
「하고 다齒磨」 또는 食塩(多數)을 使用할 程度이었다 그리고 齒
牙의 狀態도 매우 良好해서 當時 野田齒科醫院의 門을 찾는 患
者도 口腔內에 二、三의 齒牙以上 齲齒을 갖는 사람은 絶無에
에 가까운 程度이었다.

朝鮮人에 있어서 古來 習慣적으로 齒牙를 닦는 가닭에 齲齒을
갖는 사람이 極히 적고 따라서 一般적으로 齒痛患者로서 治療를
받는 사람이 드물고 大概가 相當한 口腔 齒牙의 所有者이었다.
이것은 中流以下の 사람이라도 食後에는 잘 漱口하는 좋은 習慣

이 있었던 것이다. 또 一般的으로 朝鮮人은 齒牙를 닦는데 槓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다.

明治二十九年 野田氏가 朝鮮親衛隊의 兵卒募集에 있어 体格檢査 医員으로 從事했을 때 그 口腔檢査를 施行했는데 그 百名當 齲齒을 갖는 사람은 단지 十七名、그리고 一人齲齒數 二十平均齒에 未達하고 (譯者註 = 一人齲齒數 二十平均齒에 達하고 = 라 하는 말은 誤譯이 아님.) 一~二齒 欠如된 사람 十一名、梅毒에 罹患되어 異狀있던 사람은 三名이었던 것、檢査를 받는 사람 年令은 十八才乃至 三十才의 壯者이었던 것이다.

以上을 가지고서 數十年前 當時의 大衆의 口腔狀態가 얼마나 原始的에 가까웠던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健全한 齒牙를 具有하고 있었던가를 想像할 수가 있다.

4. 日露戰役에 特志從軍

氏가 漢城의 日本人村의 中樞에 移轉 開業하고 부터 數年間은 日本에서 渡韓하여 開業한 齒科医가 二、三人 있었으나 모두 居住하기 數個月로써 떠나가고야 말았다. 이것은 當時 一般의 口腔 衛生觀念이 極히 幼稚하고 受療者가 적었던 것이다. 그런데 野田氏는 잘 隱忍自重하여 大衆에 向하여 機會 있을 때 마다 齒科 衛生思想의 普及에 努力하고 專心 齒科医療에 尽力한 까닭에 逐年 患者의 數도 늘고 따라서 院務의 隆盛을 보았다.

그리하여 氏의 不斷의 努力은 점차로 나타나기 좋은 時代가 다가왔던 것이다. 그것은 氏가 開業後 七、八年을 지냈을 때 마침 日露의 風雲이 危急해짐에 그때의 帝政 露西亞의 極東侵略政策과 日本帝國의 東洋平和 確保의 政策은 서로 相密될 수도 없게 됨에 結局 明治三十七年二月九日 仁川灣 海戰을 始初로 해서 宣戰

의 大詔가 頒布되고 日本陸軍은 仁川에서 上陸, 統統 入城한 時代이었다. 當時 이들 多數의 日本 出征 將士 中에는 齒疾을 가진者가 적지 아니하여, 이를 目睹한 民은 惻隱의 情을 禁할 수 없이 無料施術을 하고 많은 將卒을 病苦에서 救하기 에 힘썼다. 그러나 當時 愛國의 至情에 불타는 靑年齒科医인 氏는 이를 가지고 滿足치 않고 篤志를 갖고 出征軍에 從軍해서 無料로 診療에 從事할 것을 陸軍當局에 志願했다. 그當時에 野田齒科医院은 開業의 基礎도 되고 唯一의 齒科医로서 內村人의 患者로부터 信賴를 받고 있었다. 當時 米價는 一升에 金七錢의 時代이었는데 月收入, 七百円이나 되는 때도 있어 氏의 生活은 그 社会的 地位와 함께 向上을 이루게 된 때라서 이것이 凡人이었다면 安逸한 生活에 甘受되어 있었을 것을 氏는 決然 從軍 治療를 申請한 것으로 當局도 氏의 뜻을 壯히 여기고서 다음과 같은 許可가 나왔다.

韓國駐劄軍司令部

齒科医 野田應治

右滿洲軍 總司令部에 特히 從軍하도록 하라

明治三十七年五月十五日

陸軍大臣 寺內正毅

이렇게 許可 받아서 從軍하게 됨에 그때 日本出征軍 京城兵站司令官 山永勝三郎氏로부터 다음과 같은 紹介文을 얻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當時의 野田氏의 精神이 奈邊에 있었는가를 熟

● 知할 수 있겠다. 即.

韓國 京城 南大門通 四格四番地 居留

齒科醫 野田 應 治

右者는 從來 當京城에 있어서 齒科醫를 營爲코 醫院을 有하는 者인데 前番의 第十二師團 入城에 있어서부터 持志로써 軍人 軍屬의 齒科患者에 對해 無料施術을 하고 現在까지 實行하고 있음은 現在 承認하는 바로서 이제 다시금 多數患者 所在地에 가서 恤兵의 意志를 貫徹키 爲해 貴地 各面에 가서 自費施行을 企望코저 兵站線의 通行을 申請하였기에 許可하였음. 各地 各部에 있어서 相應될 便宜를 봐주시고 充分히 本人의 意志를 達成케 해주면 軍隊도 또한 同時에 利될點 적지 않으리라 믿으니 事情을 參酌해서 되도록 便宜를 보아 주시기 바라며 이번 証明과 함께 紹介하나이다.

各地兵站及碇泊所司令部

各田隊及病院患者療養所長 御中

同時에 從軍許可證도 下附되었다.

이렇게 해서 野田氏는 自己 天職으로써 盡忠報國의 素志를 이룰수 있는 機會가 到來하였음을 기뻐하고 이 紹介狀을 얻어 從軍하게 되었다 그리고 戰局의 發展에 따라 漸次 北進하여 日夜 勉勵拮据 齒疾로 苦生하는 將士를 施療하고 크게 日本軍의 感謝를 받게 되었다. 더욱 나아가선 安東縣까지 가게 됨에 醫藥品의

岳切로 할수 없이 京城에 돌아 왔는데 이동안 實로 數個月의 長
時日을 要한 것이다.

京城에 民가 歸來한 것을 伝해 드른 患者의 多數는 氏의 医
院으로 밀려 들었는데 軍國을 爲해 일하고자 하는 氏의 情熱은
기어히 또 다시 旅裝을 갖추고 滿洲의 野原으로 가게끔 했다.
同年五月 海路 仁川에서 大連에 上陸했다. 그리고 滿洲軍司令部에
서 다음과 같은 辭令을 받았다.

齒科医 野田 應 治

右者 特志 治療를 爲해 遼東兵站管區 關東
洲民政署管區及 旅順要塞地域에 旅行을 許可함
沿道 鐵道の 便乘及 必要時에 있어서 車馬의
供給을 받을수 있음을 許可함

明治三十七年八月五日

滿洲軍總司令部 印

이래서 氏는 大連에서 奉天方面에 가서 無料診療에 從事하고
數萬同胞의 疾苦를 곤치고 다시 南下해서 遼陽 大石橋에서 營口
旅順等 各地 戰場 間을 転々하며 各所에서 絶大한 感謝와 信賴
를 받고 別故없이 初志를 貫徹했던 것이다. 戦争과 同時에 從事
하고서부터 前後 一箇年有餘 이 期間에 施療한 사람은 實로 五
千有餘名에 達했다. 그래서 그間 各司令官、病院長、各田隊長等으로
부터 感謝狀을 受領한 것은 數十通에 達했다고 한다.

이렇게 多大한 勞苦와 費用을 써서 獻身的으로 힘쓴 것은 참

으로 奇特이라 할 바르시 當時의 滿洲日報及 同氏의 出身地인 大分縣의 中津新聞에도 野田氏의 行動을 從軍美談으로 巨細하게 報道한 程度이었다.

從軍中 同氏의 困苦와 努力은 大端한 것이 있었는데 이 犧牲的 美譽가 아직 社會에 認定받는 수 적었던 我齒科醫術의 聲價를 發揚하는데 多大한 效果가 있었음은 想像에 어렵지 않는 바이다.

明治三十八年秋 平和克復되자 同氏에 對해서 從軍中의 功勞가 認定되어 勲大等、瑞室章을 받았다 이것은 日本에 있어서 齒科醫師로 軍國에 效力했기에 叙勲된 것은 野田氏가 最初인 것이다.

5. 從軍中 얻은 感謝狀

(譯者註 — 本記事 序頭에 野田氏의 사적이 있음. 日本服 上半身)

— 感謝狀의 內容은 省略)

6. 學校齒科衛生에 貢獻한 事蹟

近來의 學校衛生 特히 中初等學校의 生徒 兒童에 對한 口腔衛生施設의 緊要함이 高唱되게 되었다. 特히 日本에서는 過半數의 府縣에서 各其 府縣令으로서 「學校齒科醫에 關한 規定」을 佈게 되었다. 이 趨勢를 보아 文部省에서는 이들 學校醫에 關한 職務를 統교지 함과 同時에 學校齒科衛生의 發達助長을 促進하려고 學校齒科醫에 關한 勅令의 發布를 布게끔 되었음은 慶賀할 바인데 朝鮮에 있어서는 아직 그程度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 京城齒科醫師會에서는 京城府 當局과 協力해서 大正十二年부터 各會員이 奉仕的으로 府內 各小學校 兒童의 齒牙診査를 行하

고 그와 同時에 所屬會員이 兒童에 交付한 診査票에 依해서 最低料金으로 治療을 하고 있다. 이것이 逐年 良好한 成績을 올리고는 있으나 아직 隔靴搔痒의 感이 없다고 할수 없다. 이와 같이 朝鮮에 있어서는 아직 發達過程에 있는 形便이나 野田氏는 일찌기 口腔衛生을 年少時代부터 勵行할 必要가 있음을 着眼하고 日本에 있어서까지 施行하는 者가 적었던 明治四十二、三年頃부터 그 在住地의 小學校 齒科衛生을 爲해 努力한 것이었다. 이 學校齒科衛生에 對해서 野田氏와 協力하고 同業者 一同이 當時부터 盡力했더라면 朝鮮 아나 적어도 京城에 있어서의 學校衛은 좀 더 發達하고 있으리라 생각 된다.

野田氏가 京城民團에서 行한 方法

- 一、一定한 時期에 있어서 兒童의 口腔檢査를 하고 別紙와 같은 檢査表를 作成코 (譯者註 = 本文에 檢査表가 어떤 것이었는 가를 圖示하고 있지 않음) 各家庭에 送達하고 保護者에게 注意를 줄것.
 - 二、每年 一回以上 保護者及 學校職員 諸氏에 口腔衛生 講話를 할것.
 - 三、學校의 形便 좋은 時期에 兒童에게 齒牙에 関한 講話를 할 것.
 - 四、口腔診査後는 되도록 學校와 家庭과 協力해서 患齒를 診査한 兒童은 治療을 받도록 할것.
- 但 治療을 받는 醫院은 指定하지 않을 것. 要는 治療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그 医療는 兒童과 父兄의 任意로 한다.

다음에 最初로 野田氏가 無料로 自己가 交付한 診査票로써 兒

童의 齒科治療을 行하였으나 無料治療은 下記의 弊害가 있음을 알고서
治療票에 記入된바 같은 料金を 徵收하고 그 學校의 保護者會에
寄附한 일로 있다고 한다.

無料治療의 害

- 一、無料인 까닭에 治療을 粗雑하게 하거나 양약나 의심하는 일
- 二、無料인 까닭에 兒童이 任意로 治療하고 父母는 罔知치 못하
고 따라서 最後에 卽 全治까지 治療하는 者가 적은 일
- 三、無料인 까닭에 診査는 府 또는 學校에서 報酬支給을 받는
것이라 誤解되는 일.

同氏가 診査한 表를 다음에 摘錄한다

明治四十三年 七月二十日

京城日出小學校 兒童齒兒 診査表

(齒科医 野田 応治 診査)

學年別	男女別	診査人員	患者數	健全齒 所有者數	要治療齒數
1 學年生	男	48	42	6	207
	女	44	38	6	321
2 學年生	男	57	51	6	148
	女	39	37	2	196
3 學年生	男	47	40	7	143
	女	32	28	4	170
4 學年生	男	41	36	5	146
	女	46	37	9	182
5 學年生	男	53	44	9	139
	女	30	25	5	162
6 學年生	男	42	37	5	87
	女	36	21	15	97
診査人員計	男	288	250	39	870
	女	227	186	32	1,128
合 計		515	436	79	1,998

百名당 齲齒을 有하는者 八十四名임

一人平均齲齒數 男 3.5 女 6.0 齒數

注意 = 이 밖에 이미 治療를 加한者 或은 拔齒하고 欠如된
者를 加할 때는 一人平均 七齒가 된다.

明治四十四年 四月

南大門小學校 兒童口腔診查表

学年別	男女別	診查人員	患者數	健康者數	要治療齒數
1 年 生	男	71	64	7	218
	女	74	39	8	196
2 年 生	男	58	51	7	102
	女	36	31	5	127
3 年 生	男	49	42	7	109
	女	29	26	3	121
4 年 生	男	49	40	9	148
	女	32	25	7	137
5 年 生	男	50	46	4	91
	女	39	33	6	108
6 年 生	男	37	32	5	122
	女	30	28	2	207
診查人員	男	314	275	39	790
	女	213	182	31	906
合 計		527	457	70	1,696

野田氏가 學校衛生에 힘쓴 것에 關係한 이것을 具體的으로 記
述하려면 아직 많은 事實이 있으나 아쉽게도 予先 擲筆한다.

7. 公共的 奉仕

同氏は 資性 極히 溫厚篤典한 人士이며 公共的 方面에도 相當
히 尽力했으나 性來 名利에는 恬淡하였기에 그 社會的 位置에
있어진 빛난 것은 아니었다. 特히 齒科醫師會를 爲해위는 언제나
會員間에 融和親睦을 힘쓰고 表面에는 그다지 나가지 않았다. 그
리고 大正四年十二月 梅崎氏와 交代해위 京城齒科醫師會會長이 되고
그 後 評議員으로서 會를 爲해 힘쓰는데 不遺餘다.

다음에 들것은 氏は 植民地에 있어선 宗教의 隆興이야 말로

緊要한 것이라 하여 神社 佛閣에 多大한 寄與를 했었으나 이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關係없는 것이기에 紙上에서는 省略키로한다
以上 野田氏의 事蹟의 大要를 쓴 것이 되는데 氏의 在韓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明治二十年 即 氏가 十六才 때부터 仁川에 와서 昭和四年四月 朝鮮 歸國할 때까지 四十數年間 그 生涯는 거의 朝鮮에 있어서 齒科醫入으로 斯界에 貢獻한 것이었다. 歸國後 氏는 悠々히 生活하고 있었는데 今春以來 (譯者註 = 昭和五年「1930」) 病臥. 七月十日永眠했다. 享年 六十才이었다. 끝으로 삼가 野田応洛氏 逝去에 對해서 哀悼의 뜻을 表한다. <朝鮮之醫界 創刊号 ~ 第四号에서>

(譯者 = 李 漢水) — 1960, 11, 17 —

筆者 大澤 義 誠 1890年 日本 胎生

1914년에 來韓하여 同仁醫院 (龍山 鐵道病院) 齒科에 勤務
1916년에 서울에서 開業
連合齒科醫師會 會長 歷任. 終戰後 死亡.

★ 大韓齒科 矯正學會 (1959. 5. 30 創立)

會長 金 貴 善 · 總務 李 漢 水

幹事 朴 光 振 · 李 春 雨

★ 大韓齒科 基礎醫學會 (1959. 6. 13 創立)

顧問 金 永 昌 吳 各分科委員長

會長 金 康 順 副會長 劉 鍾 德 · 尹 信 鉉

總務部 金 周 煥 · 學術部 黃 聖 明

編輯部 趙 漢 國

幹事 趙 喜 國 · 丁 康 均 · 鮮 于 良 國 · 金 明 國

筆者 金斗鍾 1896 慶南 咸安 胎生

1917年 徽文義塾을 거리 1924년에 日本 京都府立医專을卒業

1945年 6月 滿洲医大에서 医博士学位 획득. 韓國医学史学会 會長,

美国医学史学会 會員. 서울 大学校 医大 附屬病院 長, 韓國科学史学会 會長,

現在 = 淑明女大 總長.

筆者 J.L. Boots 1894年 美国 胎生

1921년에 來韓하여 세브란스病院 齒科에 勤務

1939년에 離韓하여 現在 美国 San Diego에서 開業.

筆者 李漢水 1926年 서울 胎生

1926年 10月 17日生. 李順澤氏 長男으로 태어나 京畿 中學을
거쳐 1948年 國立서울大學校 齒科大學을 卒業. 16才부터 日本의 短
詩「俳句」에 趣味를 느끼고 現在는 高浜年尾氏의 門人으로 活躍中.

號는 桃丘子, 「호도도끼스」派의 作家.

現在 = 서울 市 齒科 醫師會 總務常務理事, 韓國齒科言論機構 會長

大韓齒科矯正學會 總務部長,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 會長.

韓立인 會 運動者會 創立準備委員長, 日本齒學研究會 會員.

住所 = 서울 特別市 西大門區 大峴洞 38-1

筆者 崔正奉 1936年 慶北 清道 胎生

本名 = 鎮煥. 釜山 高等을 거쳐 1959年에 齒科大學 卒業 同年에
大學院에 進學.

現在 = 齒科大學 豫防齒學教室 助教.

The Progress of Dentistry in Korea

by

J.L. BOOTS, M.S., D.D.S., F.A.C.D.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Keijo, Chosen

Read before the Keijo Dental Society Annual Meeting, Sept. 1934.

Before the next meeting of this Society I expect to return to my native country, so it is natural that in preparing an address for you I look in retrospect when I consider dentistry in Korea. It is natural that I should think back fourteen years to the days when I first came to this land. I remember the Dental Department of my own institution as the weakest and smallest department in the Hospital. I remember Dr. Nagira in his small clinic in the Government Hospital. I remember when I visited him, I thought the equipment very meagre and inadequate. I remember the impossibility of getting a Korean assistant trained in what we understood as modern dentistry, and very few Japanese dentists that had a reputation for having satisfactory equipment and doing satisfactory work. So far as I ever heard there were no organization and no regular dental meetings to study, observe, compare and reflect, to link up the dental work here with that of other dentists of the world. And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be called research into the problems of dental health peculiar to this country.

May I say for the benefit of the younger men, we have come a long way? We are apt to be so concerned in the immediate details of our own private practice that we cannot get the view point of the whole field and see the charged conditions. I see a great deal of progress. My own department has now ten well equipped chairs and twenty seven Korean employees, and is the largest, and usually the most productive department in the Hospital. Under the leadership of Dr. Nagira and his loyal assistants, this fine building stands conspicuous in the center of the city as a monument to dentistry. Here are assembly rooms, lecture rooms, libraries and research facilities, and a large number of well educated students here to take advantage of these facilities. The school has grown very quickly from a small night school to one equally ranked with the best medical colleges of the country.

Besides the few leaders of former days, as Mishina, Iidzuka and others, are now many with new modernly equipped offices, and throughout the country are Korean and Japanese dentists, reading the best dental literature and studying and progressing.

And this meeting itself speaks of the remarkable progress of our profession here. I have seen the change from Irebashi to the office of Shikaiin. Many dentists, both Korean and Japanese, are giving their thought and time and effort to research and study into the problems which confront them.

But we are not through. Our task is not over. And there is yet a great responsibility resting upon us. This progress which we have had in the past should stimulate us for the future. Our problem is something like that which confronts the Christian missionary. We have more dentists and better dentists than fourteen years ago, but we have a great deal more dental disease to fight. You are in a unique position. You are pioneers. Whereas typhoid, small pox and such diseases are being eliminated, dental disease is everywhere increasing.

I remember my search for old native dental instruments when I first came to Korea. There were not any. The reason there were not any is because there was not enough demand to force the people to invent such an instrument in Korea. The most common dental disease among Koreans was pyorrhea which had no pain and loosened the offending tooth, so that it could be removed with the hand, or with any old household pliers when nature finally wished to discard it. But this nation is very fast changing from a sugar free diet to one with the commercial sugar content of the people of other nations. Dental caries occurs almost in proportion to the sugar consumption of any people. So that ten, twelve, fourteen years ago, when I examined a group of school children, or village children in the country, only very occasionally decayed teeth were seen, and none of the children had tasted sugar. Now every child is buying sugar candy in the corner store, and their mouths look very much like the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 with an appalling number of decayed and infected teeth.

I am not very old, but I look old enough to wish to give advice. It may be that I cannot return to Korea to meet you again, so I say to you "Keep up your ideals and do

not resent criticism." A great Russian writer, haranguing capitalistic America, said "The only thing America gave to the world was dentistry." That is hardly true, but if you admit that, it would give much in dentistry to the world. Do not forget that our great national success in dentistry came only after a terrible criticism by a European scientist who pointed out all the faults and weaknesses and unscientific features of our work. That was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X-Ray. From that time on we got a new vis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 mouth to body health.

We dentists, whatever our nationality, should be a proud people, but I hope we will not be too proud to seek criticism in our work and to study it and use it in bettering ourselves.

I still meet people who ask me on the street how much it will cost to put a gold crown on a perfectly good front tooth. That suggests the task which is ours. We must change their ideas of our work. By talks to our patients, by newspapers, magazines, radio, and in the schools, we must convince the common people that we are not mouth jewellers, not gold smiths, but physicians, who specialize in the treatment of diseases of the teeth.

My physician friends often ask me in despair what to do with the pyorrhetic infected mouths which they see in their medical practice. They want to have the infection in those mouths cleared up so as to help in the treatment of some other disease and to protect their general health. They say often when they send them to their dentist for treatment that the dentist covers the teeth with gold bands which do not fit the neck of the tooth, hold food debris and further increase the irritation which was causing the pyorrhetic disease for which they sought treatment.

The careful sealing of teeth in the treatment of pyorrhea, as advised by the highest authorities in the world today, can be very easily done by us in this country. The treatment requires only a small and inexpensive assortment of instruments, the cooperation of the patient and a manual skill and patience.

I think also that we will adopt the metal inlay, perhaps, of some material less expensive than gold, in the treatment of the increasing dental caries in this country. If this is done by the indirect method, a great deal of the work can be done by a laboratory technician and save the dentist much time. And by the indirect method we can attain better adaptation, more anatomically perfect contour and tighter margins than by any other method. This inlay technique in our clinic seems to give more satisfaction than any other work which we do, and it is a great source of comfort to see patients coming back with

inlays that were done ten or twelve years ago, and the teeth now firm and clean with no recurring caries. This inlay technique and the pyorrhea treatment requires a manual dexterity in which the Japanese and Korean people probably surpass the westerners. There is no reason why we cannot be doing in this country as fine work in these things as is done any place in the world.

We have a great problem to adapt our treatment which is often necessarily expensive, to patients who live on a comparatively low economic scale and have very little money. Korean, Japanese, European and English patients tell me from time to time that they cannot afford to pay the fees for good dental work. Perhaps this is so. Perhaps we shall have to develop the laboratory technician and the oral hygienist assistant, neither of whom require as much education as we do and who, under our direction can do part of our work for less money. But in general dental fees are a matter of public opinion, a matter of relative importance. Korean people, who will pay amounts for restaurant parties and funerals, which would frighten my American patients, will not consider paying ¥25 to save a tooth. The only reason why my American patient will pay our fees is because organized dentists in America, through their dental societies, have convinced the public that their dental work concerns their health and appearance and efficiency, and have created among the common people a demand for good dental service.

Too many people in Korea still want to shop, want to come into the office and tell us what to do in their mouths. We must stop that. We must make the diagnosis and do what we know should be done, or do nothing. Let us be representatives of a profession and not merchants of silver and gold. Let us remember that the best service which we have to give to our patients is our judgment and advice, and that they must understand that that is what they are paying for, and that the materials which we use are only incidental. Let us remember that the finest piece of workmanship, the highest evidence of skill in any person's mouth, is not only absolutely worthless but may be definitely harmful if it were the wrong thing to do in that mouth.

There is one problem which the dentists of many countries have had to face and which is giving so much concern to the dental profession of my country now, and that is the problem of State or Government control. It is a problem which fortunately has not come to Korea yet. It is also a problem in

which, because of my nationality, I cannot help at all. I hope it will not come to us. I hope nothing will come between us and our patients. I hope that no organization will think it necessary to tell us as dentists how many patients we shall see in a day, and how much we shall charge each patient. I hope that nothing will ever destroy the fine personal and individu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ntist and his patient, which give confidence to our patients and creates in us a sincere and conscientious desire to give the best possible service.

韓國齒科醫師狀況 (保社部 統計 1960, 9, 1, 現在)

總齒科医数: 1,353名, 男 1,255名, 女 98

出身別: 齒大 1,023, 檢定 177, 限地 153

大韓齒科各分科學會任員名單

★ 補綴學會 (1959, 6, 20, 創立)

會長 李永正, 副會長 李東圭, 沈泰錫, 總務 金朝桓

★ 保存學會 (1959, 6, 27, 創立)

會長 李有慶, 副會長 金萬壽, 金泳哲, 總務 韓聖一

★ 口腔外科學會 (1959, 6, 30, 創立)

會長 李春根, 副會長 金用培, 卞鍾秀, 總務 鄭淳慶

★ 小兒齒科學會 (1959, 7, 4, 創立)

會長 車文豪, 副會長 金恩雄, 睦榮濬, 總務 金鎮泰

★ 矯正學會 (1960, 10, 17, 創立)

會長 金樂熙, 副會長 李鎮明, 張興洙, 總務 白承浩

保健社會部

齒務課對策委員會

1960年 11月 18日(金)에 열린 第一回 中央委員會 決議에 依하여 齒務課에 關한 委員會 名稱 및 委員構成을 아래와 같이 決定하였다. (1960年 11月 20日)

1. 委員會名稱 保健社會部齒務課對策委員會

1. 委員名單 (無順)

顧問	安鍾書	金濟晉	李有慶	金岐宇	朴洛德
	金永昌	申仁澈	朴道信	李熙昌	曹基沆
	鄭詰九	朴扶榮	張炳乾	金然推	韓相謙
	崔亨坤	金昌圭	崔海雲	林澤龍	曹珥珣
	任育燦	朴昌熙	金淳培	卞鍾秀	金秉式
				林榮均	太錫佑

委員長 韓東燦

副委員長 李錫坤 尹在旭 徐永圭

總務部委員 金達澤 趙鏞起

涉外部委員 李春根 金貴善 尹信鉉 金榮熙 安炳植 李迥柱 李聖民
金鍾玉 林榮俊 吳在仁 崔宗善

企画部委員 吳應瑞 車文豪 金周燮 鄭淳慶 安炯珪 李良淑 金秉順

公報部委員 金用喆 金晃中 文英煥 李漢水 朴光振 崔鎮煥(正奉)

財務部委員 金朝桓 趙興洙 文洪祚 崔正熹 李信雨

(以上)

資 料

社団法人 大韓齒科醫師協會憲章 (1960年10月)

第一章 總 則

- 第一條 本會는 國民醫療法第五十四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한다
- 第二條 本會는 社団法人 大韓齒科醫師協會라 稱한다
- 第三條 本會는 齒科醫學、齒科醫療、國民口腔保健의 向上 및 會員間의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四條 本會事務所는 首都에 둔다

第二章 會 員

- 第五條 本會는 서울特別市、各道齒科醫師會 및 大韓齒科醫學會로 構成하며 同會의 會員은 本會의 會員이 된다.
- 第六條 會員은 齒科醫師 및 限地齒科醫師로 한다
- 第七條 名譽會員을 들수 있다. 名譽會은 本會에 功勞가 大하고 認定하여 理事會에서 推薦된 者로 한다.
- 第八條 總會는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 第九條 總會는 憲章의 改正、豫算의 審議 및 決算의 承認을 한다
- 第十條 總會는 會長、副會長、中央委員、理事 및 監事를 選出한다
- 第十一條 總會는 會長 및 副會長의 不信任을 決議할 수 있다.
- 第十二條 本會에 左의 任員을 둔다
- 會長 一名、副會長 三名、理事 九名、監事 三名
- 第十三條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 第十四條 左와 如히 各委員會를 둔다
- 審査委員會、敎育委員會、醫務委員會、資材委員會、國際委員會、軍醫委員會、財政委員會、出版委員會

第十五條 會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總務 및 會計를 둘 수 있다. 但 總務 및 會計는 理事會의 推薦에 依하여 會長이 任命한다.

各 則

第十六條 前條第八條의 代議員은 서울特別市 및 各道齒科醫師會 員總數十名 中一名의 比로 選出된다. 超過人員數十五名 以上인 境遇 代議員一名을 追加한다. 但 會員數十名 以內인 道에서는 代議員一名을 選出하고 齒科醫學會에서는 分科學會單位로 一名씩을 選出한다. 代議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第十七條 總會에 議長一名、副議長一名을 둔다. 但 議長 및 副議長은 代議員會에서 選出하고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第十八條 總會의 召集은 議長이 한다.

第十九條 總會는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로 하고 定期總會는 每年十月 中으로 하고 臨時總會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召集한다.

第二十條 會長의 要求 및 代議員三十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輔佐하고 會長有故時는 會長을 代理한다.

第二十二條 會長 및 副會長은 前第十一條의 決議에 依한 不信任決議가 있을 때에는 解任으로 看做한다.

第二十三條 會長 및 副會長이 前條에 依한 缺員이 있을 때에는 直時 選出한다. 任期는 前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二十四條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구성하고 憲章의 改正 豫算案 및 決算報告를 提出한다.

第二十五條 委員會의 委員長은 理事로 充當한다.

第二十六條 各委員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一. 審査委員會의 任務는 如左하다.

1. 齒科醫師 및 專門醫의 資格審査

2. 會員의 資格、義務權利等에 對한 解說
3. 二個以上 固體 또는 個人 間의 紛爭 調停
4. 齒科醫師의 醫療行爲에 對한 調査 및 制定
5. 本委員會에 加하는 懲罰은 警告 및 除名

二、教育委員會의 任務는 如左하다

1. 醫科、齒科大學、大學院等에 在하여의 齒科醫學教育에 關한 諸事項의 調査研究
2. 齒科醫師再教育에 關한 件
3. 本委員會는 代議員 또는 理事會의 承認을 經어 前記所管事項의 改善 向上을 圖謀한다
4. 學校齒科醫育成에 關한 事項의 研究

三、醫務委員會의 任務는 如左함

1. 國民保健 및 醫療狀態에 對한 調査
2. 齒科醫療制度、保健行政、口腔保健施設 및 政策等에 對한 企圖
3. 齒科醫院制度運營에 關한 件
4. 所屬 團體와 關聯된 當局 및 機關과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 그 實現化에 努力할 것

四、資材委員會의 任務는 如左하다.

1. 齒科機械 및 材料의 質的 向上과 價格調節에 關한 研究實踐
2. 有害材料 調査、檢査 및 因對 對策樹立

五、國際委員會의 任務는 如左하다.

1. 國際的外交、外國文獻研究、業跡交流 및 國際學會一切에 關한 事項

六、軍醫委員會의 任務는 如左하다

1. 軍齒醫의 向上 發展을 企圖하고 軍務 및 兵務關係一切를 掌握하여 研究 處理함

七、財務委員會의 任務는 如左하다.

1. 財政對策의 研究調査

2. 豫算의 編成과 決算에 關한 事項一切

八. 出版委員會의 任務는 如左하다

1. 本會의 發展에 關한 一切의 出版에 關한 研究 및 發行

第二十七條 各委員會의 委員은 五名 以內로 한다.

第二十八條 各委員會의 委員은 理事會의 推薦에 依하여 會長이 委屬한다

第二十九條 中央委員은 各道會에서 選出된 二名과 本會任員으로 構成한다

但 濟州道는 一名으로 한다

第三十條 中央委員會는 總會의 後任事項 및 總會를 召集 못할 緊急事項이 있을 때 總會를 代身한다. 但 次期總會의 追認을 받아야 한다

第三十一條 中央委員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第三十二條 本會의 議決은 在籍人員 過半數以上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以上의 贊成으로 서 議決한다 但 會則改正 및 前第十一條에 依한 決議는 在籍 三分之二以上 出席과 出席人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으로 서 議決한다

第三十三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 및 諸般事項을 監査한다

第三十四條 正會員은 終身會費 壹萬圓을 一時에 拂入하여야 한다.

第三十五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十月一日부터 翌年九月三十日까지로 한다

第三章 學 會

第三十六條 學會는 各分科學會를 둔다

第三十七條 學會는 每年本會定期總會時에 學會總會 및 講演會를 開催한다

第三十八條 學會에 左의 任員을 둔다

會長 一名、 副會長 二名、 總務 一名、 各分科學會長 一名、
幹事 若干名、 顧問 若干名

第三十九條 會長、副會長、總務는 本會總會에서 選出하고 分科學會長은 各分科學會에서 選出한다

第四十條 學會의 其他事項은 別途會則에 依하여 運營된다

第四章 消費組合

第四十一條 本會에 消費組合을 둔다

第四十二條 組合은 組合員의 福利를 圖謀한다

第四十三條 組合員은 本會會員中 希望者로 分構成한다

第四十四條 組合은 別途定款에 依하여 運營된다

附 則

第一條 本會憲章에 制定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準한다

第二條 本憲章은 總會通過日부터 發効한다

大韓齒科醫師協會任員名單

職 名	姓 名	電 話	職 名	姓 名	電 話
會 長	韓 康 燦	③ 5018	審査委員會委員	金 万 壽	③ 2853
副 會 長	尹 在 旭	⑧ 1330	“ “	金 康 順	⑧ 2205
“	徐 永 圭	③ 7010	“ “	盧 性 允	
“	崔 亨 坤	② 2266	教育委員會理事	金 達 澤	③ 9169
總務理事	趙 鏞 起	③ 2266	“ 委員	李 有 慶	② 6466
醫務委員會理事	崔 宗 善		“ “	朴 扶 榮	③ 4949
“ 委員	朴 三 烈		“ “	申 仁 澈	
“ “	金 永 熏		“ “	金 永 昌	⑧ 2205
“ “	韓 國 泳		“ “	鄭 潤 鉦	
“ “	朴 永 淑		國際委員會理事	金 貴 善	② 5160
“ “	李 有 燮		“ 委員	李 永 玉	⑧ 2205
審査委員會理事	金 用 瑨	⑧ 2205	“ “	金 樂 熙	⑧ 2205
“ 委員	徐 丙 瑞		“ “	尹 信 鉉	
“ “	文 洪 祚	③ 6926	“ “	金 恩 姬	

財務委員會委員	李學秀	②6466	軍醫委員會委員	金廣潤	
財務委員會理事	金朝植		" "	趙昌洪	
" 委員	李奎明	⑤5403	" "	池光源	
" "	金南奎		出版委員會理事	金晃中	④0323
" "	康華然		" 委員	金永善	③4432
" "	申範哲	⑧2205	" "	李煒基	⑤6267
資料委員會理事	李信雨	②7840	" "	崔在京	
" 委員	劉時學	②7370	" "	李正和	③3131
" "	李壽景	⑧1384	" "	崔鎮煥(正奉)	⑧2205
" "	車尚駿		代議員會議長	林榮均	(京畿)
" "	金起鎬		" 副議長	金昌圭	(慶南)
" "	朴又竜	⑤7472	監事	鄭潤鉦	
軍醫委員會理事	文英煥	⑤5170		徐丙益	
" 委員	睦榮濬	⑧2205		金用珍	
" "	柳燦浩				

朝鮮齒科醫師會々則 (1946年度)

綱 領

우리는 醫學振興에 齒科部門을 担当하여 그 健全한 發達을
圖謀하고 適切한 應用을 通하여 文化의 進展과 國民保健
厚生策의 確立을 期함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朝鮮齒科醫師會라稱함

第二條 本會는本會의綱領及總會의決議를完遂함을目的으로함

第三條 本會는各道에支部를 둔다

第四條 本會의事務所는京城府內에 둔다

第二章 事業

第五條 本會의事業은次와如하

- 1) 医療普及의徹底、保健指導의研究와其對策樹立
- 2) 齒科醫學教育、醫療及衛生行政에關한諸制度 方法의講究
- 3) 學會運營
- 4) 機關誌、學會々誌等發行
- 5) 外國學界와의連絡及交換
- 6) 口腔衛生宣傳啓蒙事業
- 7) 優秀한業績에對한表彰
- 8) 其他本會의目的達成에必要한事項

第三章 會員

第六條 本會는各道支部會를會員으로 함

第七條 會員은本會의綱領、會則及決議事項을遵守하기로 함

第八條 會員은次の事項을本會에報告하기로 함

- 1) 事務所의所在及移動
- 2) 每年度末의會員名誌
- 3) 委員(代議員을包含함)의住所、氏名及生年月日
- 4) 總會經過報告
- 5) 其他重要事項

第九條 會員은次の權利가有함

- 1) 本會의綱領及目的完遂에關한意見을本會에提出할수있음
- 2) 會合에있어其의發言權及決議權
- 3) 會의各機構內에選舉權及被選舉權

第四章 部署

第十條 本會에 次의 部署를 들

1) 總務部

2) 財務部

3) 學術部

4) 醫事部

5) 調査部

6) 朝鮮齒科醫學會

7) 特別研究委員會

第十一條 朝鮮齒科醫學會運營의 細則은 別定함

第十二條 特別研究委員會는 醫療制度、齒科醫學教育、保健衛生行政等을
研究、審議、發表함

第五章 一 委 員

第十三條 本會에 次의 委員을 들

委員長 一名, 副委員長 二名, 學會々長 一名,

學會委員 若干名, 特別研究委員會代表委員 一名,

特別研究委員會委員 若干名

中央委員 (道支部會委員長、學會長、特別研究委員會代表委員及

道代議員五名中 一名의 率의 代議員) 常務委員 十名

第十四條 委員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함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輔佐하며 委員長有故時에는 其任務를 代行함

第十五條 學會長은 學會를 統轄함

第十六條 特別研究委員會代表委員은 該委員會를 主管함

第十七條 中央委員은 事業遂行에 以 上 重要事項을 決議함

第十八條 中央常務委員은 會務를 常時 執行함

第十九條 委員의 任期는 二箇年으로 함 但 重任도 無妨함

第二十條 本會의 委員選舉는 總會에 分 無記名投票或은 詮衡制로 하고 投票權

은出席會員一人一票에限함

第二十一條 本會의 委員選舉는 最高點을 當選으로 하며 同票時에는 年令順으로 하고 同令時에는 抽籤으로 함

第二十二條 委員에 被選된 會員은 正當한 理由 없이 此를 辭退할 수 없음

第二十三條 委員에 缺員이 有할 時에는 此를 委員會에서 補選할 수 있음 但補選委員의 任期는 前任委員의 殘留期間으로 함

第二十四條 委員의 任期滿了後라도 後任委員 就任時까지 其任務를 続行함

第二十五條 緊急事項으로 總會를 召集할 時間이 없을 時는 委員長이 即決處理하되 次回總會에 報告하기로 함

第二十六條 本會에 顧問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기로 함 顧問은 名譽職으로 하고 中央委員會에서 推戴함

第六章 會 議

第二十七條 本會의 會議는 總會及委員會로 함 總會는 定期及臨時總會로 하고 中央委員及代議員으로 構成됨 定期總會는 每年一回 四月中에 委員長이 此를 召集함 但事情이 있을 時는 此時期를 變更할 수 있음 臨時總會는 委員長이 此를 必要로 認定할 時 또는 代議員及 中央委員의 過半數의 要求있을 때에 委員長이 此를 召集함을 要함

第二十八條 道支部會는 總會에 代議員을 派遣하기로 하고 其數는 支部會員 十名에 一名式으로 하고 十名未滿인 代議員 一名으로 計算함.

代議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함

第二十九條 總會는 代議員定數 三十分之一以上의 出席으로 戒도함 但同一事項으로 總會를 再召集할 時는 此限에 不在임 總의 出席은 委任狀으로 出席을 代行함을 得함

第三十條 總會의 決議는 出席代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되 可否同數일 時에는 議長이 此를 決함

第三十一條 總會의 議長은 委員長自身或은 指名하기로 함

第三十二條 議長은 議會를 主宰하며 會의 秩序를 紊亂케 하는 會員을 退場시킬 수 있음 議長은 會議錄을 作成하여 出席代議員의 氏名、會議題 未을 記錄하고 代議員 中二名을 指名하여 此에 署名시킴을 要함

第三十三條 總會를 召集할 時에는 委員長은 委員長은 開會日時、場所及 議案을 明示하여 開會 十日前에 代議員에게 通知함을 要함

第三十四條 總會에 報告及 決議事項은 次와 如함

- 1) 各部報告
- 2) 收支 予算
- 3) 綱領及 會則 改正
- 4) 當面 問題 討議 決定
- 5) 定期 委員 改選
- 6) 医療 報酬의 標準額 査定
- 7) 其他 事項

第三十五條 委員會는 中央委員會、中央常務委員會、學會委員會及 特別研究委員會及 特別研究委員會가 있고 委員長此를 召集함 但 委員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時에는 委員長此를 召集함을 要함 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됨

第三十六條 中央委員會는 次의 事項을 執行함

- 1) 本會의 事業一切에 關한 方針을 決議하여 中央常務委員會에 提示함
- 2) 中央常務委員 選舉

第三十七條 中央常務委員會는 本會의 常務執行機關으로 常時 必要事項을 執行함 但 施行에 있어서는 中央委員會에 報告함을 要함 中央常務委員會의 重要執行事項은 次와 如함

- 1) 本會 事業 施行에 關한 件
- 2) 總會 召集에 關한 件 總會에 報告할 事項

- 3) 總會에提出할 議案作成
- 4) 中央委員會에報告할事項
- 5) 總會及中央委員會에서 決議할事項이 되 緊急을要하는事項審議
- 6) 其他委員長이 必要로 認定하는事項

第七章 財 政

第三十八條 本會의 維持는 會費、寄附金其他收入으로 함

第三十九條 道支部會는 每年十二月末日 現在의 會員每人 權 正會員 百五十
円 特別會員三十円을 每年度初로부터 二箇月以內에 本會에
納付하기로 함

第四十條 會計年度는 四月一日로부터 翌年三月末日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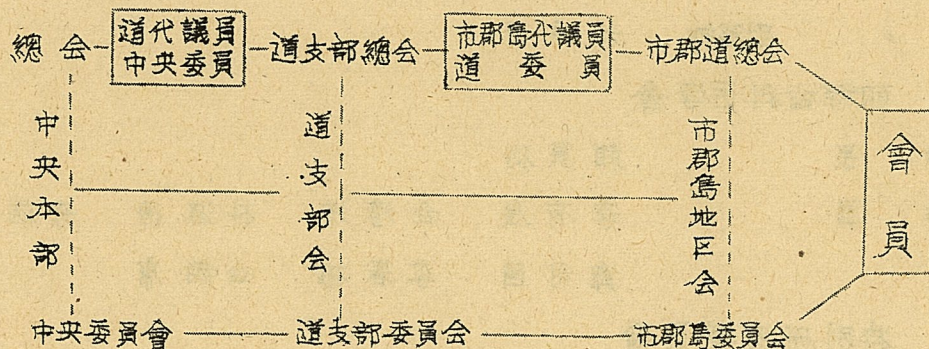
第四十一條 本會則은 總會의 決定에 依는 添削 또는 修正할 수 없음

附 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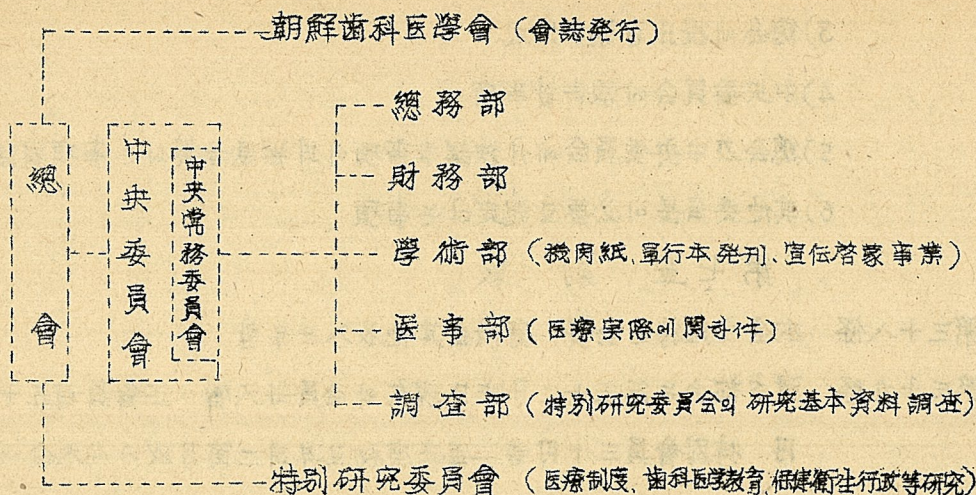
- 1) 本會則은 總會에서 通過되는 날부터 有效함
- 2) 本會의 細則은 中央常務委員會에서 決定하고 本會則에 未備한 點은 通常慣
例에 依함

附 圖

一、組 織



二、中央事務機構 (地方機構는 此에 準함)



朝鮮齒科醫師會任員名單 (1946年)

委員長	朴明植			
副委員長	李斗榮	安炳植		
常務委員	總務部	安炳植	金載天	劉義鏞
"	學術部	金貞奎	金永昌	
"	醫事部	柳邦燮	朴琦用	劉時亨
"	調查部	申仁徽	文昌周	
"	財務部	朴扶榮		

朝鮮齒科醫學會

會長	趙異衍			
委員	李有慶	金淳培	朴洛德	李迥柱
	鄭用國	李春根	金喆庸	

特別研究委員會

責任委員	鄭保羅			
委員	金文祚	元濟辛	崔義鍾	朴道信
	任曹赫			

朝鮮齒科醫師會中央委員會

委 員	京畿	京城	文 箕 玉	金 溶 璫	金 然 擁
〃	〃	〃	徐 丙 瑞	李 聖 民	
〃	〃	仁川	林 深 均		
〃	忠北	清州	李 世 根	朴 成 寅	朴 昌 熙
〃	忠南	大田	任 胃 赫		
〃	江原	春川	崔 冕 鎔		
〃	全南	木浦	盧 基 燮		
〃	〃	光州	曹 珣		
〃	〃	順天	金 性 度		
〃	全北	全州	林 澤 竜	高 漢 俊	
〃	慶南	益山	金 昌 圭	金 尚 文	
〃	〃	馬山	高 相 穆		
〃	慶北	大邱	李 斗 永	崔 海 雲	
〃	〃	金泉	白 洪 鎮		
〃	學會				
	特研	京城	趙 昊 衍		
		京城	鄭 保 羅		以上

大韓齒科醫學會 (1960年)

會 長 李 春 根
 副會長 李 永 玉, 卞 鍾 秀
 總 務 金 東 順, 幹事 金 万 壽, 李 東 燮
 幹 事 金 庚 煥, 韓 宅 善, 鄭 廣 淳, 奇 昌 德
 金 大 英, 金 朝 桓, 崔 尚 烈, 趙 泳 勇.

서울대학교 齒科大學 講義時間表 (4293年度 2學期)

日 時 分	1	2	3	4	5	6	7	8
	8.30 ~ 9.20	9.30 ~ 10.20	10.30 ~ 11.20	11.30 ~ 12.20	1.00 ~ 1.50	2.00 ~ 2.50	3.00 ~ 3.50	4.00 ~ 4.50
月	1	解 剖 學 吳 碧 (李)			組 織 學 (金永)		口組織 (金永)	
	2	微生物學 (沈)		藥 理 學 (吳)		結 紮 (張)		口 病 實 習 (金康)
	3	×線 (安)	局義齒 (李)	口 外 (李)	齒 周 (金永)	局 所 義 齒 實 習 (李) (金仁)		
	4	臨口齒 (車)	成 形 (鄭)	臨 床 實 習				
火	1	生 化 學 (尹)		生 理 學 (南)		生 化 學 實 習 (尹)		
	2	微 生 物 學 (朴)		藥 理 學		衛 生 學 實 習 (金) (車) (金周)		
	3	總義齒 (沈)	口 衛 (金周)	小 齒 (車)	根 治 (金周)	總 義 齒 學 實 習 (沈) (陳)		
	4	×線 (安)	臨口外 (李)	臨 床 實 習				
水	1	解 剖 學 (李)			生 理 學 實 習 (南) (李輝)			
	2	衛 生 學 (金康)			微 生 物 學 實 習 (朴) (李)			
	3	充 填 (金永)	矯 正 學 (金)		口 外 (金)	充 填 學 實 習 (金) (申明)		
	4	調劑 (禹)	英 語 (金)	臨 床 實 習				
木	1	生 化 學 (尹)	齒 形 (劉)	材 料 (金)	齒 形 學 實 習 (劉)			
	2	外 科 總 論 (黃)		衛 生 (叔)	藥 理 學 實 習 (吳) (任)			
	3	結 紮 (張)	充 填 (金永)	根 治 (金永)	總義齒 (沈)	結 紮 學 實 習 (張) (申範)		
	4	臨補 (沈)	保 存 (金周)	臨 床 實 習				
金	1	組 織 學 (金)		生 理 學 (南)		組 織 學 實 習 (金永)		
	2	診 斷 學 (任)		病 總 (金康)		總義齒 (沈)	充 填 (金永)	口 病 (金康)
	3	小 齒 (車)	局所義齒 (李)	耳 鼻 學 (金弘)		小 兒 齒 科 學 實 習		
	4	独語 (金)	法 医 (朱)	臨 床 實 習				
土	1	解 剖 學 (李)		齒 形 實 習 (劉)				
	2	病 理 學 實 習 (李)			病 總 (李)		材 料 (金)	
	3	口 外 (安)	齒 周 (文)	結 紮 (張)	口 衛 (金周)	內 科 學 (朴)		麻 醉 (金周)
	4	榮 養 (崔)		臨 床 實 習				

川島大學校 齒科大學 教職員名簿

(四二九三年七月現在)

口腔解剖學教室					
教授	金永昌	有給助教	黃聖明		
副教授	劉鍾德	無給助教	金明國		
口腔病理學教室					
教授	金東順	無給助教	趙漢國		
		〃	趙永秀		
豫防齒科醫學教室					
專任講師	金周煥	無給助教	崔鎮煥		
保存學教室					
副教授	金洙哲	無給助教	孫奎昌		
待遇副教授	文東先	〃	張興洙		
待遇講師	申明淳	〃	韓聖一		
〃	金英海	〃	卞順姬		
外來講師	金樂熙	〃	白承浩		
〃	林泰洪	〃	金盤熙		
口腔外科學教室					
教授	李春根	無給助教	郭元培		
副教授	金用瑄	〃	全哲植		
助教授	安炯珪	〃	李正植		
待遇講師	金圭植				
〃	鄭淳度				
外來講師	李在賢				
補綴學教室					
教授	李永玉	無給助教	玄健殷		
〃	沈泰錫	〃	趙根沃		
助教授	張完植	〃	李相辭		
專任講師	解于良	〃	徐廷黻		
待遇講師	金仁哲				
〃	申範哲				
〃	陳庸奐				
小兒齒科學教室					
助教授	車文豪	無給助教	張世萬		
外來講師	睦榮澤	〃	鄭秀禮		
		〃	朴永姬		
		〃	金鎮泰		
		〃	金潤璇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 (1960.10.7創立)

會 則

第一條 本団体は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라稱함

第二條 本會는 科學史 特別齒科醫學史에關한諸學術研究를目的으로함

第三條 本會는그目的을達成키爲하여다음과같은事業을行함

一、集談會、學術研究發表會

二、諸關係資料의蒐集

三、研究論文의印刷配布

四、海外斯界와의學術交流

第四條 本會에는다음과같은任員을둠

顧問 若干名、會長 一名、總務 一名、

第五條 本會에加入코자하는者는會員二名의推薦을要함

第六條 本會任員의任期는一年으로함

第七條 年一回의總會를開催함

第八條 本會의 모든議決은多數에依함

第九條 會則에 없는事項은慣例에依함

(以上)

任 員

顧 問 · 金斗鍾, 安鍾書, 李鎬坤, 安炳植,

申仁澈 韓東燦 李熙昌

會 長 · 李漢水

總 務 崔正奉

調查專門委員 · 李墩衡, 朴元洙, 丁達秀, 鄭玉均

崔嬉變, 崔在京 全泰國, 辺道燦

參 與 · 徐永圭, 李春根, 吳在仁, 金用瑄, 金東順, 金万壽

서울特別市國民學校齒科診療室設置條例

第一條 各國民學校에 學校齒科診療室을 設置한다. 學校齒科診療室에는 다음의 設備을 갖추어야 한다.

齒科椅子、齒科用유닛 (UNIT)、카비넷 (CABINET)、消毒器、

其他齒科에 必要한 設備

第二條 學校齒科診療室은 國民學校의 齒科衛生에 關한 業務를 遂行함

第三條 學校齒科診療室의 主務者는 齒科醫로서 補하여 學校齒科醫라 稱하고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以下教育委員會라 稱한다) 가 이를 委囑한다

第四條 學校齒科醫는 第二條의 職務를 遂行하고 그 所管業務에 關하여 教育委員會와 그 學校長의 諮問에 應하며 또는 建議한다

第五條 各國民學校齒科醫에 對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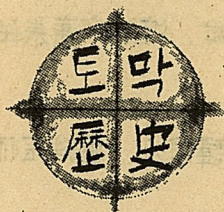
第六條 本條例에 定하지 아니한 學校齒科勤務에 關한 事項은 必要에 따라 教育委員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本條例를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檀紀四二九三年六月三十日市議會通過)

(檀紀四二九三年八月十



Dr. W.J. Scheifley 란?

美國의 齒科醫師인데 1915年에 宣教師로 우리나라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 근무하였고 講義도 맡아 했다

Dr. Boots는 알면서도 Dr. Scheifley를 아는 이가 그리 많지 않음은 그가 일찍 美國으로 갔기 때문이다 1921年 한국을 떠나 本國의 Harrisburg로 돌아 가자 Payne-Shoemaker 빌딩에서 開業하며 교회봉사에 全心하였다. 윌라밀피아 치과 대학에 다녔으며 1913年 Temple 大學校에서 D.D.S.學位를 받았다. 1958年 3月 19日 死亡하였다.

韓國齒科医事年代表

李 漢 水 抄

- 1893年 日本人 齒科醫師 野田應治의 仁川上陸으로 韓國에
비로소 西洋齒科醫術이 傳來하다
- 1896年 野田應治가 朝鮮親衛隊 兵卒募集時에 体格 檢査醫員
으로 從事함. 百名中에 十七名이 齒齒를 가지고 있
었다.
- 1902年 日本人 小森이 齒科專門診療所를 京城 진고개 旭旅
館에 開設하고 白金 純金等으로 入齒業開設
- 1903年 野田應治 開業十周年紀念으로 治療費를 大巾引下함
- 1904年 日本人齒科醫師 重城養二가 漢城病院에 兼任하니 우
리 나라에서 綜合病院에 齒科를 둔것은 이것이 최
음이다
- 1905年 橘崎東陽、飯塚徹等 日本人 齒科醫師 來韓.
- 1907年 最初의 韓國人 入齒師 崔承竜氏 鍾路通에서 開業
- 1910年 美國人 齒科醫師 David Edward Hahn (韓大偉)
開業(?)
總督府醫院 外科內에서 齒科診療 開始. 渡辺亮亮兼任
- 1912年 京城府齒科醫師會 創立
咸錫泰氏 日本齒專을 卒業. 最初의 韓國人 齒科醫師
가 되었다.
- 1913年 朝鮮齒科醫師 規則 公布
入齒師 取締規則 公布
- 1914年 柳榮達見、大澤義誠等 日本人 齒科醫 來韓

- 1915年 美国人宣敎齒科醫師 W. J. Scheifley 세브란스病院
에서 일함
野田應海 京城齒科醫師會々長이 됨
- 1916年 總督府病院 外科에서 齒科獨立
- 1917年 韓東燦氏 東京齒專을 卒業
- 1918年 住田信保 總督病院 齒科에 奉任
朝鮮齒科醫學會 創立 會長에 柳榮達見氏 選出
- 1919年 金昌圭氏 東京齒專 卒業
- 1920年 全國에 入齒師 氾濫 京城에 太錫均、申正休、金敎執
等 金榮一(咸興)、劉昌宣(載寧)、孫啓弘(大邱)、趙
鎮岡(開城)
- 1921年 朝鮮齒科醫師會 創立、會長에 樞崎東陽、副會長에 柳
根川、
朝鮮齒科醫師試驗規則 公布, 高相穆氏(慶南) 이 試驗에
合格하여 最初の 檢定齒科醫가 됨
세브란스病院 齒科에 英人 齒科醫師 John Bo-
ots氏 및 J. A. McAnlis氏가 옴
- 1922年 京城齒科醫學校 開校.
釜山에 齒科醫學講習會가 생김.
- 1924年 咸錫泰氏 東亞日報에 「口腔衛生」을 發表.
朝鮮齒科醫師法 改正
- 1925年 京城齒科醫學校 第一回卒業生으로 安鍾書、金榮燾、等
의 韓國人 23名이 卒業
漢城齒科醫師會 組織
朝鮮齒科醫學會雜誌 創刊

- 1927年 서울에 美国齒科保健所 設置 (?)
最初로 口腔衛生講演會가 열림
- 1928年 第一回 「虫齒豫防데이」 實施 (日本)
京城齒科醫學校 校舍竣工
- 1929年 京齒校가 專門學校로 됨. 野田應洛 朝鮮을 떠남
- 1930年 朝鮮之齒界 創刊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第一回卒業生로 朴明鎮、殷仲基
李有慶、申仁漸氏等 卒業
朝鮮에서 처음으로 六月四日을 「虫齒豫防데이」 로 지킴
- 1932年 滿鮮之齒界 創刊
京城齒科醫學會 創立
京城齒科醫學會雜誌 發刊
- 1933年 京城南大門小學校에 齒科診療所 設置
- 1937年 李有慶氏 Pittsburg 齒大를 卒業
- 1940年 裴珍極氏의 博士學位 論文이 東北帝大 教授會를 通過
됨에 따라 韓國齒科界에 最初의 醫學博士 탄생
- 1941年 漢城齒科醫師會 理事長으로 趙秉欽氏 被選
- 1942年 國民醫療法 公布
漢城齒科醫師會 強制解散
- 1943年 朴明鎮氏 博士學位 획득
- 1944年 朝鮮醫療令 公布
- 1945年 漢城齒科醫師會 復活 會長 金溶璿氏 被選
- 1946年 齒科醫師法規 公布
朝鮮齒界創刊
保健厚生部 齒醫務局長에 元洛莘氏 任命
國立서울大學校에 京城齒專編入

- 朝鮮齒科醫師會 創立 會長 朴明鎮氏 被選
 朝鮮齒科醫學會長에 趙異衍氏 被選
 京城齒科醫師會 創立 會長 安鍾書氏 被選
- 1947年 第二回口腔衛生強調週間實施
 醫齒一元促進會 會長 申仁澈
 朝鮮齒科醫報 創刊
- 1948年 朝鮮口腔衛生研究所 設立 所長 金文祿氏
 尹在旭氏 國會議員에 當選
- 1949年 診療科名 改稱運動展開
- 1951年 避難齒科醫師會 設立 會長 韓東燦氏
 國民醫療法 公布
- 1952年 大韓齒科醫師會創立 會長 安鍾書氏
- 1954年 朴明鎮氏 25周年 勤績表彰
 大韓齒科醫學會誌 發刊
 齒學 發刊
- 1955年 大韓齒科醫師會報 發刊
- 1956年 文箕王、曹基沆 兩氏 서울特別市議員에 當選
 金同煥、金煥煥 兩氏 最初의 齒學碩士가 됨
- 1957年 齒醫界 發刊
 朴明鎮氏 別世
- 1958年 第二回아세아齒科醫學會(마니라)에 五名의 韓國代表
 參席
 大韓齒醫報 創刊
- 1959年 齒大 六年制 公布
 齒大學術誌、齒科會報、全南齒醫 創刊
 分科學會 設立

學校齒科校医配置條例 通過

F. D. I. 韓國齒科醫師會 加入

A. D. A. 百年祭에 三名의 韓國代表 參加

1960年 入齒養者條項削除 (訓令 18 號)

全南醫大 齒學部 閉鎖

國民學校 齒科診療室設置條例 公布

保健社會部 醫政局內에 齒務課 復活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 大韓패리오學會、日本齒學研究會

韓國齒科言論機構等 創立

齒務課存廢問題惹起



編輯後記

1960年은 우리 全人類歷史 위에 그

비슷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커중한 해였읍니다

여기 비록 킷과제에 몸을 두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급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에게 뒤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조그마한 의욕이 이제 선배님들의 따뜻한 도움을
얻어 비로소 열매 맺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채찍질을 바라며 ----- (奉)

一九六〇年十一月二十五日 印刷

一九六〇年十二月一日 發行

(每年一回 十二月發行)

發行所 서울特別市東大門區回基洞四四의四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

發行人 서울特別市西大門區大峴洞三八의一

李 漢 水

編輯人 서울特別市東大門區回基洞四四의四

崔 正 奉 (鎮煥)

印刷人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二카四五

精 光 社

代表 禹 和 潤

(非 賣 品)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

顧問

金	斗	鍾	(한국과학사학회장)
申	仁	澈	(前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
安	炳	植	(前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安	鍾	書	(前 대한치과의사협회장)
李	鎬	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李	熙	昌	(前 경기도치과의사회장)
韓	東	燦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상 가나다順)

會長

李 漢 水

總務

崔 正 奉

한국 첫과 의회사 연구를 뜻하는 우리 후진들에게 두고 두고
영광이 있기를 축원한다

한 동 찬

10,000환

안 종 서

10,000환

김 용 진

10,000환

이 희 창

5,000환

이 호 곤

20,000환

박 용 덕

5,000환

이 동 환

10,000환

이 형 주

10,000환

이 춘 곤

5,000환

서 영 규

10,000환

김 귀 선

10,000환

이 규 명

10,000환

오 응 서

5,000환

조 흥 수

10,000환

박 우 룡

10,000환

이 희 병

10,000환

박 광 진

5,000환

김 황 중

5,000환